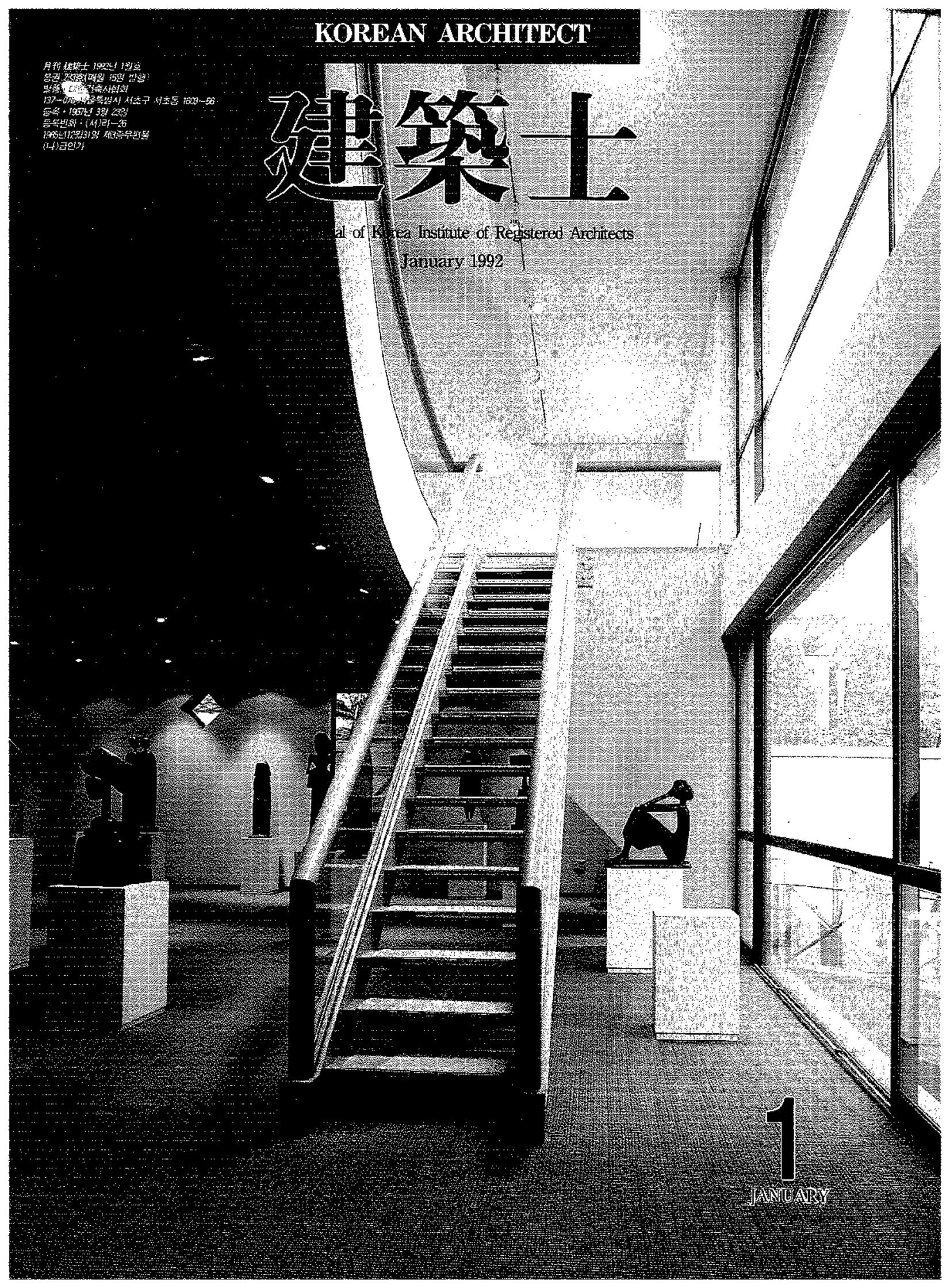


KOREAN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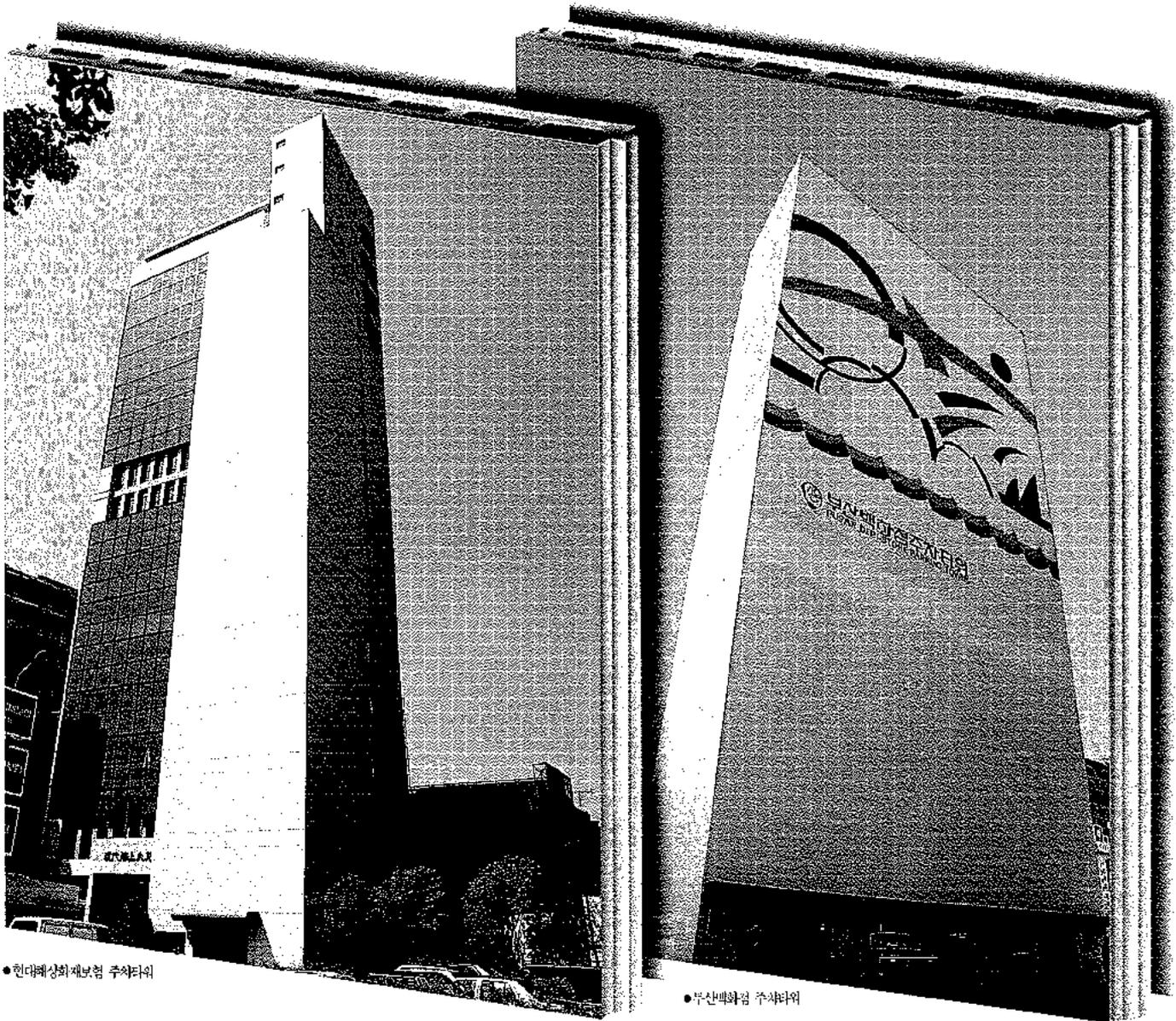
月刊 建築士 1992년 1월호
정권 7383(매월 15원 반값)
발행처: 한국건축사협회
137-07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808-56
등록: 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 (서)21-26
1992년 11월 31일 제3주유권발
(4)금인가

建築士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January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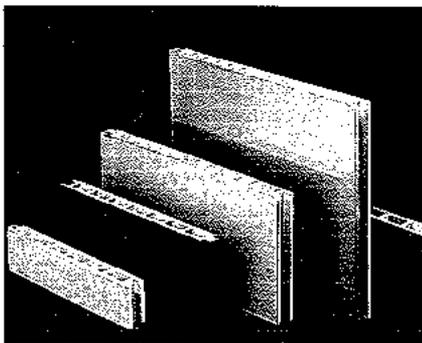
1
JANUARY



●현대백상화재보험 주차타워

●부산백화점 주차타워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 당 부체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인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분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건축물의 외벽·킨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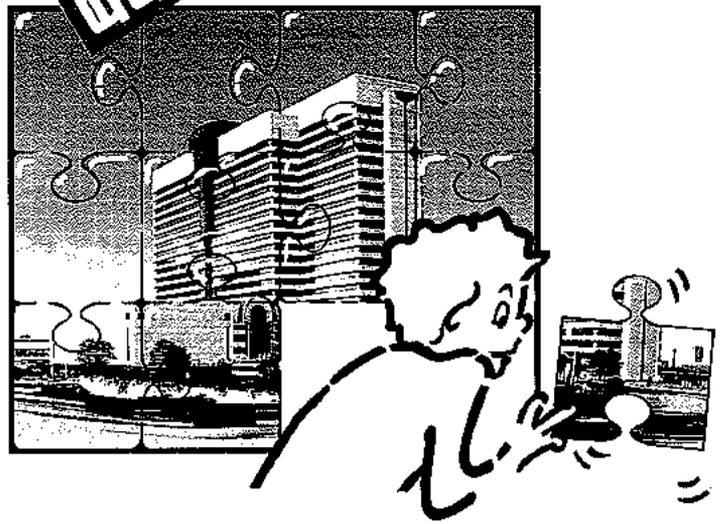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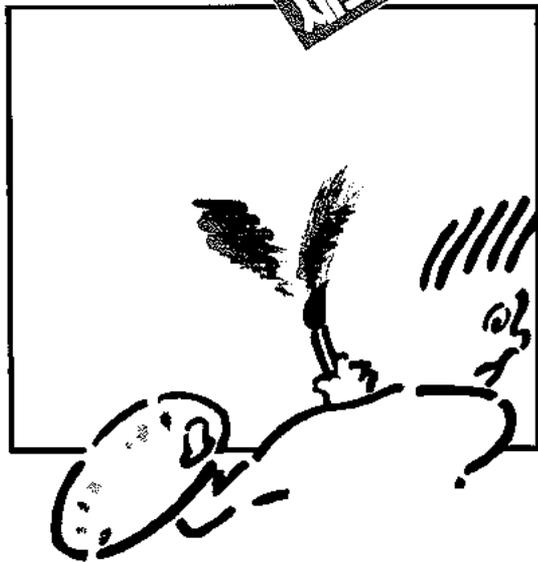
벽산 베이스

“어느 쪽이 쉽습니까?”

새로그리기

VS

따다붙이기



Detail Library

국내 유명 건축설계사무소인 (주) 우일건축에서 활용중인 건축표준상세의 CAD Library 중 일반적이고 사용빈도가 높은 상세의 도해와 CAD Data입니다.

함께 제공되는 CAD Library Data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합하여 CAD 실시도면에 활용한다면

- 1) 사용자측의 도면 Quality 향상
- 2) 표준화로 인한 회사 Q.C업무의 기준마련
- 3) 체계적인 등록 Code 제공으로 사용자가 새로운 상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자료의 회사자산화” 이룩 등 효율적인 건축설계 업무진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어지는 CAD Library

- 일반사항 : 건축 및 구조도면의 Format Sheet와 독립기초, 기둥, 응벽, 철골조의 기둥 및 보의 기본적인 집합상세 - 15개
- 실내마감 : 천정과 벽 그리고 바닥에 이르는 각 부위별 마감에 의한 상세 - 53개
- 바닥, 천정 : 바닥 및 천정에 있어서 바닥의 조건이나 마감재에 따른 상세 - 42개
- 벽 : 벽체를 구성하는 재료 및 각종 System에 따른 상세 - 83개
- 지붕 : 지붕 구성재료 및 각종 Accessories들의 결합과 방수의 종류에 따른 상세 - 41개
- 계단, 운송설비 : 계단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른 부분별 상세 및 기타운송설비 상세 60개
- 창호 : Door 및 Window등 각종 Opening의 재료에 따른 상세 - 48개
- 단위실, 가구 : 화장실, 주방, 욕실, 냉동실 및 카운터에 관한 상세 - 27개
- 외부시설, 기타 : 건물외의 외부시설물에 관한 상세 - 69개 등 총 438개의 상세 제공



Authorized Distributor

CADSPEED®

AutoLISP로 작성된 건축전용 S/W, CADSPED는 범용 CAD S/W인 AutoCAD를 건축설계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AD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Block (마리 그려진 그림을 필요할 때 불러쓰는 AutoCAD명령어의 하나) 의 경우 일일이 작성할 필요없이 폭, 높이 등의 가변치수만 입력하면 지정된 그림을 그려 치수까지 기입하므로 수많은 Block들을 하나의 명령어로 대신할 수 있으며, 벽체선의 경우에는 여러 선들의 간격, 색 및 Layer만을 정해주면 한꺼번에 여러 선들의 보서리 치리까지 해가면서 그려나갈 수 있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AutoCAD 활용의 폭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S/W입니다.

CADSPEED®의 주요기능

복선제도, 복선중간부분 자르기, 복선 끝부분 늘리기 및 정리, 복선 동시 자르기 및 붙이기, 창호평면상세의 자동설계삽입, 출입문 간편그리기, 창호입면, 설계, 평면도 중심축선의 자동적도 및 치수기입, 구조단면 List, 층고로 최적계단설계, 지적도 확대, Line그림과 동시에 치수기입, 치수만의 기입, 면적계산 기입, 글씨제어기능, 지정 Color 및 Layer로의 변환, Skip Line, Point용이, 기둥평면제도, 2점간의 Array 기능, 가설집 평면계획 등 수십 종의 기능모두

- * 본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프로그램등록을 필하였음
- * AutoCAD는 Auto Desk사의 등록상표임
- * CADSPED는 동인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상표임

가 격 혁 명 품 질 혁 명 A/S 혁 명

Turn-Key 무상 A/S 15개월

서통 AI사업부는 AutoCAD, ARRIS등 CAD S/W와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COBRA386, 486PC 및 모니터, 디지털타이저, 플로터 등 CAD주변기기를 Turn-KeyBase 로 일괄 공급합니다.

H/W, S/W, 주변기기는 물론 A/S와 교육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는 편리한 전진구매방식과 더불어 강력한 AutoCAD 3rd Party를 활용해 보십시오.

Turn-Key Base 품목

- SYSTEM : COBRA 386S ● COBRA 486
- MONITOR : NEC-2A(14"), 3D(14"), 4D(16"), XL(20"), 5D(20") ● HITACHI CM2085
- GRAPHIC CARD : AutoPACK ● X-series16, 256 ● Cobra Plus 3BI-HS16, 256
- PLOTTER : MUTOH IP-530E, IP-530EL, F-920E, F-920ER
- DIGITIZER : GTCO SketchMaster 12x12, 12x18 ● Super L 24x36, 36x48, 42x60
- S/W : AutoCAD ● ARRIS ● AutoCAD 3rd-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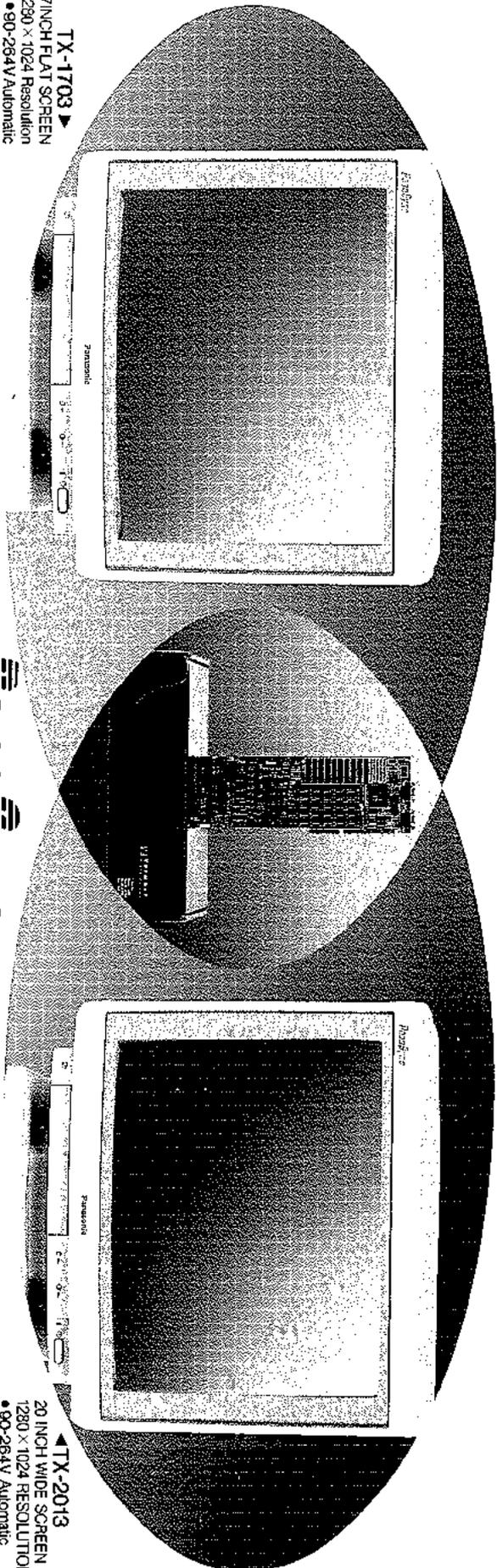
교육장/전시장/A/S CENTER

- 서울 : 강남구 논현동 6-21 TEL: 514-0386
- 교육장 : 대원건축시험회 1층 TEL: 521-7296
- 부산 : 중구 중앙동 4가 76-21 동도빌딩 1층 대원캐드프리스 TEL: 464-6450
- 대구 : 중구 봉인동 3가 271-17 TEL: 281-2856



서통 AI사업부 5140-386

천연의 COLOR를 퍼나소닉모니터에 실현한다!



- ▶ **TX-1703**
 17 INCH FLAT SCREEN
 1280 X 1024 Resolution
 ●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 30-64 KHz Horizontal Frequency
 ● 50-90Hz Vertical Frequency

- ▶ **TX-1713**
 17 INCH FLAT SCREEN
 1024 X 768 Resolution
 ●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 30-64 KHz Horizontal Frequency
 ● 50-90Hz Vertical Frequency



저 넓은 우주에 만물이 형성된 이후로...

이제까지 모든이들은 미쓰시다가 **Panasync** 라는 기술력으로 천연의 컬러를 모니터에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 우리는 **퍼나소닉** 브랜드의 컬러모니터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한 국내 **서울시** 업무 를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펼쳐가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이들이 원하는 많은 정보를 **고객상도 컬러모니터** 에 담기위해 언제나 우리는 모든이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140-386으로 문의하십시오.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 ▶ **TX-2013**
 20 INCH WIDE SCREEN
 1280 X 1024 RESOLUTION
 ●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 30-64KHz Horizontal Frequency
 ● 50-90Hz Vertical Frequ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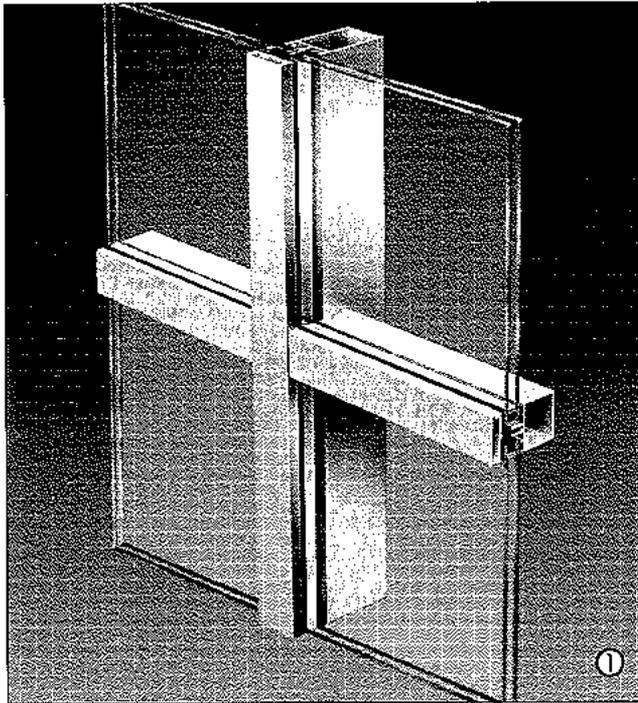
- ▶ **TX-2103**
 21 INCH FLAT SCREEN
 1280 X 1024 RESOLUTION
 ● 90-264V Automatic Power Control
 ● 30-64KHz Horizontal Frequency
 ● 50-90Hz Vertical Frequency

서울 CAD TOWN 센터가
 센터업 · 컴퓨터 ·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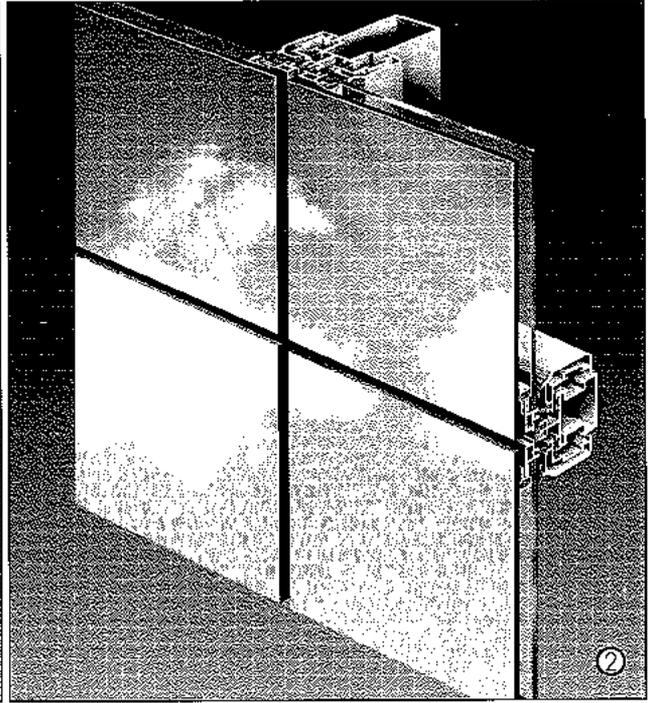
(서울) ● **2남** : 노원동 621 서울시업무 514-0386 (동선) ● **나리** 센터가 : 19동 3F 다 330호 태호빌딩 7-1-6661 ~ 2 ● **선인** 센터가 : 21동 5F-103호 피지컬 703-2905 ● **원효** 센터가 : 6동 3F-35호 한광빌딩 715-2775
 ● **연희** 센터 : 3F B 318호 중대스텔도 718-1103 ● **6남** 센터가 : 2F-25호 홍익빌딩 703-7763 (부동산) ● **중앙** 센터가 : 4기 76-21 동도빌딩 1층 배재카드팩스 464-6450 (대우) ● **중구** 센터가 : 동인동 371271 17 대우빌딩 421-2856
 ● **AS Center** ● 서울 본사 : (02) 514-0386 ● 부산지사 : (051) 464-2093 ● 대구지사 : (053) 421-2856
 ● **Education Center** ● 서울 : 건국사회파 : 521-7296 ● 노원동 : 514-0386 ● 부산 : 중앙동 464 3476 ● 대구 : 동인동 421-2857

고객상도 컬러모니터
Panasonic
 서울 서울시업무 5140-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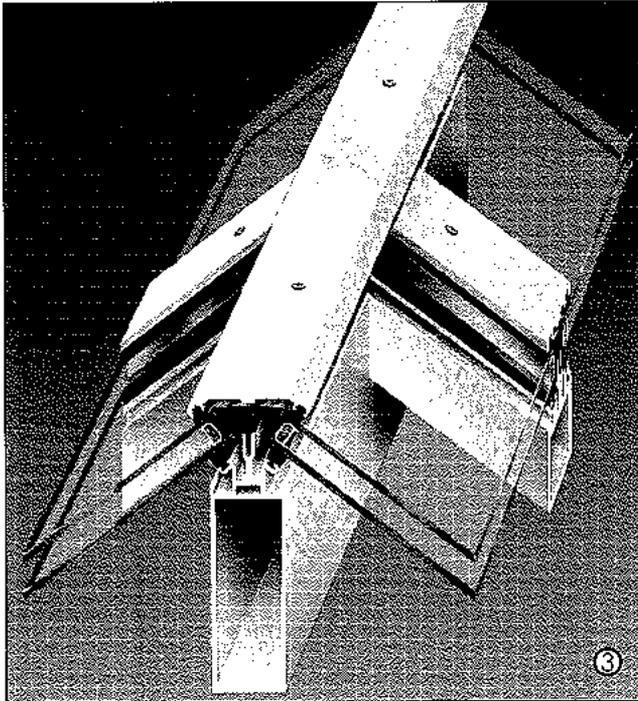
새로운 개념의 커튼월, 이견창호파사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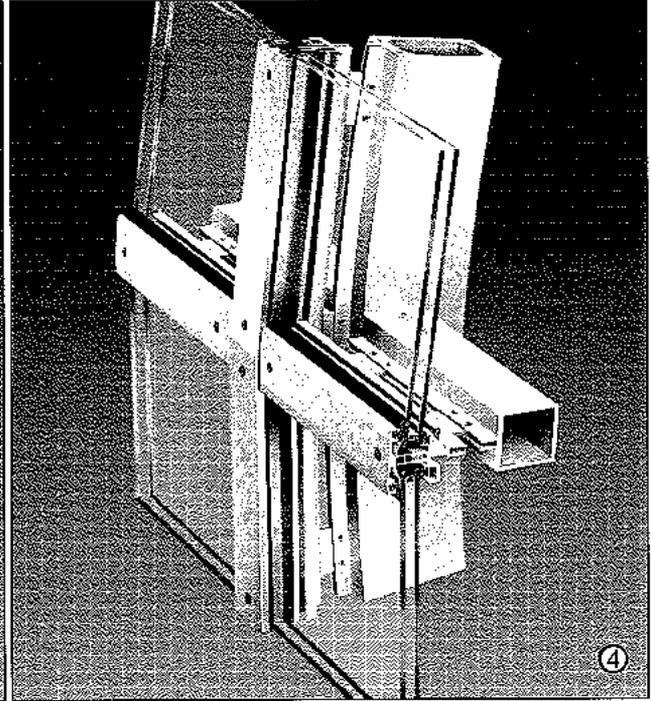
①



②



③



④

독일식 명품창문 이견창호가 새롭게 선보이는 파사드 시스템은 최고의 건축물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커튼월(CURTAIN WALL) 제품입니다.

파사드시스템은 색상과 유리의 선택은 물론 원하는 어떤 형태로도 주문제작이 가능한 고급 커튼월로, 설계자의 구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사드시스템은 독일의 슈코(SCHÜCO)사와 기술제휴로 창호전문회사 이견창호에서만 생산, 공급되며 시공은 물론 완벽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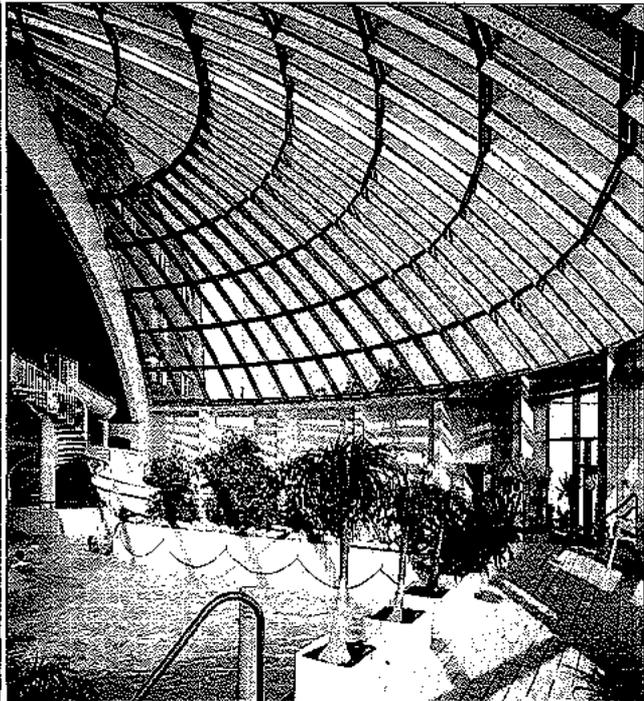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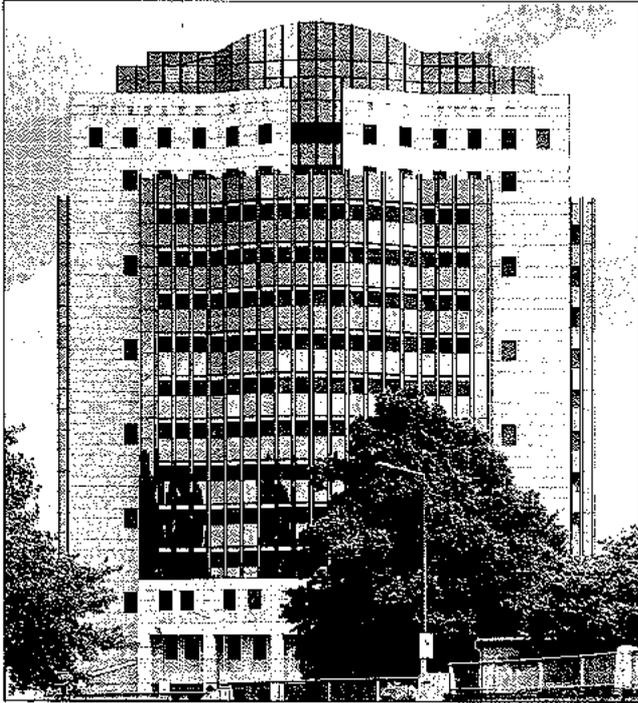
① 파사드시스템 FW50 : 외부로 노출되는 프레임의 폭을 50mm로 극소화시켜 날렵한 외관을 연출하는 수직형 커튼월 제품입니다.

② 파사드시스템 SG50 : 프레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외관을 유리나 천연대리석 등으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③ 파사드시스템 SK60 : ROOF와 천정에 적합한 경사구조의 커튼월 제품으로 과학적으로 설계된 배수시스템이 누수를 완벽하게 방지합니다.

④ 파사드시스템 BV60 : ARCH와 DOME구조 등 곡선형구조를 위한 커튼월 제품으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곡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의 창조적 설계가 살아납니다.



파사드시스템은 POLYAMID계의 단열바(BAR) 등 신소재와 독특한 구조를 사용. 기존의 커튼월이 갖고 있던 자연 환기 부족과 단열, 누수, 결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시공전에 하중과 풍압을 고려한 완벽한 구조설계와 MOCK-UP TEST를 거치기 때문에 안전성과 내구성에서도 확실합니다.

이제, 창문에 관한 문제라면 이건축호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전화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시스템 선정과 견적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이건축호의 전시장으로 오시면 새로운 창문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설전시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동 509 전화: (02)563-2071 FAX: (02)563-5528
- 논현동전시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 (02)540-2071 FAX: (02)540-2089
- 부산전시장 주소: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1434-10 서봉빌딩 2층 전화: (051)557-2071 FAX: (051)557-2077
- 대구전시장 주소: 대구시 달서구 감성동 61-2 전화: (053)553-0916 FAX: (053)553-0917
- 제주전시장 주소: 제주시 노형동 928-8 갈매건축자재박람회 지하 1층 전화: (064)41-4301 FAX: (064)42-3486

이건축호

이건축호주식회사, 이건축호개발주식회사, EAGON FOREST PRODUCT INC, EAGON INDUSTRIAL Co., GmbH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 새중문화회관
- ⊙ 국립극장
- ⊙ 웨라본워커힐
- ⊙ 롯데호텔
- ⊙ 부산문화예술회관
- ⊙ 이화여대강당
- ⊙ 유관순기념관
- ⊙ 충현교회본당
-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 리틀엔젤스 전용 공연장
- ⊙ 서울·제주 신라호텔
- ⊙ 수인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 안양문화예술회관
-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 계몽신당 예술극장
- ⊙ 육군박물관
- ⊙ 대전시민회관
- ⊙ 부곡하와이 등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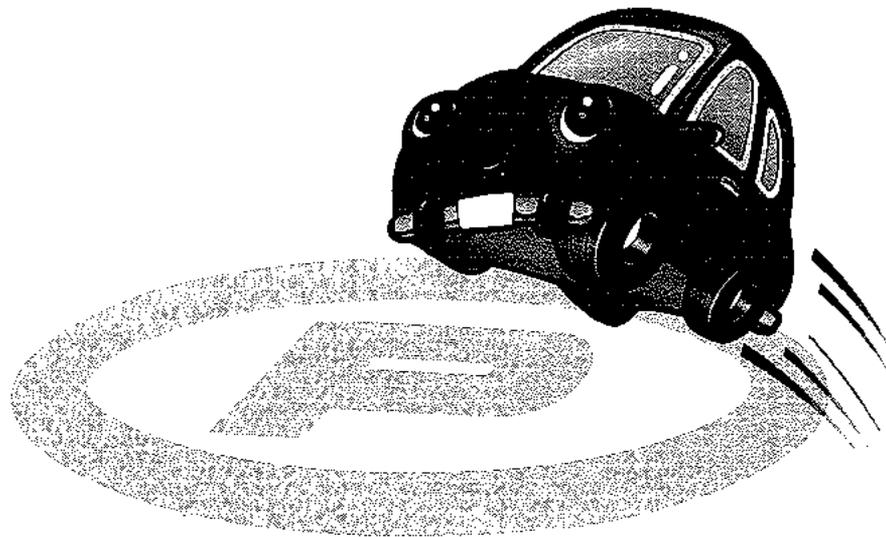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車面 山 209-1 松蔭里 山 209-1
TEL. (0341)987-4184, (02)632-0216

쾌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 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원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기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제장치와 핸드체인인 장치으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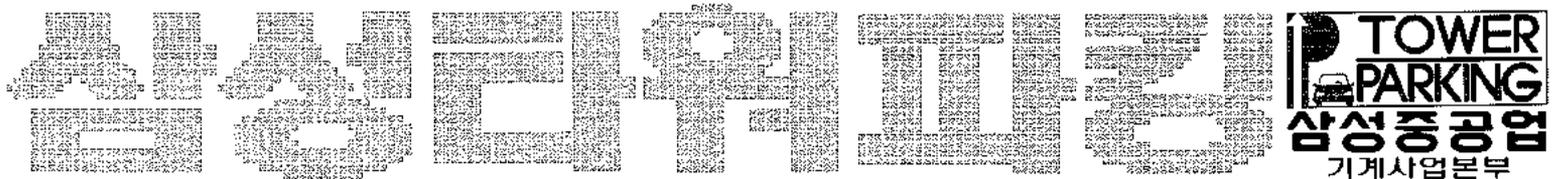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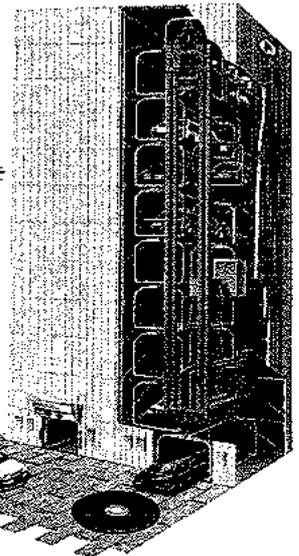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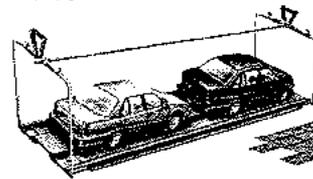
완벽A/S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대형제인에 차량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파레트 하나에 두대 주차

- ▶ **엘라베이터**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 ▶ **지하 다층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 ▶ **조립식 입체쌍면주차방식** :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INSU GLASS 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패널 —
더욱 우수한 1급불연패널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패널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한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을 극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들이 음의 진동을 완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성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패널의 3대 우수성

1. 우수한 불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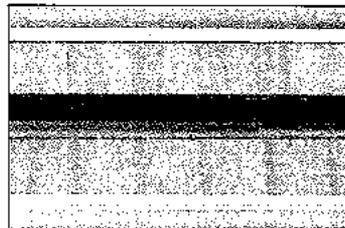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가 KSF2271, BS476 Part4의 관련 규격에 의하여 1급 불연재로 인정받은 무기질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사용 하므로써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연패널이며 내화 구조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료명	최고사용온도
스티로폼	85°C
P. U. R	110°C
P. I. R	180°C
페놀폼	200°C
그라스울	350°C

(단열재의 화재안전도)

2. 우수한 견고성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인 유리 섬유를 겹을 수직으로 세워 성형한 제품이므로 기존의 섬유의 설을 수평으로 성형한 제품보다 압축강도가 10배나 뛰어나 매우 견고하고 균일한 두께유지가 가능하며 박리현상을 완전방지합니다.



(인슈그라스울패널의 단면구성)

3. 우수한 단열성

인슈그라스울패널은 내부단열재가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로 되어 섬유질이 가늘고 균일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안전한 물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효과가 우수하여 전문의 유지비를 내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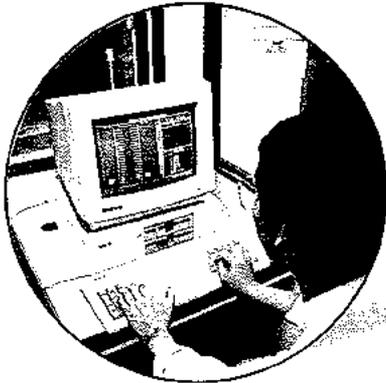
단열재명	열 전 도 율
그라스울	0.029
스티로폼	0.0285
암 먼	0.053
발포 CONC.	0.15

(단열재의 열전도를 비교표)



본사및공장: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TEL: (02)745-0687, (0336)34-8888 FAX: (0336)32-4243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02)555-6891, FAX: (02)553-1651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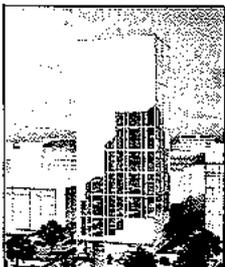


● 한국일보사신관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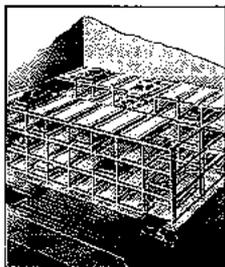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관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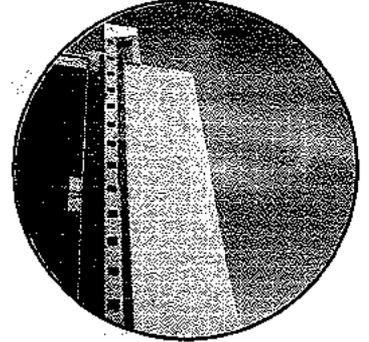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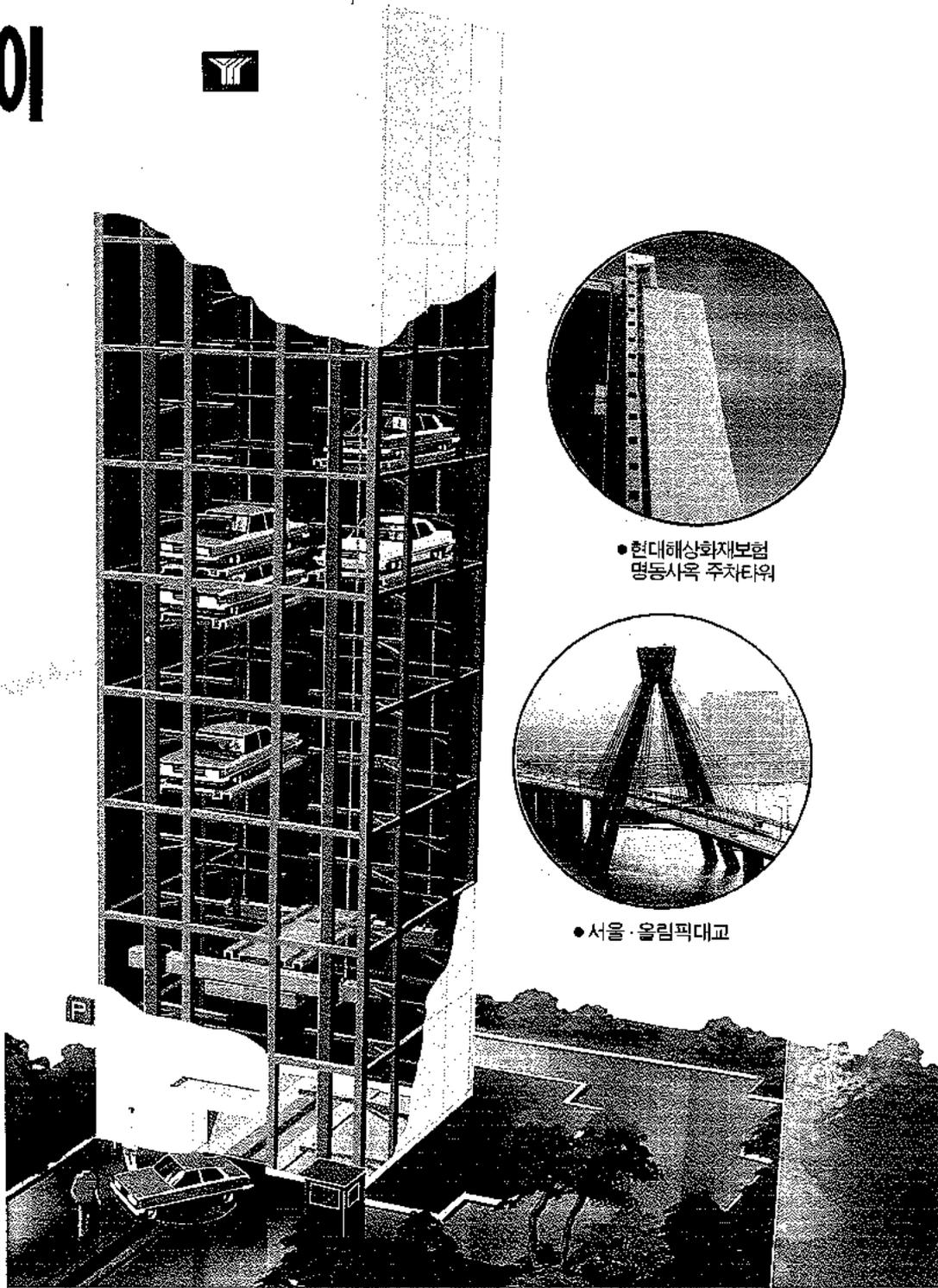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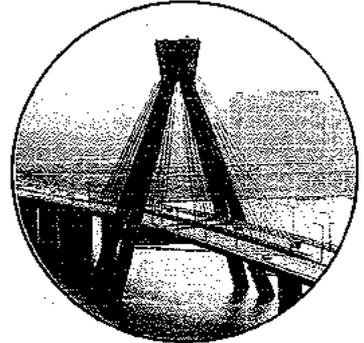
YOP-A연립형



YOP-M형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 서울·올림픽대교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평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비견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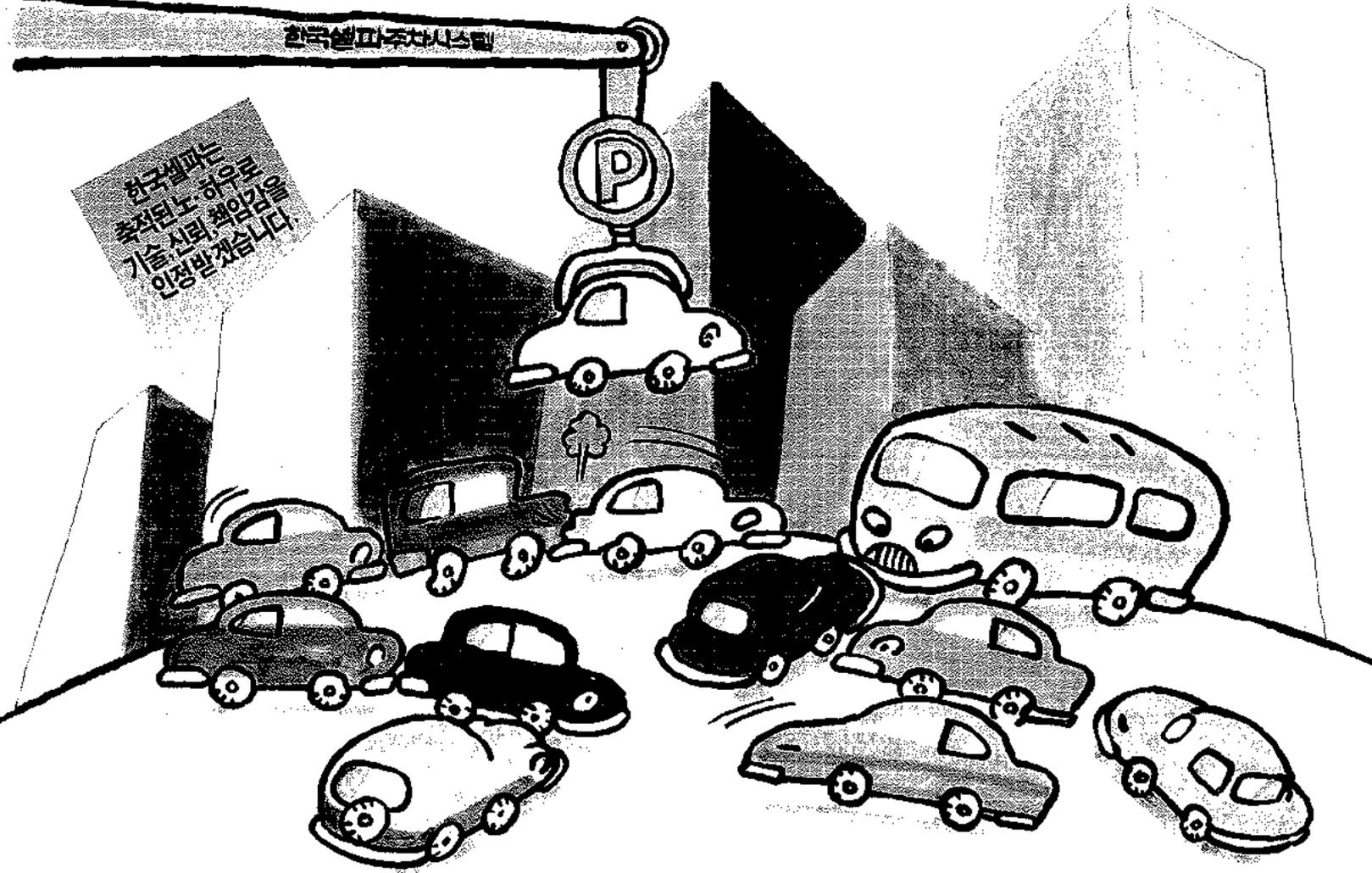
- 한국일보 신관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널 : 3기 120대
- 사당 쇼링센터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 4기 200대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주차시스템

한국셀파의 주차설비가 해결합니다.



주차시스템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주차난은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일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빌딩, 백화점, 호텔 등 대규모 빌딩과 소규모 빌딩, 일반 점포에 이르기까지 저건물의 외형과 지역상권의 가치를 따지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주변 교통환경과의 관계 등을 고려, 사용이 편리한 주차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두뇌가 설계·시공하는 주차설비

한국셀파는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망감과 책임을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하여 첨단로 세계로 전진하고 있는 현시대의 추세에 맞춰 신속하고 편리한 주차시스템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책임있는 A/S로 철저한 사후관리

전국을 5개 권으로 A/S망을 구축 24시간 여러분 곁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제품과 기업의 신뢰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격한 품질관리

엄격한 자체의 선정, 가공 조립이느한 공경일지라도 그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요자 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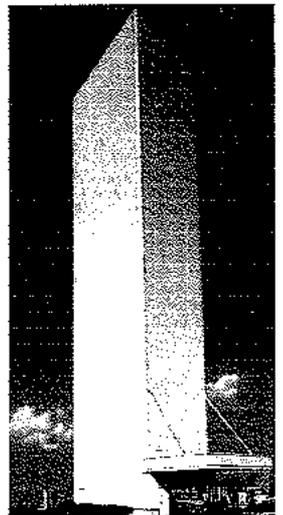
원만한 분위기

컴퓨터의 정확한 공정관리에 의하여 한치의 착오

없이 최상의 상품을 생산하여 약속된 날 현장에 정확하게 납품, 시공하여 셀파의 축적된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겠습니다.

셀파 주차설비시스템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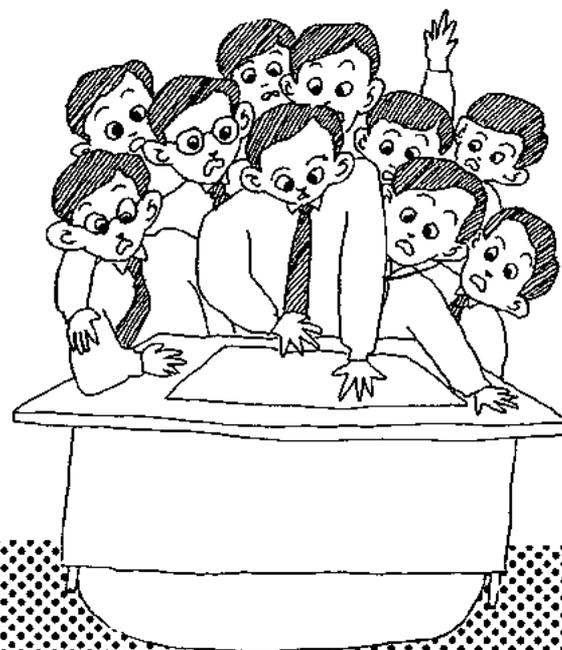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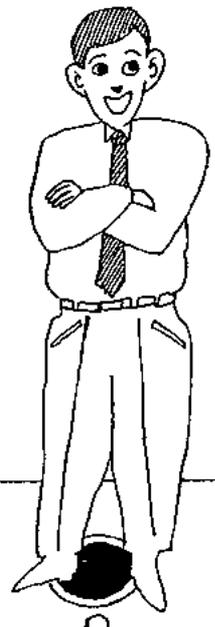
- **피들파킹**
빌딩규모나 주차대수에 제한받지 않고 사용보수가 용이합니다.
- **수평순환식**
밀폐된 공간에 최대의 주차대수 확보를 자랑하며 컴퓨터식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 **E/L 타워파킹**
원터치 방식으로서 초고속 입출고를 자랑하며 Computer 자기관리 운영방식을 도입, 첨단관리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 **광장형 자주식 주차설비**
백화점, 호텔, 편광서 등 입출고가 빈번하고 혼잡이 우려되는 곳에 적합한 맘모스형 주차설비로서 최소의 관리비와 고객유치를 약속드립니다.
- **기타 주차설비 및 관제설비 일체**





COST PLANNING 공사비? = 적산전문용역업체!

- 오로지 "積算" 한 길로만 "성실과 자부심"으로 18年 연구로 ENGINEERING 의 축적에 역점
 - (1) 기술력 추구
 - (2) 업무의 전산화/MODULE화
 - (3) 공사비 산정에 따른 종합 CONSULTANT 관장



설계 내역서 작성

- 관공서 및 일반 건축주의 설계금액 산출과 설계변경, 공사원료시 청산작업의 써어비스

실행 예산서 작성

- 시공회사 및 건축주의 집행공사비 산출 및 DATA 써어비스 업무

HE (株) 現代 積算 엔지니어링

(本社) 서울·서초구 서초동 1503-15호
(양우빌딩 4층)
대표전화: 587-7 2 1 1
F A X: 587-6 8 6 5
(支社) 대구직할시 동구 신천3동 272-3
전 화: (053) 751-6 7 5 4
F A X: (053) 751-6 7 5 4

적산업무의 전산화

- 과거의 많은 인원과 시간의 소요를 전산에 의한 신속성과 정확성으로 진한

작업원료후의 A/S업무

- 관공서 및 발주처의 CHECK 업무대행 및 설계변경, 기타 청산작업의 써어비스 업무

ARRIS

ARRIS

가장 뛰어난 구축비용 (비즈니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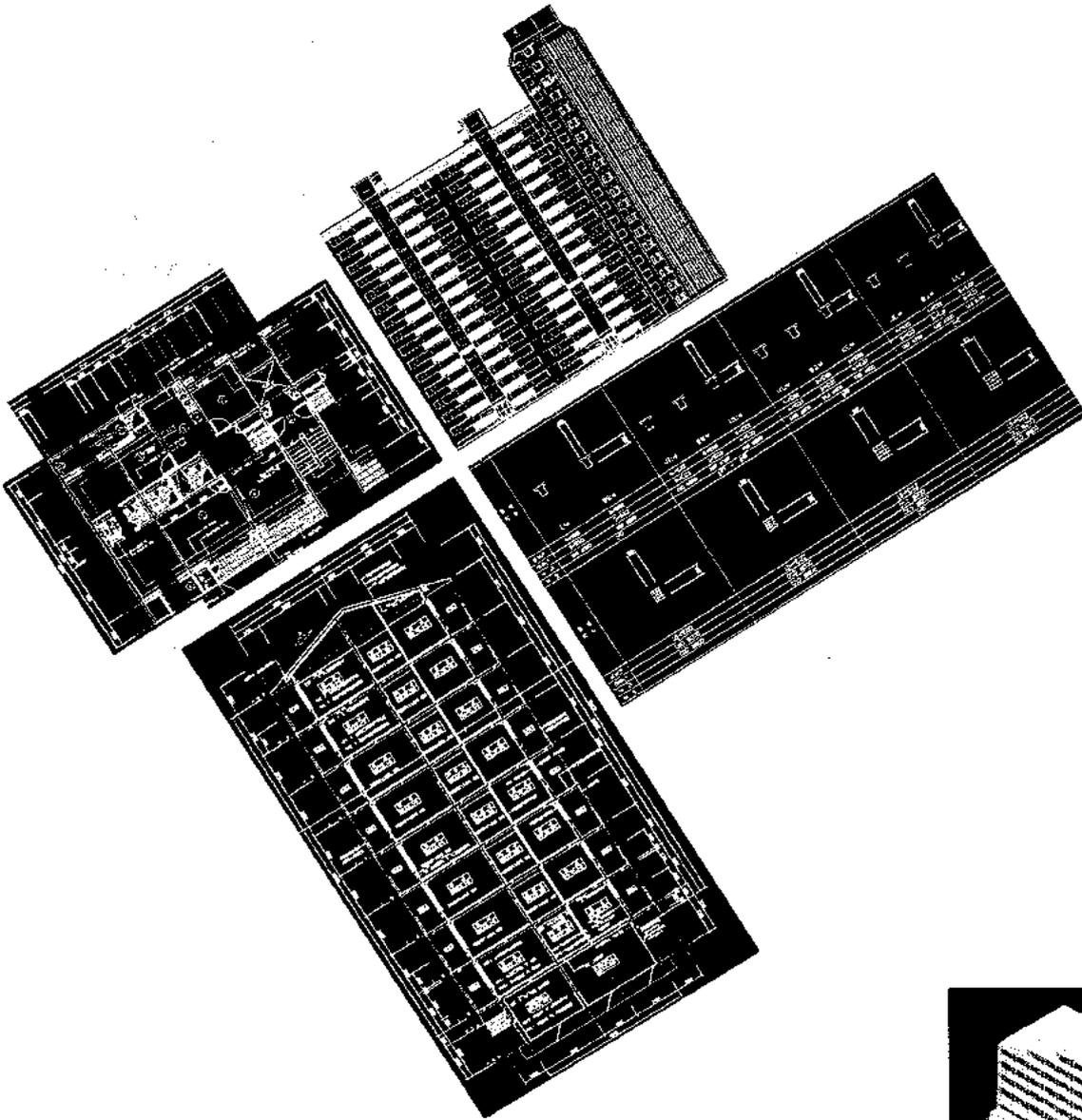
ARRIS는 전용설비와 컴퓨팅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ARRIS는 100% Software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장 뛰어난 구축비용 (비즈니스)입니다.

- 장비의 양을 줄여줍니다?
 - 인력 투입을 저감해줍니다?
 - 전체적인 A.S를 완화해줍니다?
 - 더 높은 수준의 ARRIS 지원을 원하십니까?
 - 실제로 저가인 줄위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만 고려하고 있습니까?
- ARRIS는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 SOFTWARE ARRIS - 전용, 높은 성능의 포함
 - CLASSIC, 원격 관리
 - PROTECTIVE SERVICES PLAN

- 또, ARRIS는 다양한 서비스 및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el: 1-800-458-7766
- 클라이언트 서비스 센터 (CLAS) (CLASSIC, CLASSIC AIRTEL, CLASSIC)
 - CLASSIC, CLASSIC AIRTEL
 - CLASSIC CLASSIC AIRTEL
- 클라이언트 서비스 센터 (CLASSIC) (CLASSIC, CLASSIC AIRTEL)
 - CLASSIC, CLASSIC AIRTEL
 - CLASSIC CLASSIC AIRTEL
- 클라이언트 서비스 센터 (CLASSIC) (CLASSIC, CLASSIC AIRTEL)
 - CLASSIC, CLASSIC AIRTEL
 - CLASSIC CLASSIC AIRTEL
- 클라이언트 서비스 센터 (CLASSIC) (CLASSIC, CLASSIC AIRTEL)
 - CLASSIC, CLASSIC AIRTEL
 - CLASSIC CLASSIC AIRTEL

ARRIS

ARRIS는 미국 Sigma Design 사에서 개발한 "디자인 전용" CAD (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으로서, 그 적용분야는 건축, 인테리어, 가구, 산업미술 등이며, Drafting 뿐만 아니라 Design 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CAD 시스템으로 특히 완벽한 3-D (입체적 표현) 및 무한한 COLOR와 빛의 Simulation이 가능한, 디자이너를 위한 가장 강력한 최신 CAD 시스템입니다.



- ARRIS 전문 엔지니어가 필요하실때 유능한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가 새로개발한 한글단 선체, 한글북 선체, 디테일을 드립니다.
- 1992년 1월 1일부터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SIGMA DESIGN

(株) 시그마디자인코리아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1-15 호

방배역 B/D (동서중권) 5층

TEL : (02) 523-8871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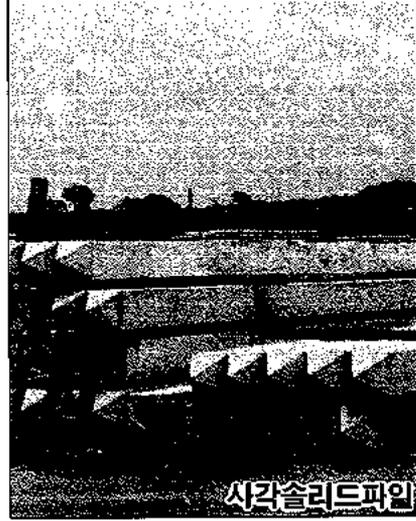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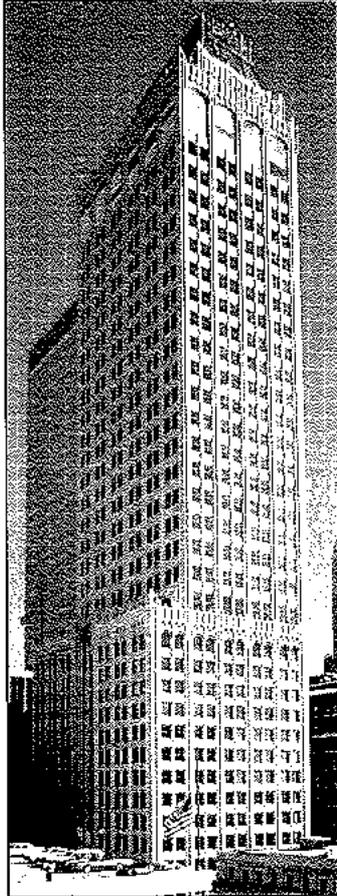
FAX : (02) 523-8874

G.R.C / P.C / 사각솔리드P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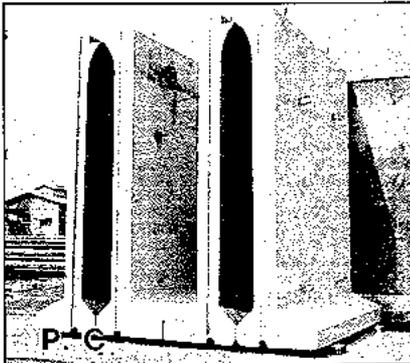
한국하이콘 (주)는
 조립식 건축자재(GRC, PC)를 생산하여 건설현장의 인력난 타개,
 공기단축, 도시건축의 공간해결, 정부의 조립식 주택보급
 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G.R.C.



사각솔리드파일



P.C



조립식아파트

중요생산제품

- GRC판넬
- TPC, GPC
- 조립주택 및 빌딩용판넬
- 4각 솔리드파일

한국하이콘(주)는 유럽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지력과 강도가 높은 4각 솔리드 PILE을
 국내 처음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하이콘(주)는 PCI회원으로써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G.R.C 제품의 특징

- ▲ **유용성**: 파괴강도, 충격강도가 타제품의 추종을 불허하며, 표면재가 불연성 G.R.C로 내화성, 흡음성 및 방수, 방습이 완벽하여 균열이 발생치 않는 영구벽체입니다.
- ▲ **의장성**: 초경량이지만 콘크리트의 중후한 질감과 세련되고 그래픽한 미관 및 쾌적한 색채,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의장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 ▲ **시공성**: 조인트공법+조립식 Dry-Wall로 시공이 간편하여 공기의 단축, 공사비의 절감은 물론 깨끗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MEMBER

pci

PRESTRESSED
 CONCRETE
 INSTITUTE

한국하이콘(株)
 HI-CON KOREA, LTD

☎ 0458-0924

本社·工場: 忠南 禮山郡 鳳山面 花田里 山25-1
 TEL. (0458)37-0508 (代)
 FAX. (0458)37-0507

☎ 02-554-6881

서울事務所: 서울 江南區 驛三洞 647 韓州빌딩 303号
 TEL. (02)554-6881 (代)
 FAX. (02)554-9881

'92한국건축전 작품공모

■ 개최시기 및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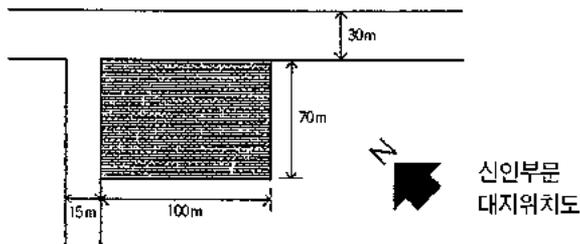
- 1992년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 개최
- 1992년 4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주요도시 순회 전시 예정

■ 출품자격

- ◆ 건축사부문 : 1992년 2월 현재 개업 건축사
- ◇ 신인부문 : 일선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건축전공 대학원 재학생
- ◇ 학생부문 :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전공 재학생(전문대학 졸업후 2년이내인 자도 응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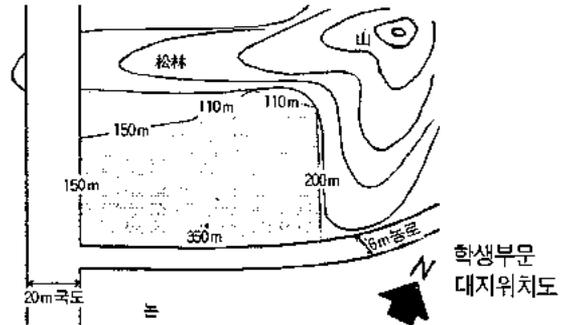
■ 출품내용

- ◆ 건축사부문
 - '89년~'92년 2월 중 준공된 작품으로서 준공검사를 필한 작품
- ◇ 신인부문
 - 1) 주제 : 지역문화회관(Community Center)
 - 2) 대지조건 : 주거지역 7,000㎡
 - 3) 개요 : 인구 20만 단위의 지역문화공간 및 교육복지시설을 주 기능으로 하는 Community Center로서 지방자치제 활성화에 대비한 지역주민들 생활의 중심지로 계획함(구민회관 or 주민회관 성격)
 - ① 연면적 7,000㎡내외
 - ② 4층 이내
 - ③ 700석 규모의 강당 및 기타시설
 - ④ 주차장은 옥외로 계획할 것
 - 4) 주요기능 : 강당, 회의실, 전시실, 강습실, 체육실, 독서실, 식당 등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되 作家의 의지에 따라 특성에 맞추어 Program을 적의 조정할 것
 - 5) 특기사항 : 현행 건축관계 법규에 맞추어 계획할 것



◇ 학생부문

- 1) 주제 : 청소년 수련회관(Youth Center)
- 2) 대지조건 : 국립공원내 청소년 위락단지 약 60,000㎡
- 3) 개요 : 국립공원내 청소년 위락단지시설로서 MT 또는 복합수련용
 - ① 연면적 5,000㎡ 내외
 - ② 4층이내
 - ③ 500명 수용 규모의 숙박시설 및 부대 수련시설
- 4) 주요기능 : 강당(500석 수용능력의 다목적 홀), 숙소(4~16인용 침실), 식당 공동 세면장 및 목욕탕, 교실(분임토의실), 회의실 등을 기본으로 하되 Program을 적의 조정할 것



■ 응모신청 및 작품접수 마감

- 건축사부문 : 1992년 3월 20일(금)
- 본 협회 출판사업부
- 신인·학생부문 : 1992년 3월 30일(월)
- 17:00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
- ※ 응모신청서 신분증 필히 지참, 마감시간 엄수

■ 탈락작품반환 : 1992. 4. 2(목) 10:00~17:00

■ 작품규격 및 제작요령

- ◆ 건축사부문 : 90cm×90cm 이내의 규격 패널 2~4매
- ◇ 신인·학생부문 : 120cm×120cm 규격 패널 1매 및 80cm×80cm 이내의 모형 1점
(작품접수시 200자 원고지 3매 분량의 간략한 작품설명서 첨부)

■ 출품규정

- 동일작품의 작가 명의로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음.(신인·학생부문)
- 패널 제작시 유리, 폴라스틱, 비닐 등 반사재료의 사용은 금지할 것.
- 규격을 위반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신인·학생부문)

■ 시상

◆ 건축사부문

* '92한국건축대상(▷) : 상장 및 트로피

◇ 신인부문

* 최우수상(1) : 상금 300만원 및 별도 해외건축연수 경비 200만원 보조, 상장

* 우수상(1) :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장려상(3) : 상금 50만원 및 상장

◇ 학생부문

* 최우수상(1) : 상금 300만원 및 상장(ARCASIA 학생잡머리 파견특권 부여)

* 우수상(2) : 상금 150만원 및 상장

* 장려상(10) : 상금 50만 및 상장

* 시도건축사회 회장상(다수) : 상금 30만원 및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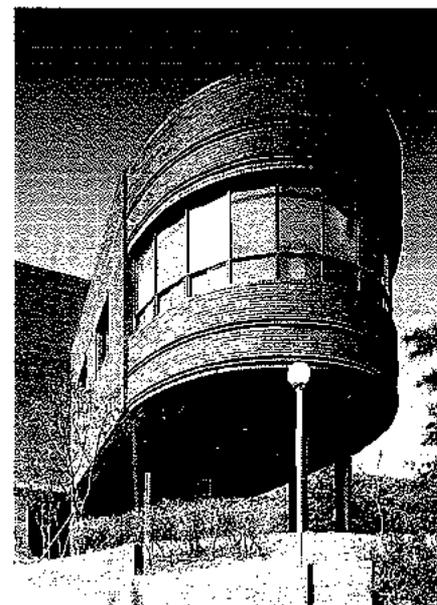
■ 문의

大韓建築士協會 出版事業部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 581-5711 ~4

차례 / 1992년 1월호 통권 제273호

편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吳雲東	20
회원작품	금정구청사 / 李龍欽	22
	남부클럽하우스 / 姜純一	24
	덕산연수원 / 李鍾允	26
	서울대 기초진력공학 및 자동화시스템 공동연구소 / 姜哲求	30
	마포로 오피스 빌딩 / 嚴 雄	32
	옥시드 / 金仁喆	34
	순천오동나무집 / 韓瑱洙	37
	연남동 주택 / 金瑛燮	40
	논현동 주택 / 宋光燮	44
효성빌라 고덕지구 / 禹南龍	46	
소평서	대덕과학문화센터 / 方喆麟	50
올해의 생각/희망	新年斷想 / 金錫澈	52
초상화	自書像 / 黃寅秀	54
특집	구조계산에있어 철근의 피복두께 / 李昌男	56
	건축공사의 적법수행을 위한 감독·감리제도의 개선방향 / 元鍾一	58
특약	노년층의 주거연속체와 공동체형성 / 朴泰煥	60
	도쿄도신청사와 도쿄의 최신 프로젝트 / 金文德	68
특별기획	부산시청사 현상공모 수상작 발표	78
법규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	88
	주차장법중 개정법률	89
	1991년 「建築士」誌 총목차	92
	1991년 11월분 도서신고 현황	94
보충자료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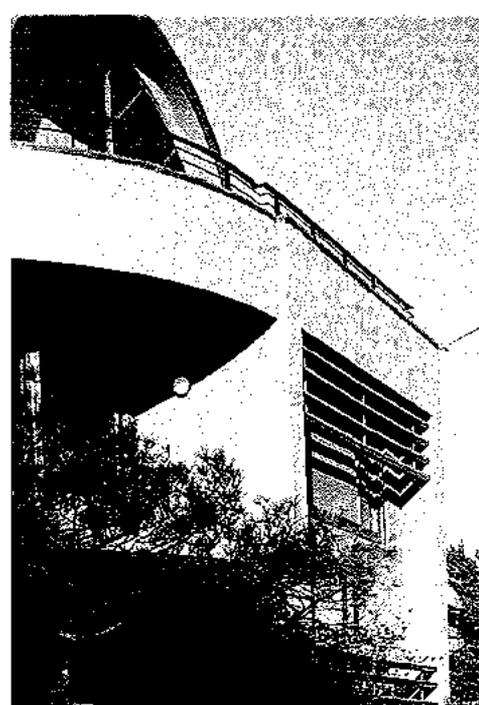
표지: 「연남동 주택」
설계: 김영섭 작

發行人: 吳雲東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義求
委員: 徐千植, 李瓚榮, 金文圭, 崔英集, 宋洙九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1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李鳳秀/正文社

Publisher: Oh, Woon-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Eun-Koo
Member: Suh, Chun-Sik/Lee, Chan-Young/
 Kim, Moon-Kyu/Choi, Young-Jeep/Song, Soo-Koo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 (Cheong Moon Printing Co.)

CONTENTS VOL. 273. JANUARY 1992

NEW YEAR ADDRESS	<i>KIRA President / Oh, Woon-Dong</i>	20
WORKS	<i>Keumjung Ward Office Building / Lee, Yong-Heum</i>	22
	<i>Namboo Country Club House / Kang, Soon-Il</i>	24
	<i>Duksan Training Institute / Lee, Jong-Yun</i>	26
	<i>Basic Electric Power Laboratory & Automation System Laboratory, Seoul National Univ. / Kang, Cheol-Koo</i>	30
	<i>Mapo-Ro Office Building / Aum, Woong</i>	32
	<i>OXID Building / Kim, In-Chul</i>	34
	<i>Residence at Sooncheon / Ham, Jin-Su</i>	37
	<i>Yeunam-Dong Residence / Kim, Young-Sub</i>	40
	<i>Nonhyun-Dong Residence / Song, Kwang-Sub</i>	44
	<i>Hyo-Sung Villa / Woo, Nam-Yong</i>	46
SKETCH	<i>Daeduck Science Cultural Center / Bang, Cheol-Lin</i>	50
ESSAY	<i>Fragmentary Thoughts of the New Year / Kim, Suk-Cheol</i>	52
POEM	<i>Self-Portrait / Hwang, In-Soo</i>	54
FEATURE	<i>The Thickness of Protective Cover for Reinforcement in Structural Calculation / Lee, Chang-Nam</i>	56
	<i>Bettenment Schem of the Supervision System for Lawfulness Construction / Won, Jong-Il</i>	58
REPORT	<i>Housing Continuum for the Elderly and Formation of Retirement Community / Park, Tae-Whan</i>	60
	<i>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 New Project in Tokyo / Kim, Moon-Duck</i>	68
VOICE	<i>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for Busan City Hall</i>	78
REVIEWS		88
NEWS NEWS		9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서울특별시초중기초등1603-65, 581-5715~8 · 서대문분회/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회/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 강동분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6 · 상동분회/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회/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 용도분회/용도구수성동46-18, 735-0906 · 마포분회/마포구성산동275-1, 336-5057 · 송파분회/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중구분회/중무로2가49-1, 279-1415 · 용산분회/용산구원효로1가19-22, 712-7647 · 서초분회/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 은평분회/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 · 동작분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회/강남구논현동242-30, 511-8515 · 노원분회/노원구상계1동1049-79, 982-8076 · 양천분회/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중랑분회/중랑구연희동166-46, 923-6123 · 성북분회/성북구삼선5가410, 923-4401 · 구로분회/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 부산직할시건축사회/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가1(부산대파트내)(051)246-6284~7 ■ 대구직할시건축사회/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2가1-8, (053)753-898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한국종합빌딩20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광주직할시북구죽림동694-10, (062)521-0025~6(FAX)529-002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대전시중구대흥동487-1, (042)255-9360~4 ■ 경기도건축사회/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124-5, (0331)47-6129~30 · 과천분회/과천시인원읍종리192-1, (0336)635-6545 · 광명분회/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 안산분회/안산시고잔동536-1, (0345)180-9130 ■ 강원도건축사회/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54-2442 · 원주분회/원주시중앙동60-54, (0371)42-4287 · 강릉분회/강릉시성내동6-14(0391)2-2262 · 속초분회/속초시동명동466-63, (0392)33-5081 · 삼척분회/삼척시남양동55-43, (0397)2-3106 · 영월분회/영월군영월읍영동1리980-12, (0372)43-2695 ■ 충청북도건축사회/충청북도청주시복문로37가87-3, (0431)56-2752, 53-7342 · 충주분회/충주시충천동673-1, (0441)847-3032 · 제천분회/제천시외림동8-8, (0443)43-6253 · 옥천분회/옥천군옥천읍삼당리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충청남도대진시중구대흥동487-1, (042)256-4088 · 천안분회/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 홍성분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32-2755 · 부여분회/부여군부여읍남동리703-1, (0463)12-2217 · 대천분회/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전라북도건축사회/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덕 빌딩 508), (0652)87-6007~8 · 이리분회/이리시남동1가77-22, (0653)52-3304 · 군산분회/군산시신창동35-4, (0664)445-4060 · 남원분회/남원시하정동106-2, (0671)31-1000 ■ 전라남도건축사회/전라남도광주광역시서구화정동783-23(후신회관)(062)364-7567, 33-9944 · 목포분회/목포시대안동1, (0631)43-3348 · 순천분회/순천시광천동51-11(0661)3-2457 · 여수분회/여수시광문동441번지, (0662)64-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대구직할시중구명동1가285번지, (053)425-4904 · 포항분회/포항시죽도동43-8, (0562)44-6029, 46-1664 · 경주분회/경주시동천동771-4(0561)3-3638 · 구미분회/구미시원평동964-264, (0546)52-6351, 52-7547 · 안동분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분회/김천시평화동280-1, (0547)2-2541 · 영주분회/영주시유천2동642-52, (0572)33-7504 · 경춘분회/경춘시중앙동280-3, (0581)2-2706, 52-2286 · 상주분회/상주시남성동36-23, (0582)2-4306 32-3232 ■ 경상남도건축사회/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가3-47, (0651)46-4530~1 · 울산분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74-9836 · 진주분회/진주시본성동7-20, (0591)41-6403 · 충무분회/충무시서호동163-18, (0657)44-3232 · 김해분회/김해시부원동611-1, (0525)35-5892 · 밀양분회/밀양시내일동392-1, (0527)355-4848 · 거창분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6090 · 양산분회/양산시양산읍남부동467-19, (0523)84-3060 · 거제분회/거제군 신현읍고현리139-2, (0538)635-3432 · 삼천포분회/삼천포시동명동91-6, (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52-3248 · 서귀포분회/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처키 위한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새해를 맞는 소망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壬申年 아침입니다.

새아침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통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신미년은 세계사의 大變革과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움트는 등 국내외적으로 유례없는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수출부진, 물가불안, 건축허가전면동결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문제가 대두되어 매우 어려웠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波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소련방의 소멸에 따른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이 가속화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국가적 장래를 결정할 4대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또한 국내외적 경제환경도 극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겸허한 省察과 함께 흐트러진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켜 볼 때 이미 네 차례에 걸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내려진 상황하에 취임하면서 본인은 우선 회원업무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가제한조치의 撤回을 위해 관계요로를 통해 활발한 접촉을 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범위가 확대·강화되어감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번 사태가 종합적인 국가경제의 危機管理措置인지라 사태의 완화나 해제의 관철은 불가항력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사무소 운영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협회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울러 우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 어려운 때에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협회운영을 本軌道에 올려놓기 위하여 많은 고심속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회원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만족할만한 성과가 되었는지 걱정과 함께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새해에도 협회는 허가제한조치의 신속적인 운영을 위해 활발한 대정부 접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현안에 적극 대처하여 단독건축사사무소 업무범위의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추진, 건축관계법령의 효율적 개정추진, 회원복지증진을 위한 연금제도의 효율적 개선과 공제조합 설립추진, UR에 대비한 대처방안 연구, 회원업무 전산화방안 강구 등 회원의 품위보전과 권익향상을 위한 크고 작은 일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일부는 目前에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未盡한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可視化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잔여임기동안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최근 들어 일부 기관에서 건축설계를 문화적 차원에서의 창작행위로 보지않고 단순한 상업적 설계행위로 취급하여 행정편의적으로 실시하는 입찰에 일부 회원들의 무리한 業務受注로 인하여 회원상호간에 불신을 초래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건축사의 문화적 조형창작행위가 가격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저울질 된다는 것은 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단호히 거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설계, 감리비용의 파다덤핑방지 등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건축관련 부조리 척결에 적극

동참하여 患部作新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함은 물론 올바른 관행의 정착으로 건전하고 성숙된 建築士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회원 여러분!

자금의 세계정치·경제는 그 변화와 발전의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제통합과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세계경제구조의 변혁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분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업계의 체질개선과 기술개발은 절대절명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도 업무개방대책위원회와 건축전산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며, 관련연구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원여러분께서도 사무소 운영의 科學化와 對外競爭力 확보를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회원 여러분들이 본 협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를 올해에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회원 여러분의 사업에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신년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992.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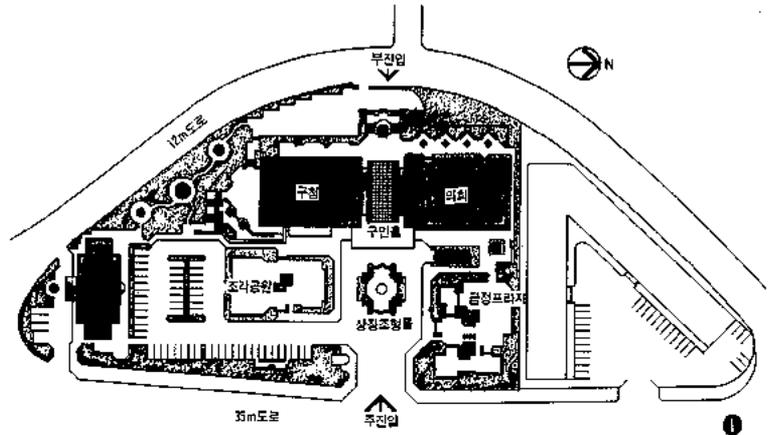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吳雲東

금정구청사

Keumjung Ward Office Building

WORKS

李龍欽 / 종합건축사사무소 일신
Designed Lee, Yong-Heum



대지위치/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78

대지면적/ 16,152m²

건축면적/ 3,889.80m²

청사-3,382.98m²

보건소-506.82m²

연면적/ 15,404.7m²

청사-14,042.5m²

보건소-1,362.2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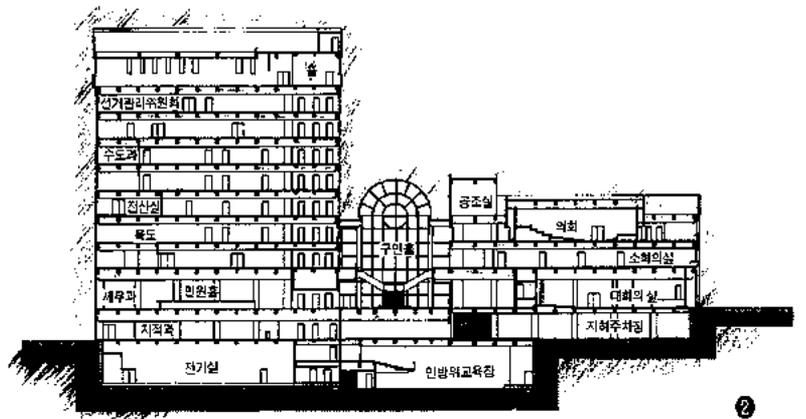
규모/ 청사-지하 1층, 지상 7층

의회-지하 1층, 지상 3층

보건소-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근조

외장/ 화강석버너구이+알루미늄 커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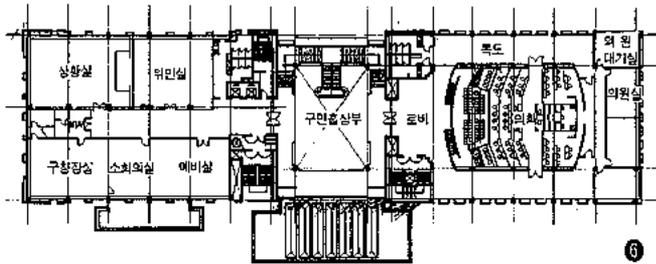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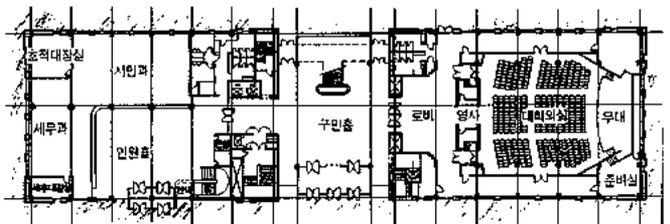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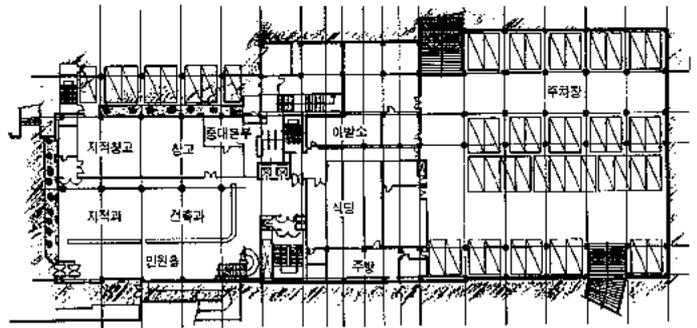


4



5

- 1 배치도
- 2 단면도
- 3 전경
- 4 1층 로비
- 5 대회의실 전경
- 6 2층 평면도
- 7 1층 평면도
- 8 민원실 전경
- 9 지하층 평면도



6

배경

지방자치제의 개편과 함께 그에 따른 행정을 담아야 할 그릇도 새로운 형태를 요구한다. 이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시기적절하게 주어진 프로젝트를 설계경기의 당선을 통해 맡게 되었다.

행정과 의회를 같이 수용하고 비교적 여유있게 주어진 대지를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된 휴게공간과 부대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부산의 관문에 위치하는 대지에 또 하나의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세워져야 한다는 소신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새로운 개념의 청사

의회가 수용되어야 하는 청사의 개념은 아직 국내에 예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고심을 해야 했다. 청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 의회 청

사는 자칫 부속건물-별동일대-이나, 일부 분-건물내 포함될대-으로 느껴질 수 있어 지자체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회동의 위상이 건축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을 중앙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한 좌우 대칭의 평면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상징적 정면의 주출입과 함께 배면의 동선을 아트리움을 통해 수용함으로써 동선과 기능의 결합을 도모하고 극적인 공간연출을 통해 청사의 새로운 개념을 극대화 하였다.

동선의 합리적 해결

의회의 기능이 부가됨으로써 동선의 새로운 처리가 요구되며 두개의 건물을 합리적으로 묶어줄 동선의 터미널로서 중앙아트리움의 설치는 전후면의 진입동선을 수용하며 내부의 각 층으로 수직동선을 연결한다. 또한 아트리움을 통해 강한 축(軸)을 의식하고 이는 상징성을 배가 시키게 된다. 외부진입동

선은 선큰가든을 통해 지하 제 1민원의 편의 및 관리동선의 합리적해결을 꾀하였다.

구민의 장으로서의 공간

선큰가든, 아트리움, 외부공간의 공원화, 의회청사의 상징적 처리등을 통한 구민의 편의와 행정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기능공간의 합리적 배려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아트리움을 통해 조망되는 금정산의 수려한 경관은 새로운 공간의 느낌을 구민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며, 아트리움의 활용은 구민의 장으로써 열려있을 것이며 전시, 휴식만남의 장소로서 연중무휴로 개방되어 제공되어지길 바란다.

임시청사 대지에 세워질 체육회관동의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서면 명실공히 구민을 위한 장으로써 새 시대를 담는 터가 될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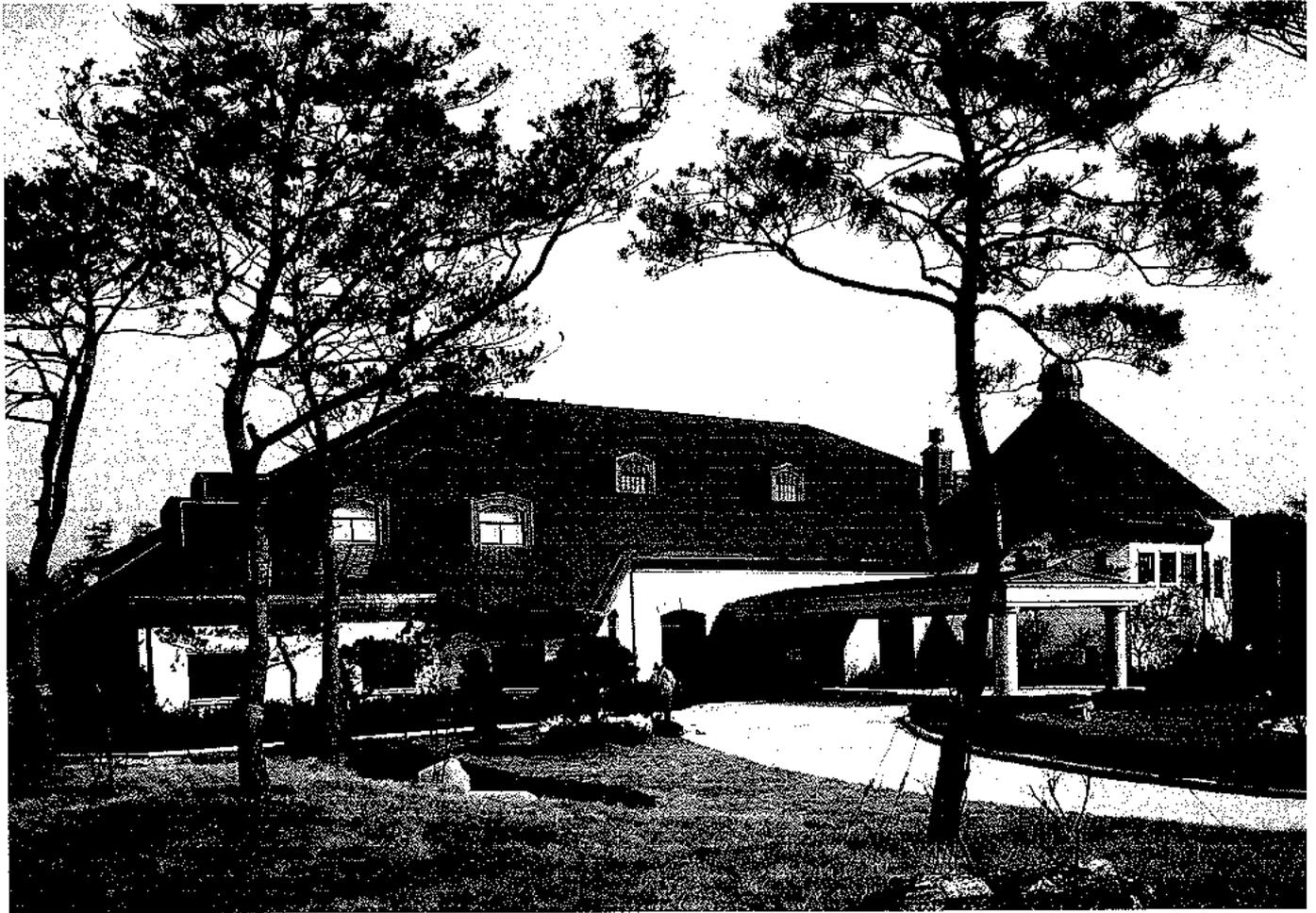
남부 클럽하우스

Namboo Country Club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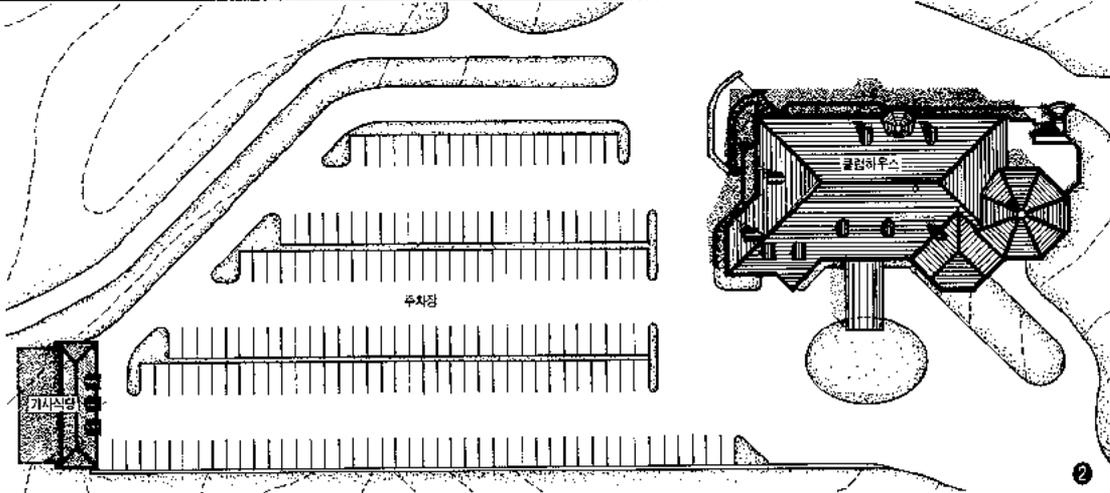
姜純一 / 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ang, Soon-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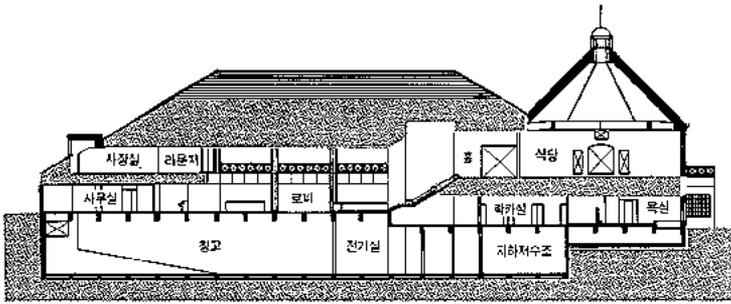
■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대지면적/ 964,655.0m²
 건축면적/ 2,559.2m²
 연면적/ 4,730.0m²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 천연스레이트



1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단면도
- ④ 외부상세
- ⑤ 식당동축 외관
- ⑥ 식당입구축 상세
- ⑦ 1층 평면도
- ⑧ 2층 평면도



3



4



5



6

클럽하우스는 먼저 기능에 충실해야 하므로 여러번에 걸친 설계작업에서의 방법론으로, 기존시설과의 비교검토에서,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 동선계획

클럽하우스는 크게 골퍼동선, 캐디동선, 관리동선으로 분류되는데, 본 설계에서는 로비에서 향과 전망이 좋은 1번홀이 위치한 방향으로 골퍼동선을 유도하였고, 관리 및 캐디동선은 북쪽에 위치한 방향으로 골퍼동선을 유도하였고, 관리 및 캐디동선은 북쪽에 위치하여 관리의 원활함을 꾀하였다.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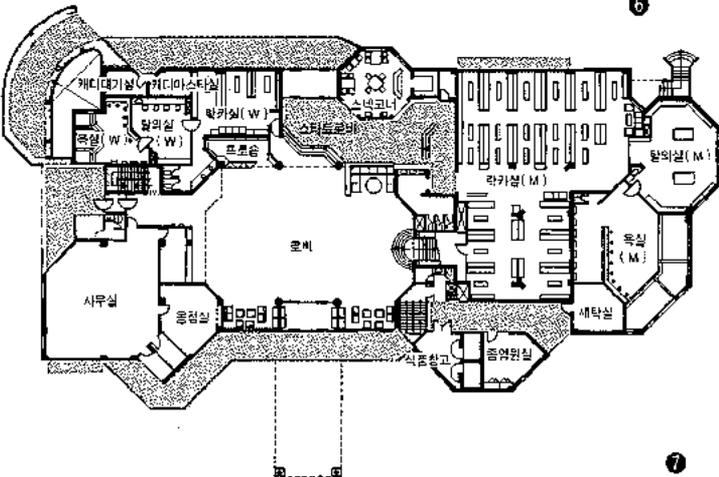
5.4 모듈로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모듈을 적용하였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부분을 줄이도록 계획하였으며, 외부경관과 일조에도 적극적인 배려를 하였다.

• 외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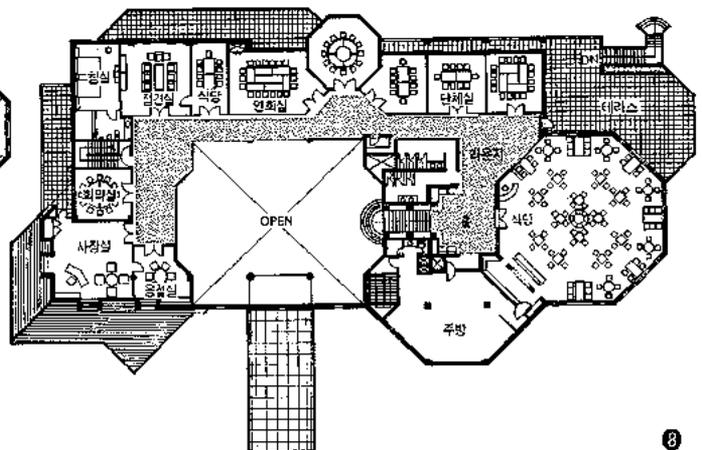
건물의 형태는 클래식한 형태로 자연과 조화되도록 하였으며, 지붕형태는 산세에 어울리게 외벽은 화강석으로 처리하여 감각적인 조형미를 고취시켰다.

• 내부계획

체류시간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창을 통해 조망을 즐길 수 있도록 향이 좋은 곳에 큰 창을 두었고 창에는 한국의 문살을 응용 격자형 살을넣어 친근감을 표현하였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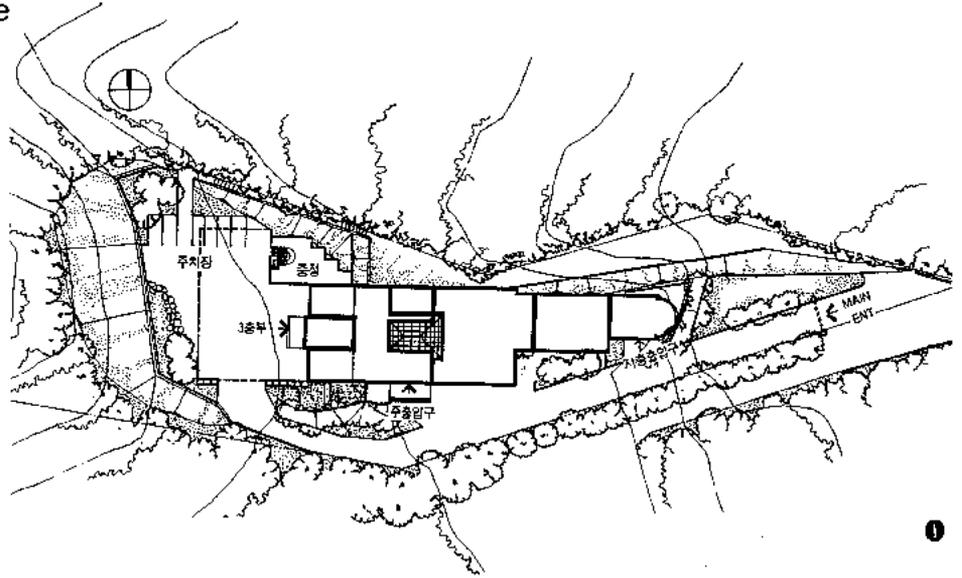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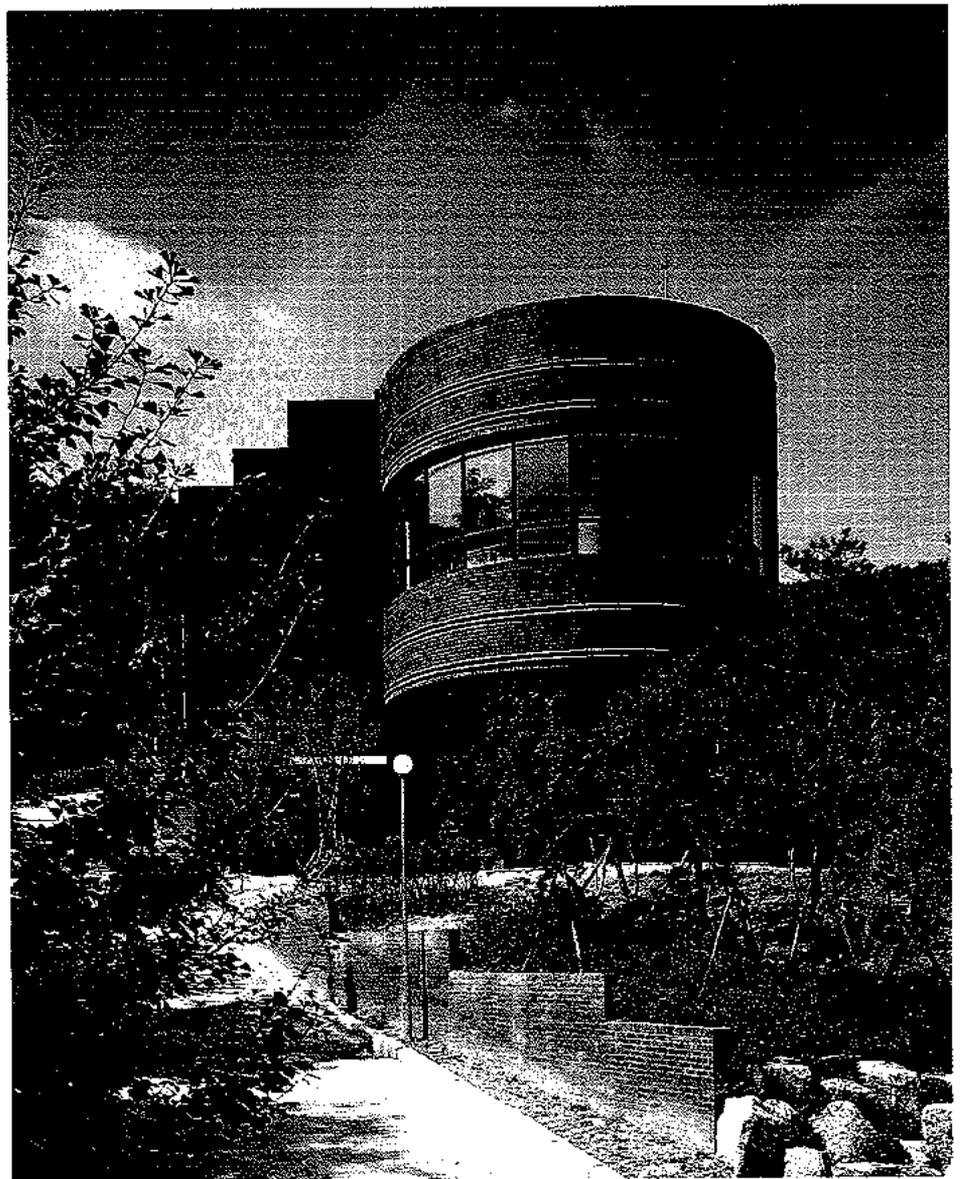
덕산 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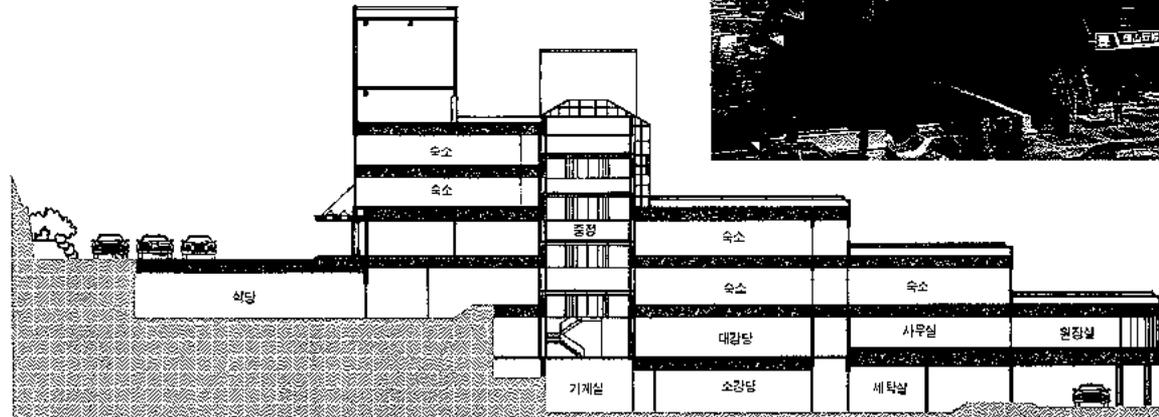
Duksan Training Institute

李鍾允 / 신구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Jong-Yun



-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대지면적/ 4,588m²
- 건축면적/ 916,08m²
- 연면적/ 3,961.10m²
- 건폐율/ 19.97%
- 용적률/ 58.04%
- 외장/ 적벽돌치장 쌓기
-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시설규모/ 숙소, 식당, 소강당, 강의실





대지는 산을 깎아 계단형으로 토목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의 벌진 흙빛으로 처음 나를 대했다. 대지를 본 순간 거의 계획의 방향이 섰고 또 그대로 시행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지형의 Sky-Line에 맞추는 기본적인 원론적인 디자인이 그리 쉽게 다가와주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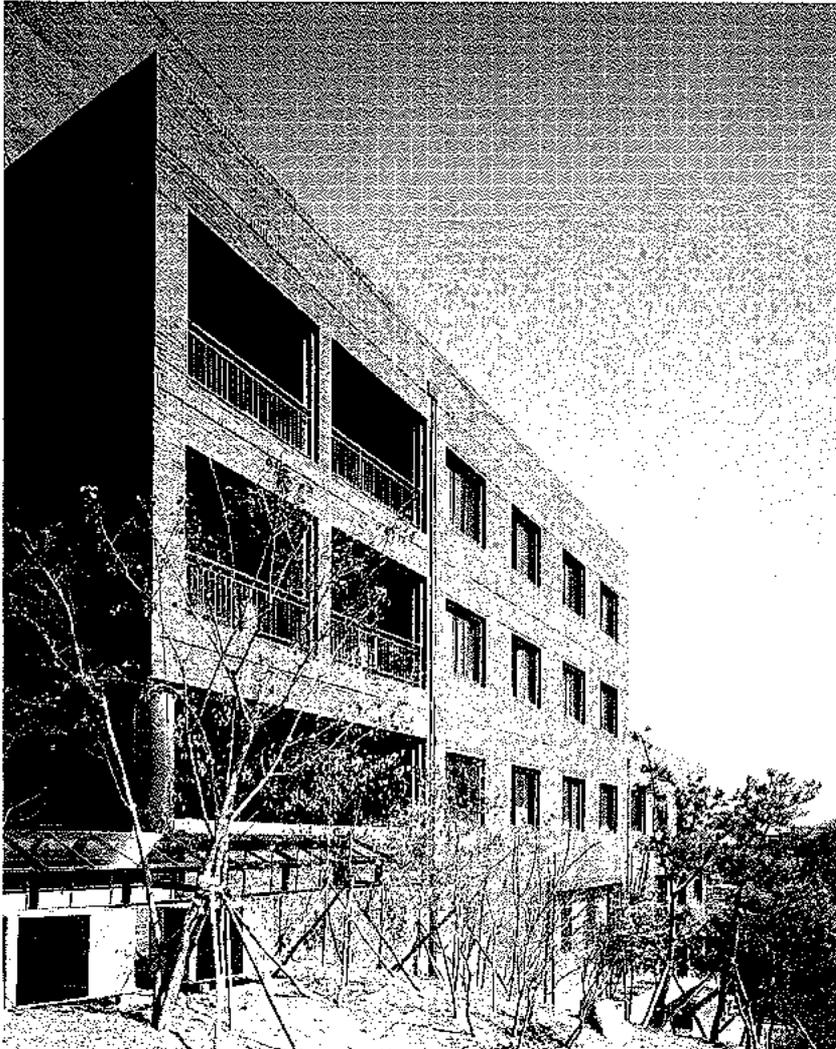
덩어리들의 분절과 연속들이 땅위에 한장한 장 벽들을 놓듯 계획되어졌고, 인위적으로 깎여져 나간 대지를 다시 정돈하여 건물이 앉을 자리를 정비하였다.

연수원의 기능적인 면을 충족시키면서 어떤 형태로든 훼손된 자연 경관을 최대한 보상해 주어야 했고 뒷산 멀리에서부터 본 대지를 통해 안양 시가지로내뻗은 지형적 축선을 유지시켜주자는 의도에서 건물의 형태가 결정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평면계획은 되도록 간결하고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고 주출입과 부출입구, 서비스 출입구를 따로 분리, 각 상이한 동선의 교차를 방지하고 건축물이 남북으로 길므로해서 생기는 채광의 불리함을 중정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하였다.

토목공사가 이미 건축공사와는 각각 다른 시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시행이 되어져버린 상태가 되어 원래의 산지형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좀 안타까웠으나 그런대로 본 건물이 주위 산과 어울려 어색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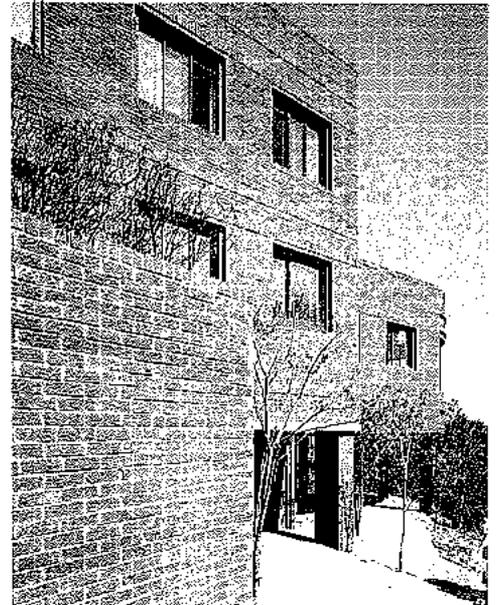
아침 일찍 일어나 뒷 산행으로 산림욕을 하고 깨끗한 약수를 마시면서, 소정기간 연수를 마친 연수원생들이 소속된 사회의 왕성한 일꾼으로 재충전되어 이곳을 떠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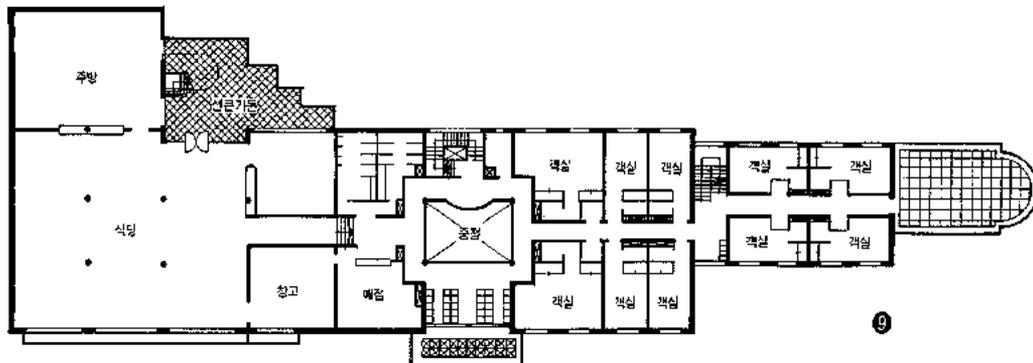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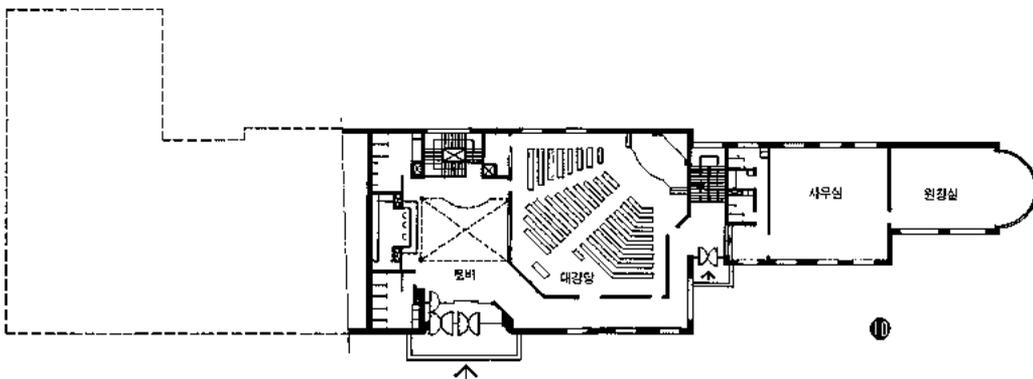
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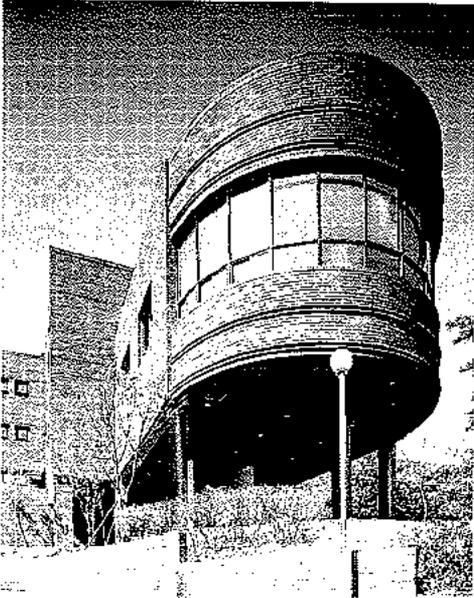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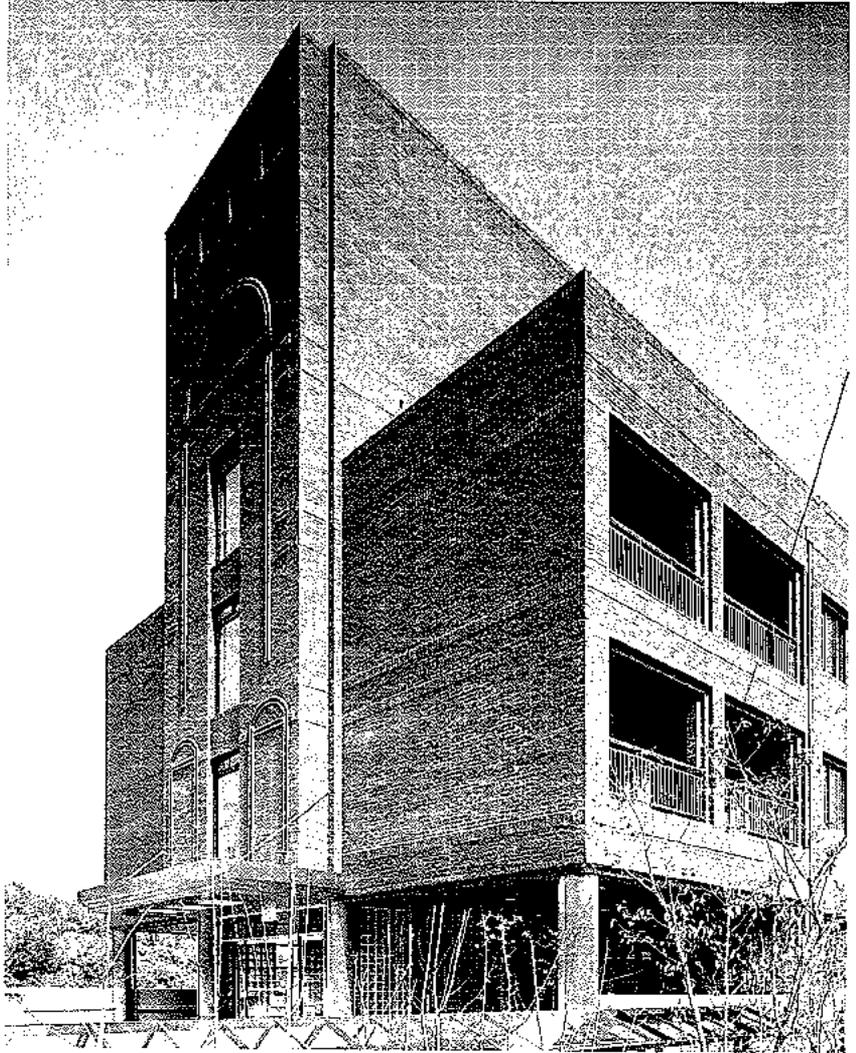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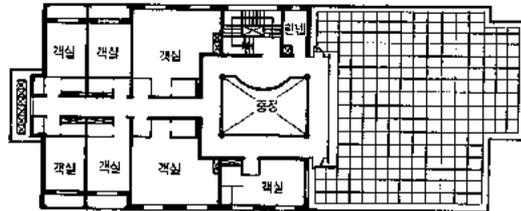
- ① 배치도
- ② 지층출입구측 상세
- ③ 전경
- ④ 주단면도
- ⑤ 측면외벽 상세
- ⑥ 올려다본 중정
- ⑦ 측면 상세
- ⑧ 외부 상세
- ⑨ 2층 평면도
- ⑩ 1층 평면도
- ⑪ 외벽 상세
- ⑫ 3층출입구측 상세
- ⑬ 4층 및 5층 평면도
- ⑭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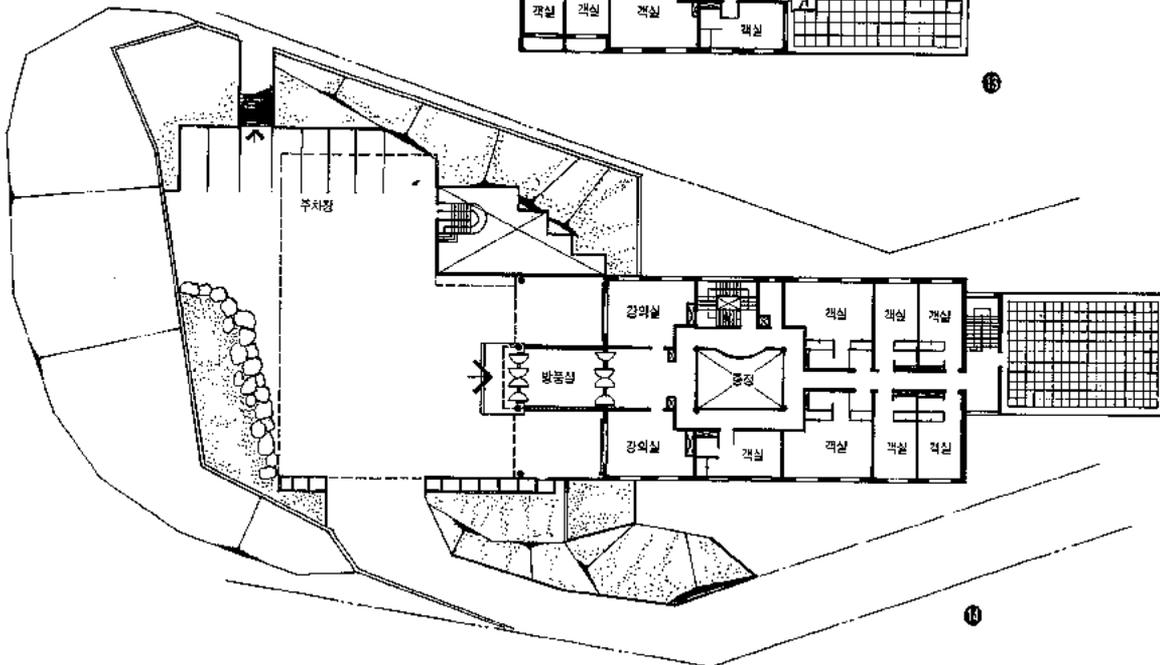
⑪



⑫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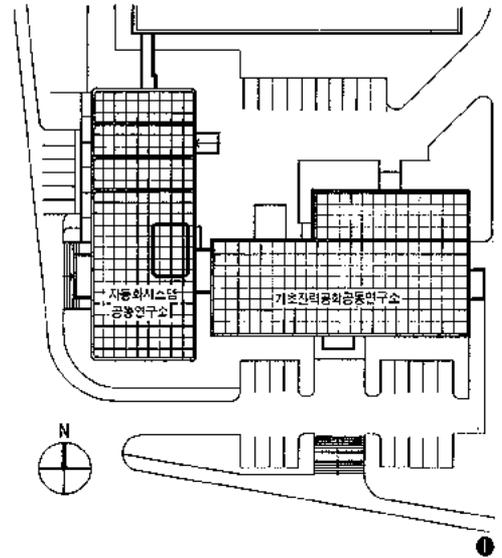


⑭

서울대 기초전력공학 및 자동화시스템 공동연구소

Basic Electric Power Laboratory & Automation System Laboratory, Seoul National Un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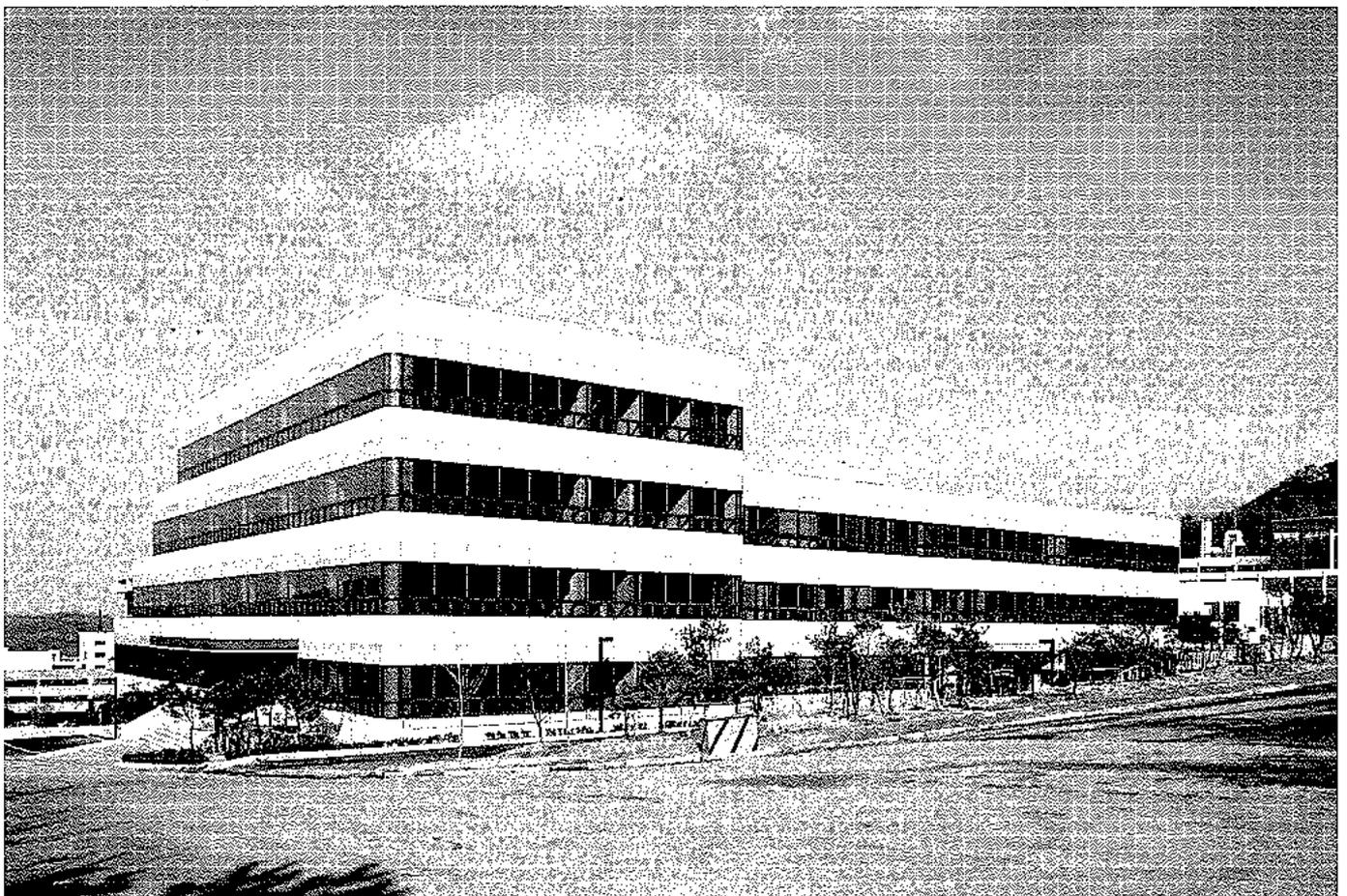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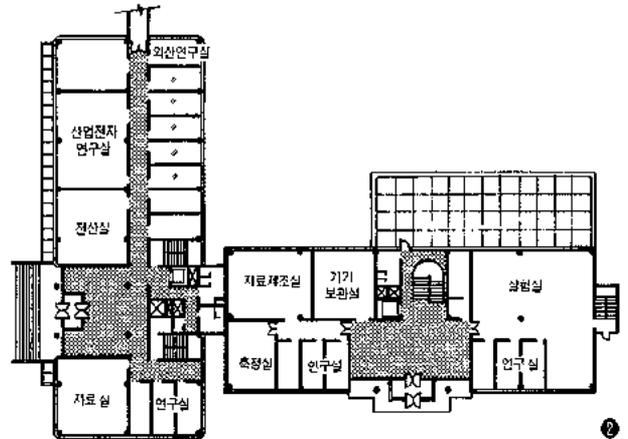
姜哲求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Designed by Kang, Cheol-Koo



WORKS

대지위치/서울대 관악구 신림동 산 56-1
건축면적/1,087.66㎡ & 1,058.61㎡
연면적/3,480.63㎡ & 4,924.39㎡
규모/지상 5층 & 지상 6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마감/복합알루미늄패널+착색복층유리

- ① 배치도
- ② 3층 평면도
- ③ 전체 전경
- ④ 자동화시스템 공동 연구소
- ⑤ 기초전력공학 공동 연구소
- ⑥ 5층 대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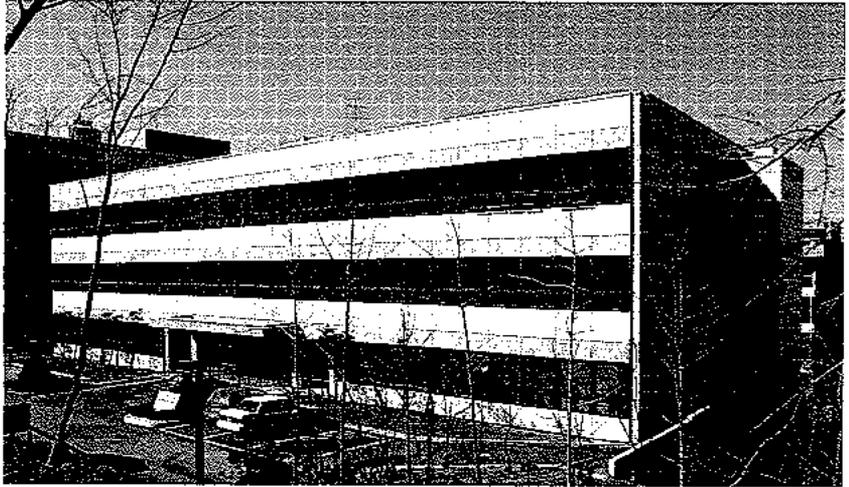


본 건물들은 産學協同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内に 세워진 공동연구소로서 공학계열건물들이 밀집된 구내순환도로 남서측 모퉁이에 건설되었다. 당초 2층의 연구소는 각각 독립적인 건물로 건축될 예정이었으나, 교내 건축부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서로 인접하여 배치되었으며 약 3개월여의 기간을 두고 각각의 설계에 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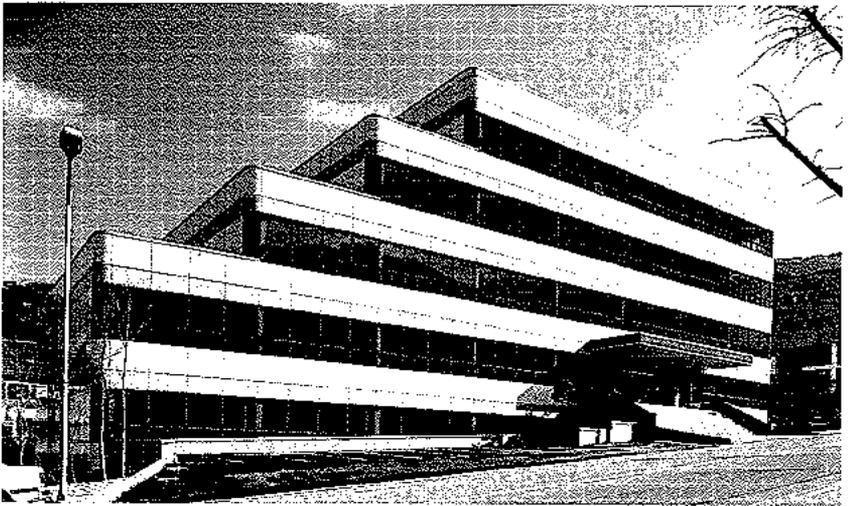
계획부지는 표고차가 11m에 이르는 경사지로 지형을 고려한 기능의 배분과 진입 Level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였으므로 최하층에서부터 실험·연구·강의 기능을 수용하여, 상주연구원과 실험장비 등은 1층에서 진입되고 외래 교수·수강자·방문객은 3층 Lobby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하므로써 기능배분을 통한 동선의 단축을 꾀하였고, 특히, 기초전력공동연구소는 상층부와 하층부를 엇갈리게 계획하였는데 이는 토공사량의 절감과 안정감의 부여, 그리고 1·2층의 채광에도 유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평면계획에 있어 Space Program은 각 연구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연구소기능상 필요한 각종 실험기자재의 설치특성에 적합한 구조 Span과 강의실 및 연구실의 Module구성을 고려하여 9m·6m Span을 채택하였으며, 주요구조부를 제외한 칸막이 벽은 Movable Partition으로 구획하여 연구 Program의 변화 및 향상에 따른 건축 Mechanism의 변화에 충실히 대비하였다.

건물의 입면은 연구소기능에 걸맞는 안전감과 현대적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 수평선이 강조된 단순한 형태에 Sleek Skin의 알미늄 패널로 처리하였고, 기능한 넓은 창면적을 확보하여 밝고 쾌적한 연구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



2



3

마포로 오피스 빌딩

Mapo-ro Office Building

巖 雄 /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Aum, Woong

대지위치/ 서울마포구 아현동 612-1

대지면적/ 1,826m²

건축면적/ 756.33m²

연면적/ 15,191.2m²

건폐율/ 41.4%

용적률/ 584.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POST-TENSION)

규모/ 지하 4층, 지상 15층

최고높이/ 65.4m

조경면적/ 475.6m

주차대수/ 84대

주요마감/ 외부-불소수지 코팅 알루미늄 커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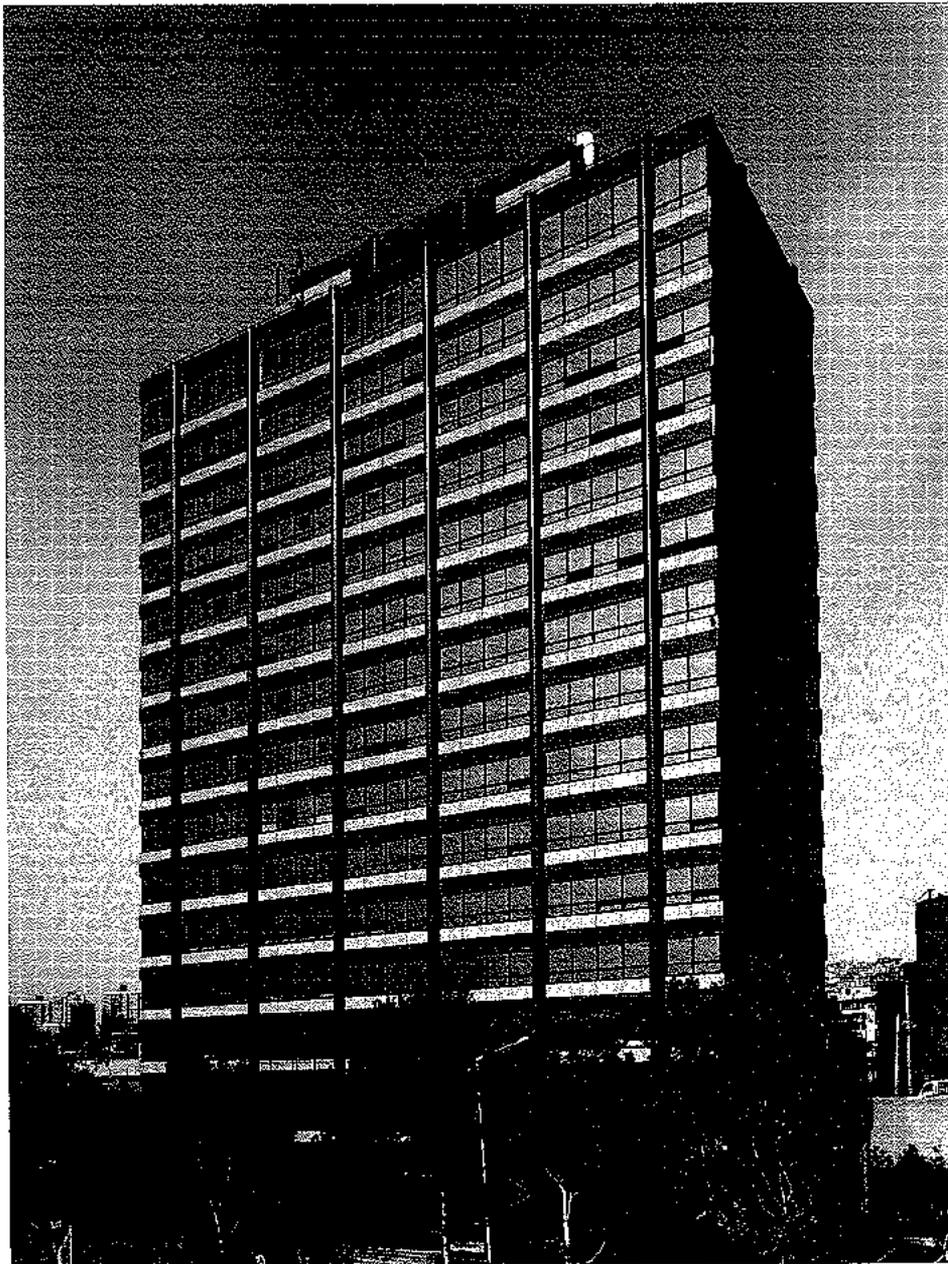
불소수지 코팅 알루미늄새시

착색 복층 반사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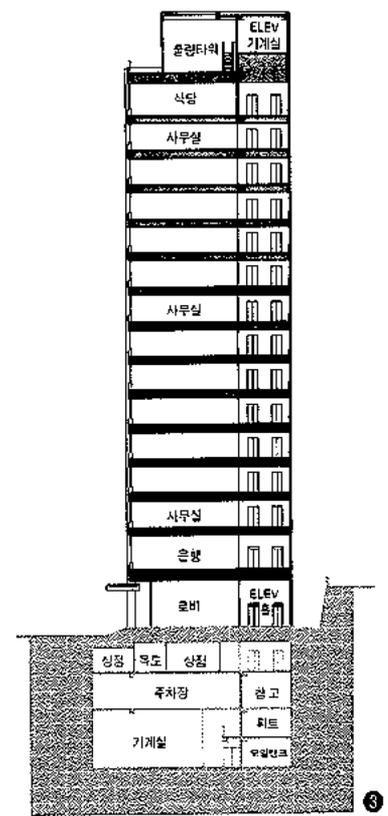
내부-바닥: 화강석

벽 : 트래버틴

천정: 알루미늄 천정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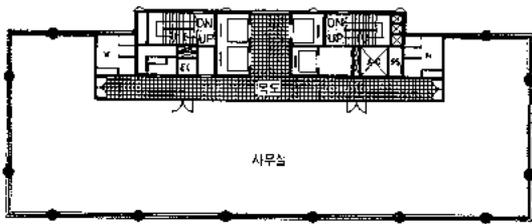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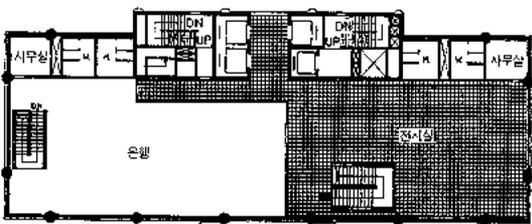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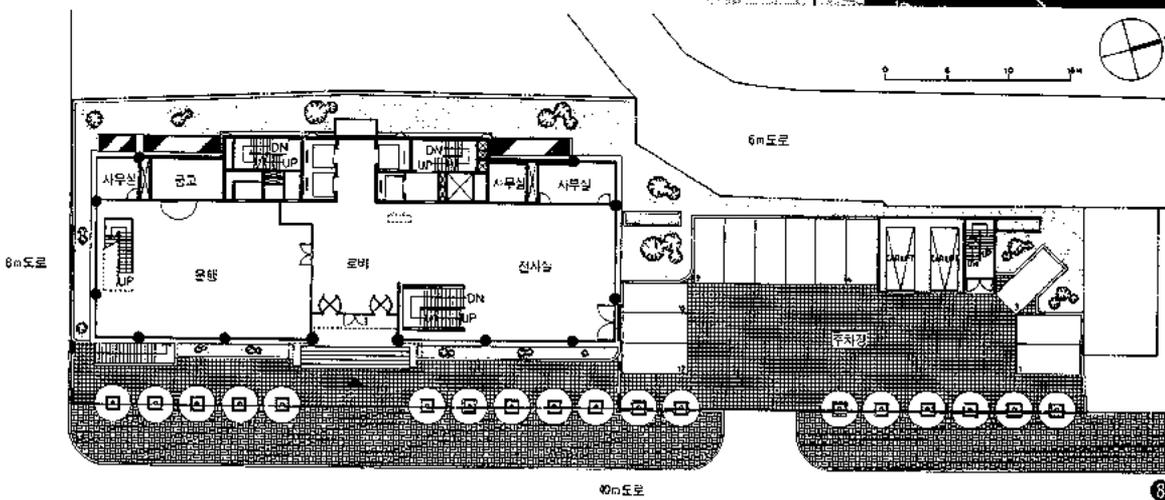
7



5



6



- 1 정면전경
- 2 1층 로비
- 3 단면도
- 4 배면전경
- 5 기준층 평면도
- 6 2층 평면도
- 7 측면상세
- 8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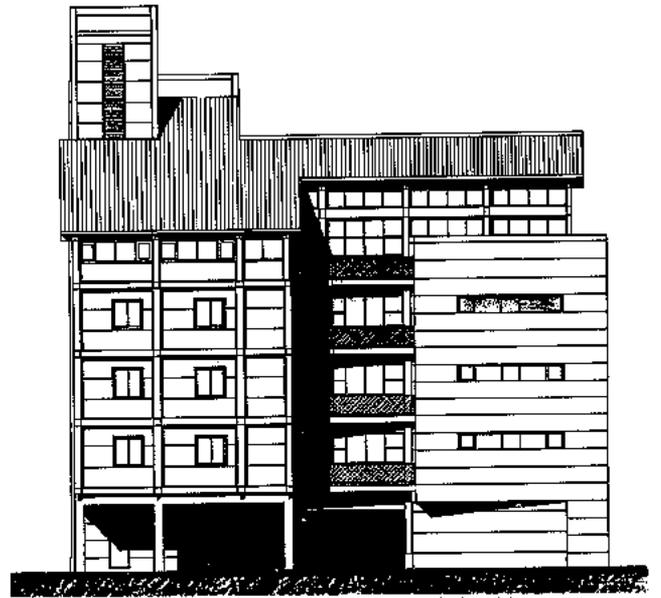
옥시드

OXID Building

WORKS

金仁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Designed by Kim, In-Ch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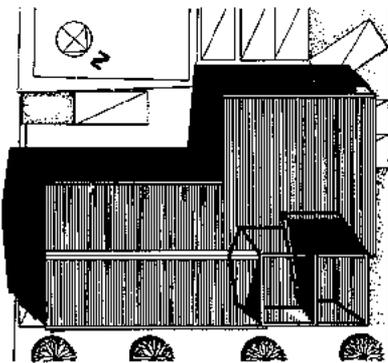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118-10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2종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600.6m²
건축면적 / 280.34m²
연면적 / 1,517.0m²
건폐율 / 47.69%
용적률 / 224.3%
용도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 / R.C조(기존)+경량철골조(증축)
외부 마감 / W패널 위 불소수지



1



3



2

청계고가도로가 떨어져내려 천호대로가 시작되는 어귀의 4거리에 떠난 건물을 하나 갖게 되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평범하기 그지없는 형태로 임대자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쓰여 지고 있던 건물이다. 10년이 채안된 건물이지만 폭 50m 대로변이 주거지역에서 빠져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휴면상태의 이웃들 때문에 버려진 채로 놓여져 있었다.

동승동의 무분별한 번잡함에 실증을 느끼게 되고 집안의 사업이 확장되게 되어 현건물을 고쳐 함께 들기로 작정했다. 처음의 욕심은 두 층을 증축하려는 것이었지만 구조적인 무리가 염려되어 마음을 낮추었다.

기존의 지하1층, 지상4층에 한 층을 더하여 지상5층의 볼륨을 만들게 된다. 콘크리트의 골격과 타일로 만들어져 있는 기와의 표정을, 골격을 콘크리트의 마감으로 고쳐잡기로 했다.

기존에 덧붙여진 철골의 격자들은 어쩔 수 없이 눈가림의 역할이지만 자봉의 프레임은 철골의 본격적인 형태를 갖춘다. 일상의 정형에 대해 비스듬히 물려들어간 새로운 공간은 외부와 내부에 더해진 변화를 의미하는 제스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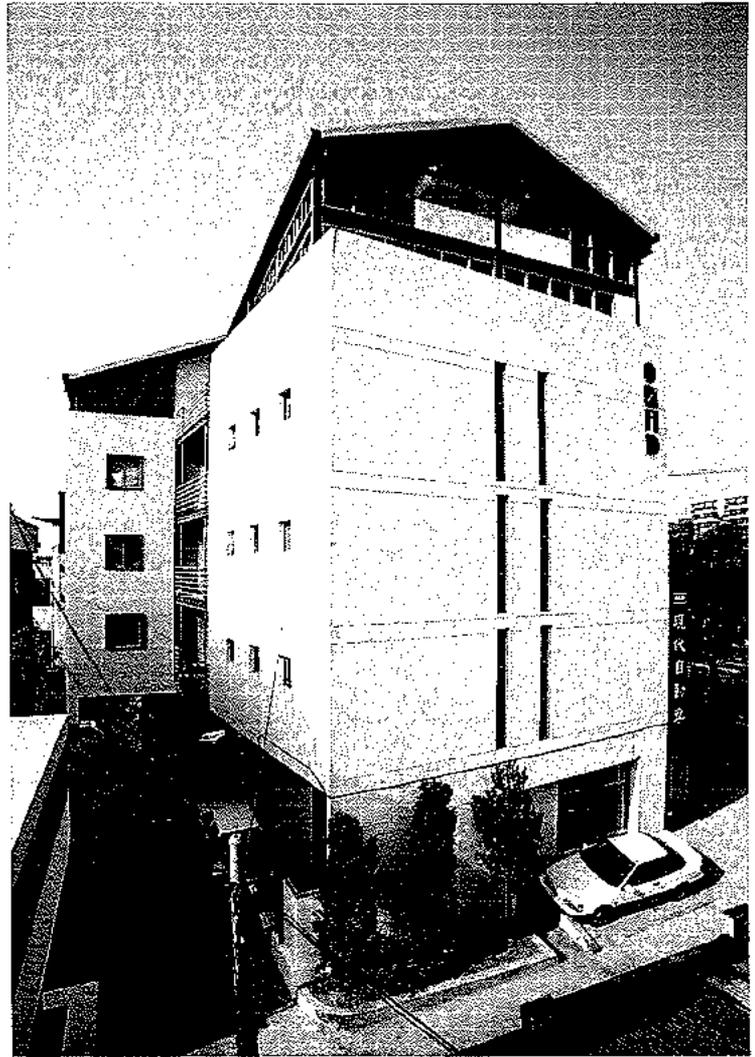
1층의 쇼룸과 5층의 설계실 사이에 있는 기준층들은 화장실과 엘리베이터의 설치만으로 기왕의 것들을 남겨두었다.

침은 있었던 그 위치에서 모양과 크기만 바뀌었을 뿐이다. 약간의 첨가만으로 새 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작정은 막상 현장에 손을 댄 뒤부터 본격적인 공사판이 벌어지게 되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중이 제머리를 못깎는다는 속담처럼 디자인을 결정하고 재료를 고르기가 보통일이 아니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가장 적은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는 어리석은 시도는 계속 되풀이 되었고, 건축가 남편을 못미더워하는 눈초리 또한 따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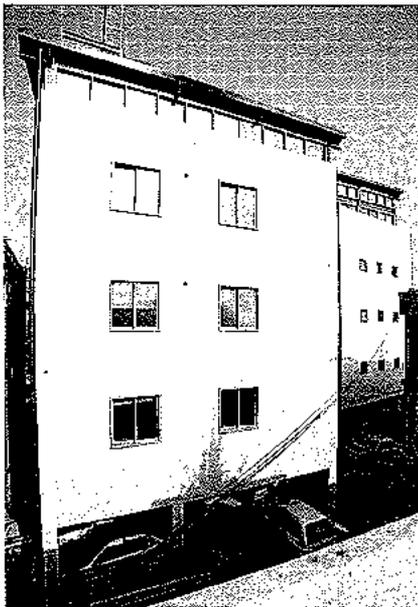
노출된 철골 틀과 사이를 매끈 시멘트만으로 새 집이 아닌 낡은 집을 만들려는 의도인데, 현장의 손이 어느 정도까지 따라와 주려는지 걱정이다. 깔끔하게 마감되기 보다는 덤수룩한 마감이 주변과 나의 구미에 맞을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손질을 멈출 것인가가 문제였다.

옥탑의 채워지지 않는 빈공간처럼 허허로운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모양으로 잡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녹슨 쇠붙이의 산화물이 한두 조각 떨어진다 해도 별일이 아닌 것처럼 지나칠 수 있는 완전하지 않은 완성을 마음속에 기대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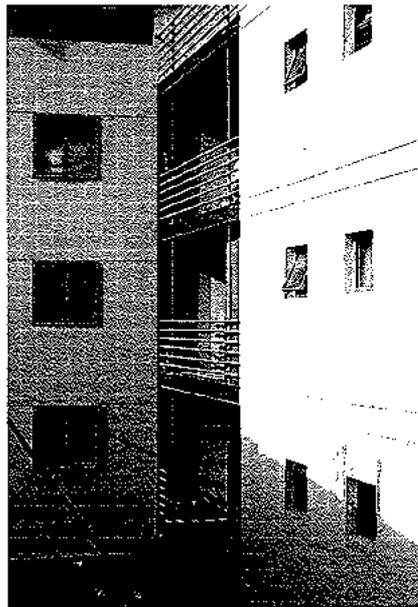


4

- ① 배면도
- ② 배치도
- ③ 전경
- ④ 측면상세
- ⑤ 배면전경
- ⑥ 외벽발코니 상세
- ⑦ 내부 계단측 상세
- ⑧ 5·6층 계단실에서 본 설계실
- ⑨ 5층 평면도
- ⑩ 기준층 평면도
- ⑪ 1층 평면도
- ⑫ 개념도
- ⑬ 사무실 전경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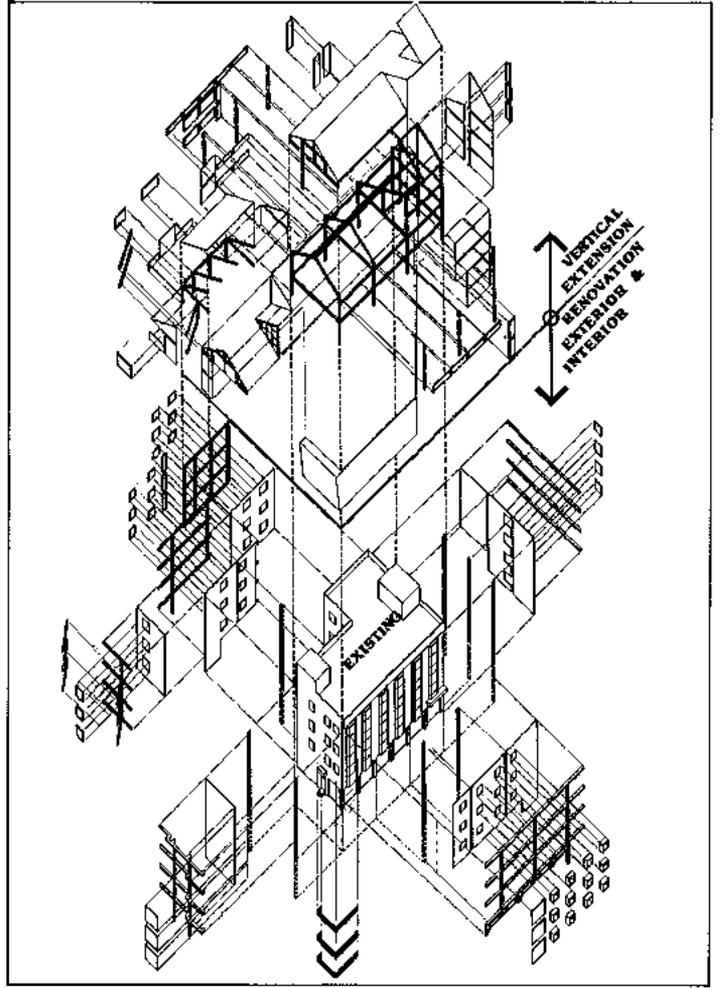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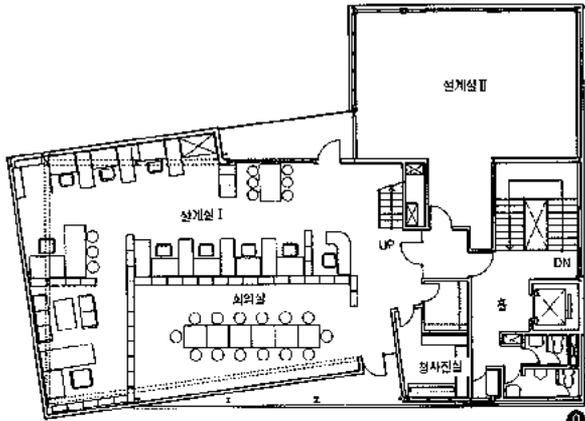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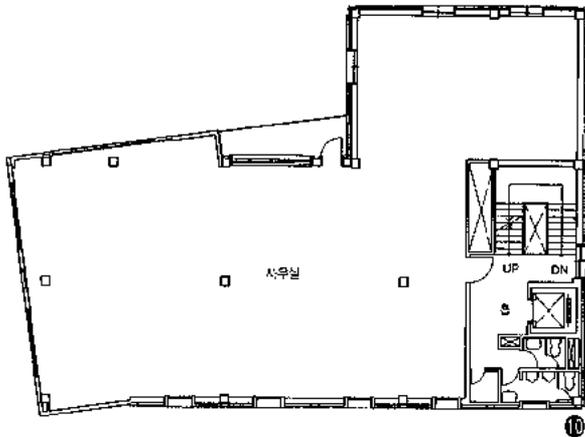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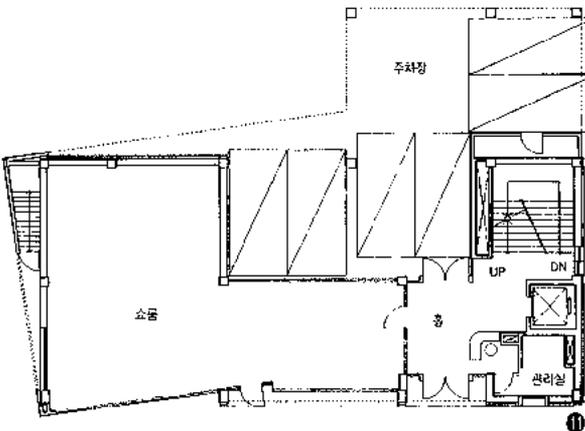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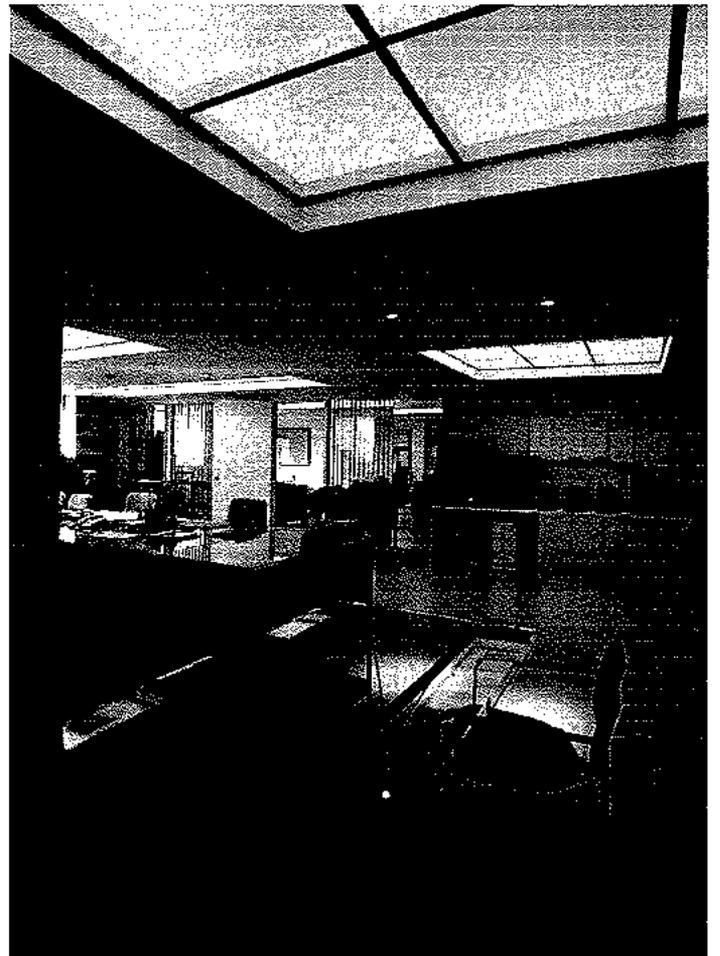
10



11



12



13

순천 오동나무집

Residence at Sooncheon

WORKS

韓 瓊 洙 / 건축사사무소 토방

Designed by Han, Jin - Su

대지위치 / 전남 순천시 매곡동

대지면적 / 451.0m²

건축면적 / 158.46m²

연면적 / 230.67m²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조적조

외장 / 강돌치장 쌓기, 칼라이스팔트 싱글



1



2



순천의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외곽 죽도봉 공원에
래 반세기 역사를 가진 박공형의 목조 지붕들이 자연
과 잘 조화되 어우러져 있으며, 포근히 감싼듯한 대
지의 주변은 고향 마을의 풍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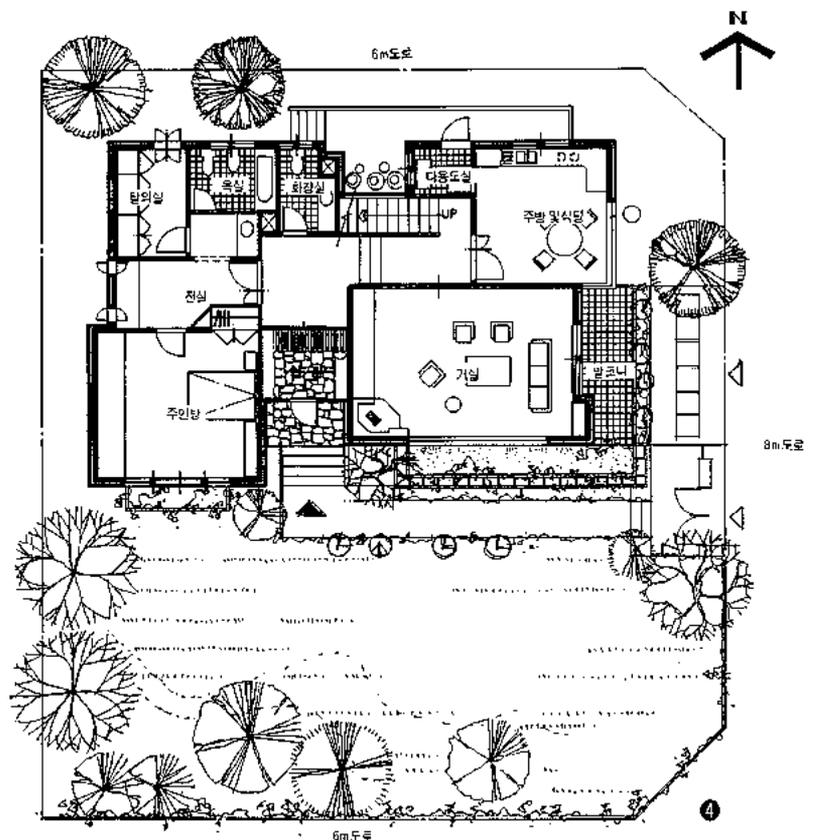
대지에 도로가 3면으로 접하고 남북으로 경사져
있으며, 부지에 들어서는 순간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붕을 덮을듯한 오동나무와 인접 대지의 나무 울타
리였고, 생각에 떠오른 것은 옛 시골의 정취가 담긴
초가 지붕이었다.

부부를 위한 주택으로서 비교적 여유있는 거실의
공간과 일부에 소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건축주의 요
구였으며, 각 기능의 독립성을 기하고 계단실을 중심
으로 각실의 원활한 동선을 기하고자 하였다.

거실의 하부에 차고를 둬서 정원과의 이질적
인 느낌을 줄이기 위해 전면에 화단을 두었으며, 조
망을 고려한 넓은 창으로 거실에 앉아 죽도봉 공원으로
로 넘어가는 석양을 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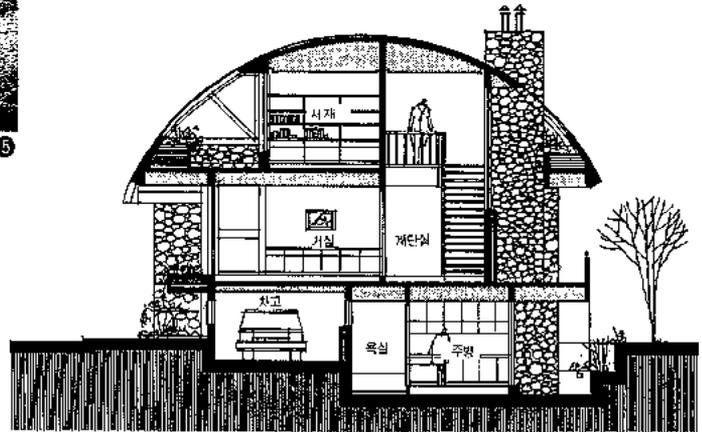
주방과 식당을 한 실에 이루어지게하고 식당의 상
부에 천장을 두어 오동나무 가지를 통해 들어오는 빛
과 실루엣의 변화는 가사노동의 시간적인 면을 제공
하였으며, 가을이면 식당의 코너 창으로 떨어지는 낙
엽을 보며 한층 계절의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반 지하 부분에 소가족이 살수 있고 섀콘 가든을
두어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였으며, 대지의 경사를
이용 설비를 자연 배수 처리 하였다. 계절에 따라 피
어나는 꽃들을 보며 한층 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였
으나, 조경 계획에 아쉬움을 갖는다.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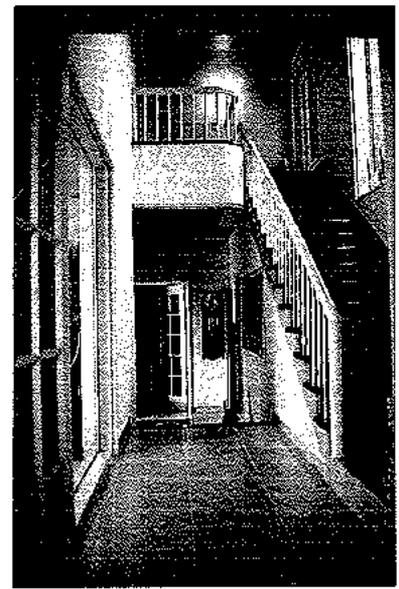
- ① 정면도
- ② 전경
- ③ 전면외부 상세
- ④ 베치 및 1층 평면도
- ⑤ 우측면 상세
- ⑥ 단면도
- ⑦ 현관 상세
- ⑧ 식당전망
- ⑨ 계단측 상세
- ⑩ 지하층 평면도
- ⑪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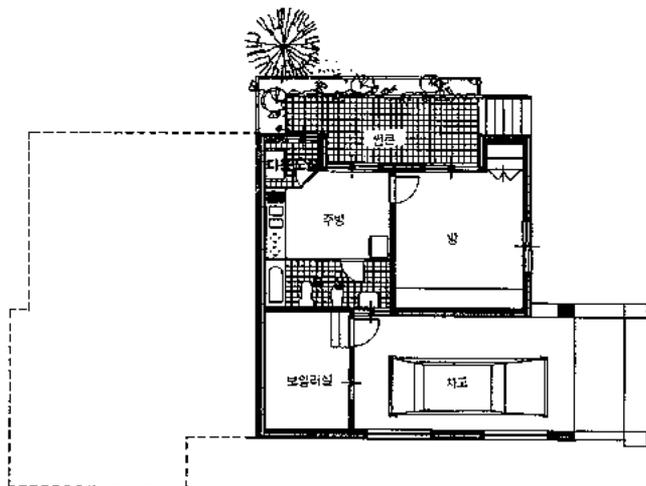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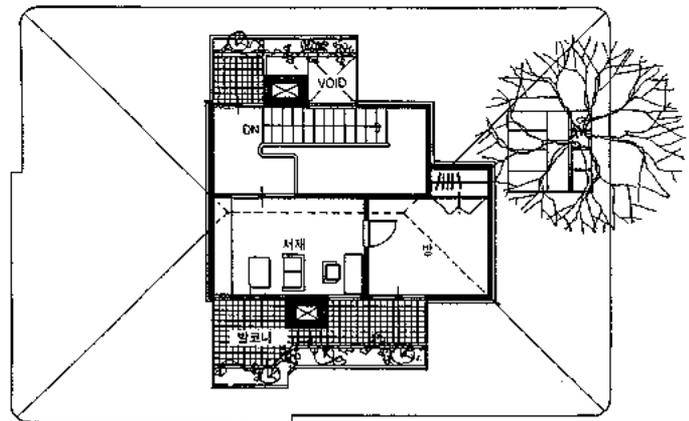
8



9



10



11

연남동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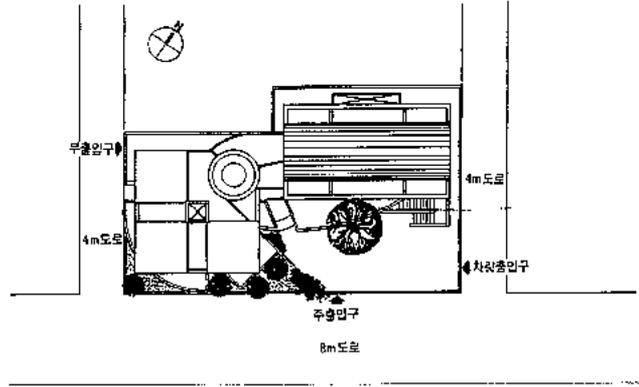
Yonnam-dong Residence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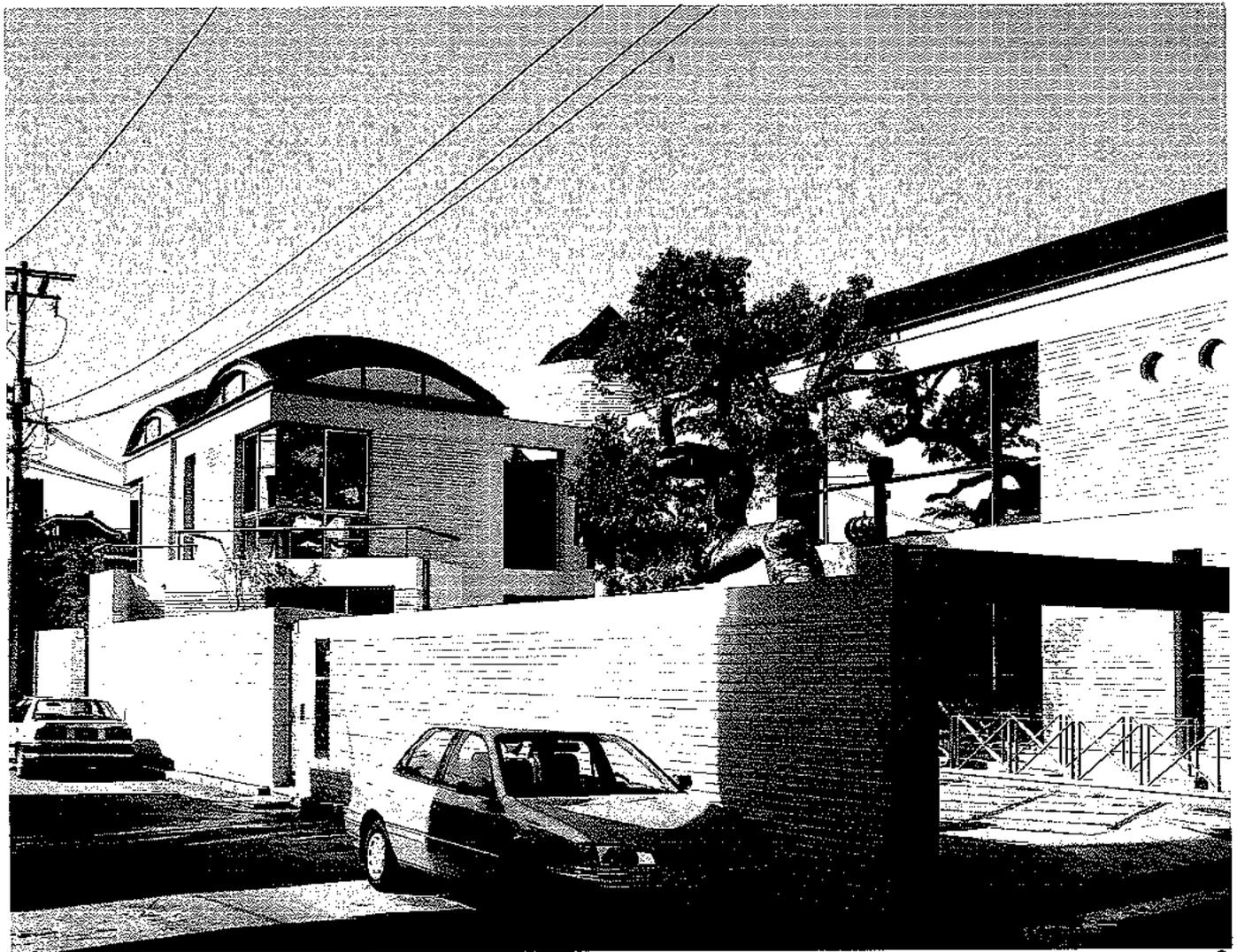
金瑛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Designed by Kim, Young - Sub

-
- 대지위치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 대지면적 / 483.3m²
- 건축면적 / 234.98m²
- 연면적 / 642.75m²
- 건폐율 / 48.62%
- 용적률 / 93.99%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구조 / R.C조(전기시설-Flat Slab(우량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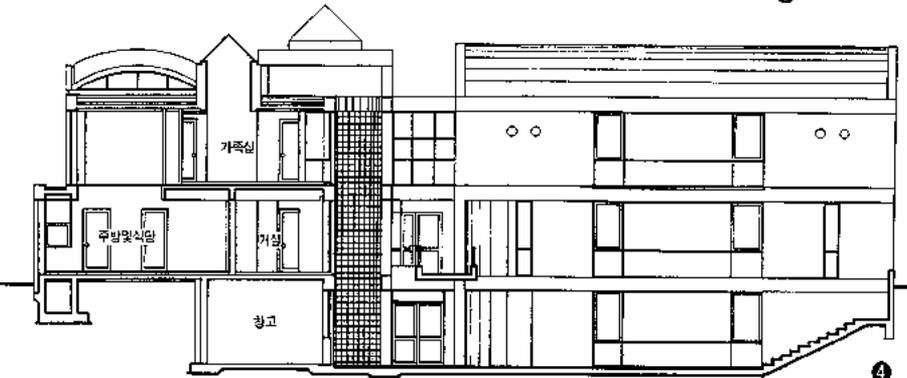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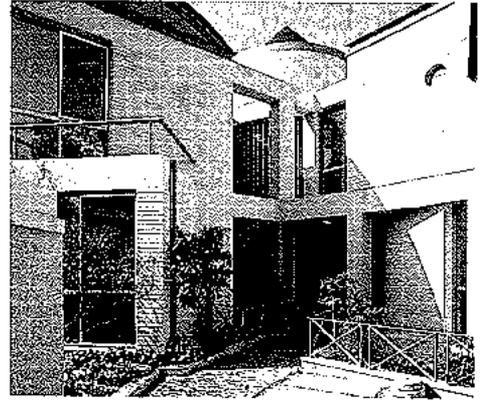
3



4



5



6

Premise

연남동 주택을 착수하게 된 경위는, 지금부터 2년전 서울 미대의 최종태교수님으로부터 조각 작업장 설계에 대한 의뢰가 오고나서였는데 당시 사시던 집 100여 평에다 옆집 50평을 추가로 구입하여 우선 새로 사놓은 50평 대지에 주택을 먼저 짓고 현 부지에 작업실과 전시실을 겸한 건물을 추가한다는 것이 그 대체개요였다.

설계를 구상하면서 주재 자체가 발전되어 갔는데, 즉 주택이 일정기간 후에 작업장과 합쳐져서 다시 전시시설로 환원되는, 소규모지만 작가의 개인 기념미술관을 만드는 변용(Verklaring)을 포함하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Input

부지는 보링 테스트 결과 포도 1m 하부로 지하수위가 있는 엄청난 출수량을 갖는 지질이였다. 따라서 지하에 있는 石作業場과 작품 보관고를 위하여 엄정한 방수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었다.

주택은 부부와 20대의 자년 2인, 가끔 다녀오시는 노부모를 위한 방들을 필요로 하고 주거 기능 외에 2층에 회화작업을 위한 화실과 지하에 작품보관고를 필요로 한다. 작업장 및 전시실은 석조각 작업장, 전시실, 소조실과 조수용방, 응접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열관리를 위하여 주거부분과 전시장부분은 분리되어야 하며 계속하여 거주를 하게 되므로 주택부분만 완전하게 먼저 기능할 수 있도록 분리 설계를 하되 작업장과 이질감없이 형태를 통일하여야 한다.

전체비용은 중산층 주택의 평당 단가개념을 상정하여 250만원/평 정도로 예상한다.

Output

주택은 각 방의 분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공용부분을 최소화하여 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2층 천장은 변형된 돔 형상으로 높은 천장고를 필요로 하는 작품전시실로 이용될 것을 고려한 것이나, 주거용도로 쓰이는 동안의 Amenity(천화감)를 감안하여 돔 하단부에 눈썹형의 내민 천장을 만들어 달았다.

1층에서 특기할 사항은 안방과 거실이 개개의 전망을 가지게 되며, 담장과 건물이 일체로

구성되면서 생겨나는 잔부공간이 소정원으로 꾸며진 것이다. 주방 천장의 스카이 라이트는 2층 옷장 뒤의 공간을 이용하여 끌어들이 것이며, 거실과 식당에 필요시 움직이는 칸막이로 공간분할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전시장은 지하1층이 석조각 작업장, 1층이 전시장, 2층은 소조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후일 모두 전시실로 전환될 것을 대비하여 1층과 2층을 한 공간에 놓인 계단으로 연계시키고, 2층은 대형 소조작업을 위하여 중앙부분을 반원통형으로 설계하였다.

외관은 전체 대지를 포괄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그것은 마당 역시 완성된 조각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담의 의미는 경계의 의미라기 보다는 건물과 함께 뒤섞이다가 죽 뺏겨나온 팔의 이미지(마당을 감싸는)로 해석한 것이다.

Review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Museum의 이미지를 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폐쇄적 이미지와 폐쇄된 공간 속에 무엇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은유적 수법이 구사되었다. 즉 외벽의 반복과 연속, 열선 반사유리의 폐쇄성에 부가하여 창틀의 Gerrit Rietvelt적인 구성주의 수법(자세히 보면 창틀 Frame과 창 그리고 수평 보강 Bar의 색이 서로 다른 구성을 보이고 있다)과 철제 난간의 선과 색이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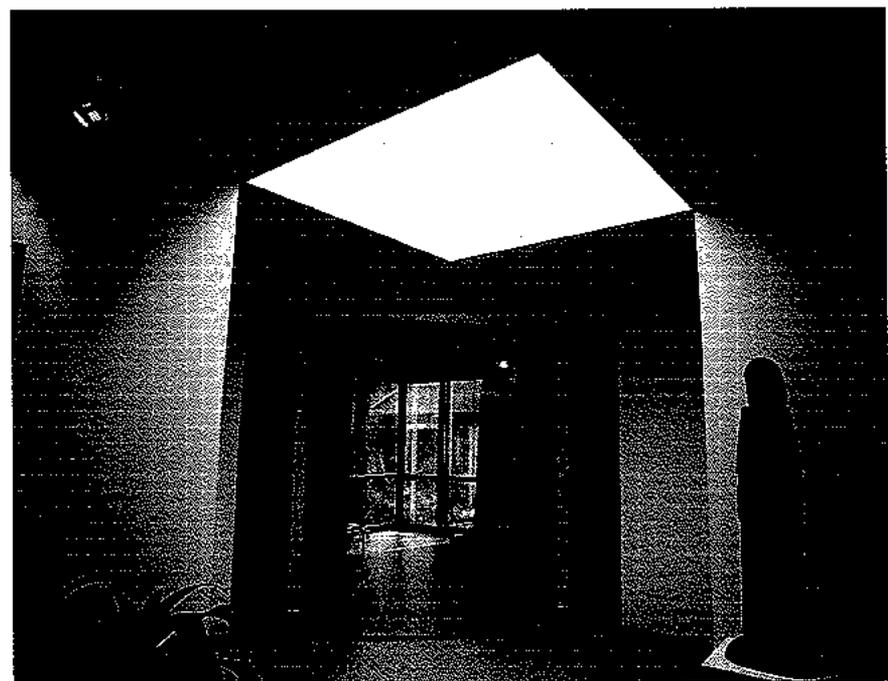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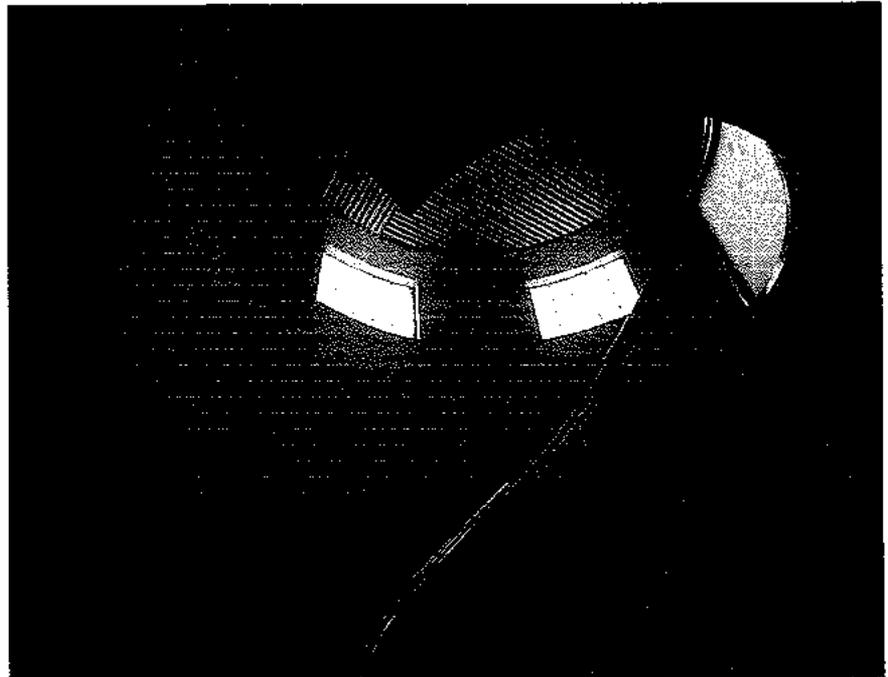
① 이 건물의 중심은 원형계단이다. 그것을 중심으로 아래로 회전하려는 회전력을 Sunken Garden의 웅벽이 긴 호를 그리며 받치고 있다. 이 대립되는 힘이 전달되기 위하여 웅벽의 연장 보가 건물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② 대지와외 정착을 선택하였다. 정착을 보다 강조하기 위하여 건물의 1층부분에 무게를 부가하였고 담과 서로 연결하여 정착의 밀도를 보다 강화시킨 것이다.

③ 추상적인 건축이 근접하고 있는 무의적적이고 무기적 원초적인 것에 대한 열망에 대비하여 정원 한가운데 생명의 상징 그 자체인 거수-팽나무가 서 있다.

④ 고압벽들이 Mass로 대항하기는 하지만 지붕선을 수평으로 눌러내리는 스틸빔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따라서 벽들 Mass의 보다 긴밀한 질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수직줄눈을 없애고 수평줄눈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서 구조 Frame은 최종마감이 미장술질인 관계로 그 본래의 힘이 사라지고 벽에 부가된 부분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을 모아도 스틸의 物性에는 힘의 균형이 치우쳐 보이게 되어 調色을 한 것이다.

지붕의 검정색 스틸빔의 Fon Beige색, 창틀의 Turquoise Blue와 Burgundy Red 등의 主色은 Henri Matisse의 작품 Dance (1931~2)에서 인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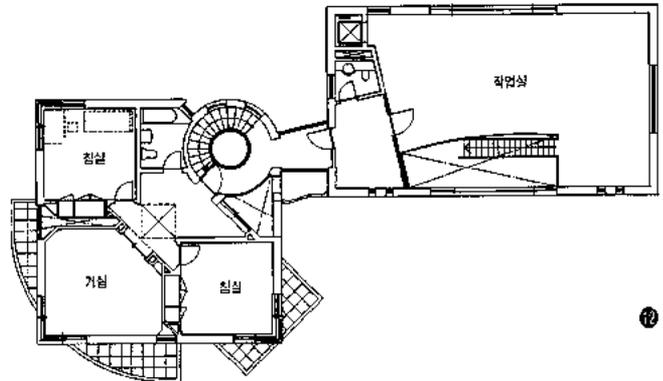
- ① 배치도
- ② 동측전경
- ③ 위에서 내려다 본 전경
- ④ 입단면도
- ⑤ 1층 전시실 및 2층 연결계단
- ⑥ 주출입구측에서 본 현관 상세
- ⑦ 외부 상세
- ⑧ 올라다 본 계단실
- ⑨ 2층 거실 연결통로
- ⑩ 식당 및 주방
- ⑪ 정원에서 본 외관
- ⑫ 2층 평면도
- ⑬ 지하층 평면도
- ⑭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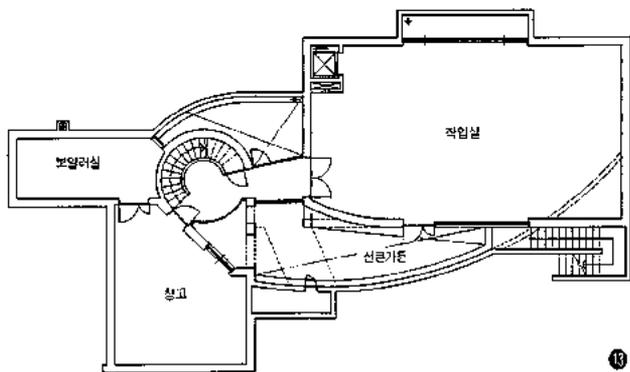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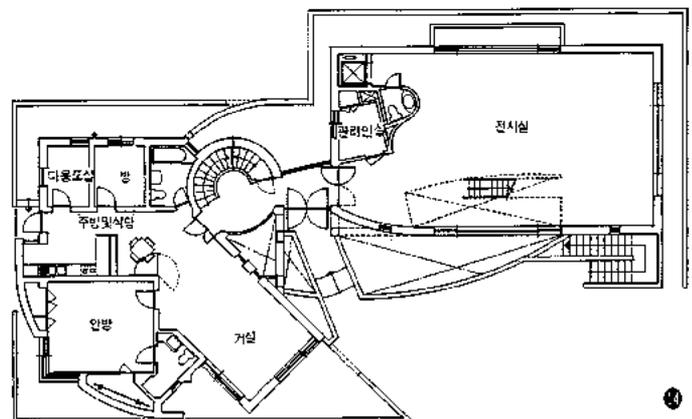
11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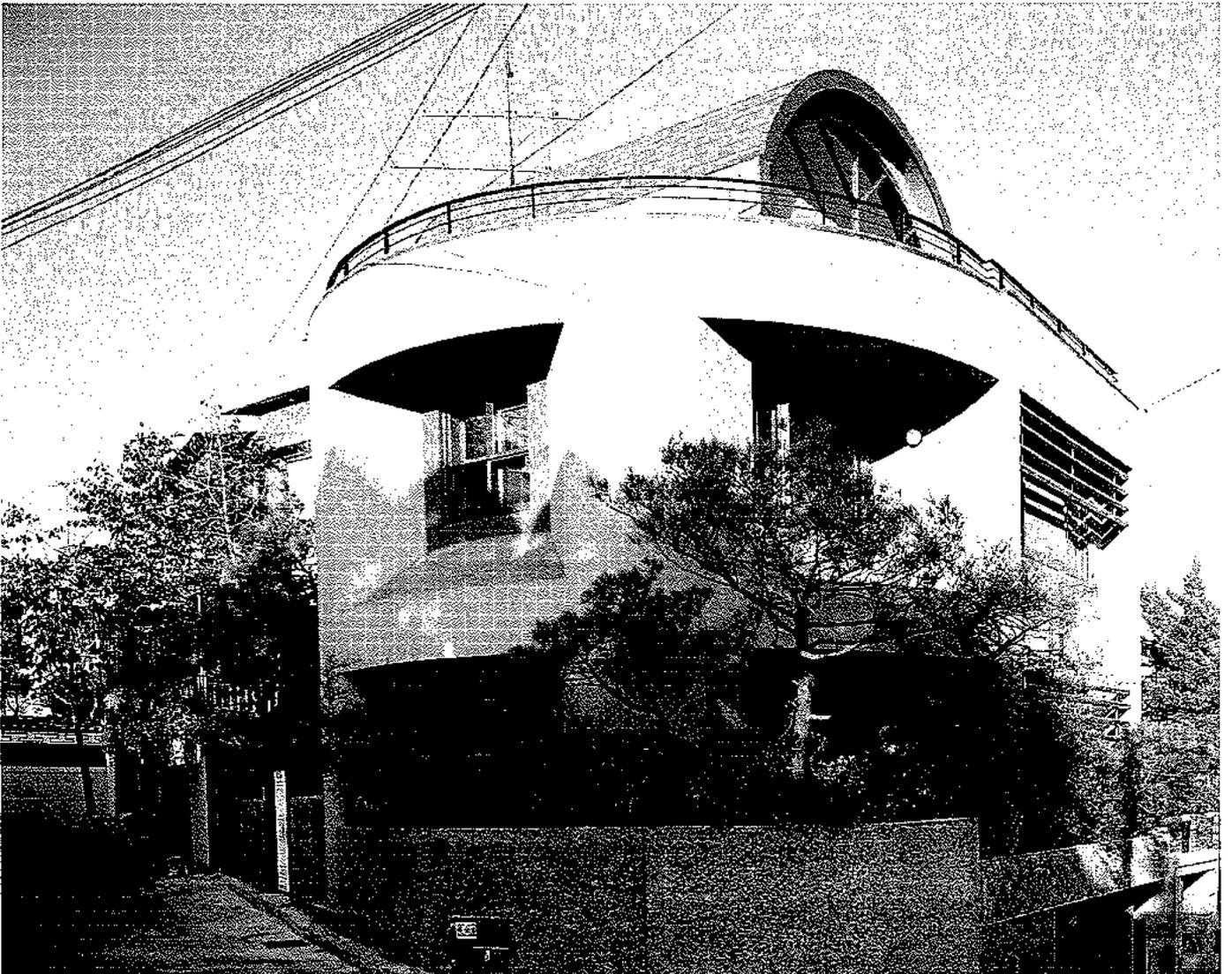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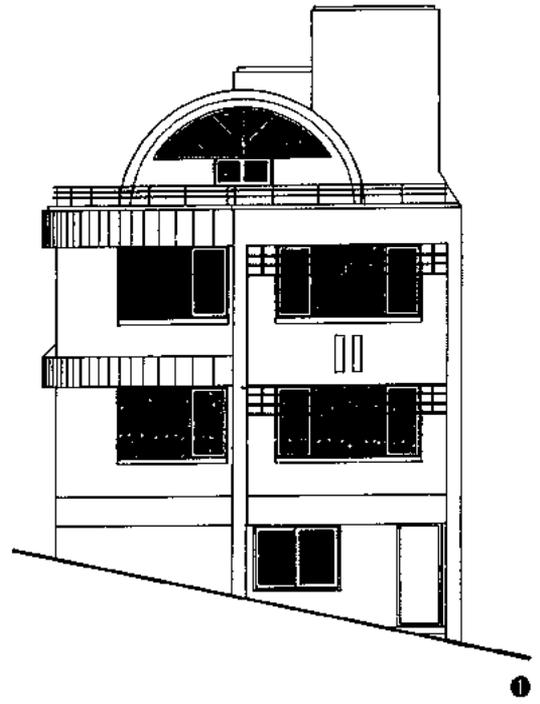
논현동 주택

Nonhyun - dong Residence

WORKS

宋光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Designed by Song, Kwang - Sub

-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대지면적 / 111.5m²
- 건축면적 / 65.86m²
- 연면적 / 219.11m²
- 건폐율 / 57.02%
- 용적률 / 137.34%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외부 마감 / 아트월 단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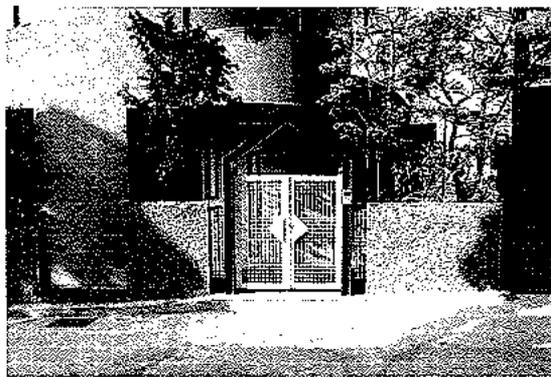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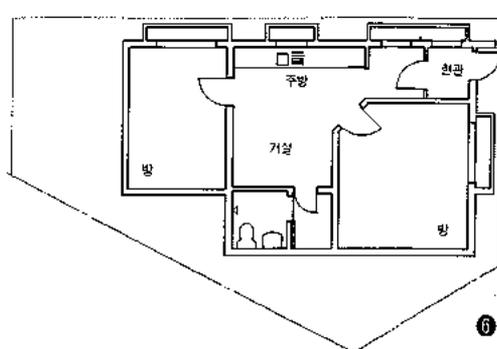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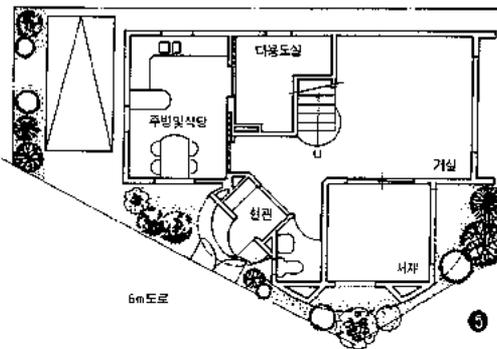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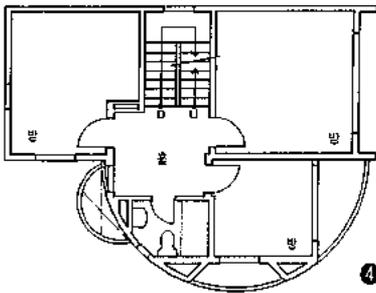
학교뒷편의 34평짜리의 길모퉁이의 대지, 강남의 개발을 시작할때 작게 분할된 대지이다. 조그만 대지이지만 서울시내 대부분의 땅이 아마도 이렇게 작을 것이다. 이러한 곳들의 집은 대형(?) 집들이 갖는 城의 폐쇄성과는 달리 주택가 도로가 뜰 마당이며, 담장이라는 생각때문에 되도록이면 낮고, 시각적 부담이 없는 집이 되어 이웃과의 개방성, 친교감, 집이 갖는 속성인 공동된 마을의 일부로 속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집들이 외부에 노출을 꺼려하는 폐쇄성, 사회. 범죄와의 두려

움 때문에 높은 담과 이웃과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더욱더 불신의 벽만 높여만 가고 있다. 하지만 이 작은 땅, 작은 집에서 집, 그 자체가 본질이며, 生活의 용을 그대로 표정과 함께 꾸밈이 없는 모습을 담게 되리라 믿는다.

평면형식과 공간구성은 꼭 필요한것만 구획되어 작은 집에서 갖는 담담함과 비능률적인면에 대비하여 설계되었으며, 지층의 또다른 도시민의 세대가 거주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 ① 남측입면도
- ② 전경
- ③ 현관 상세
- ④ 2층 평면도
- ⑤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⑥ 지하층 평면도
- ⑦ 도로에서 본 현관
- ⑧ 거실에서 본 계단축
- ⑨ 연결계단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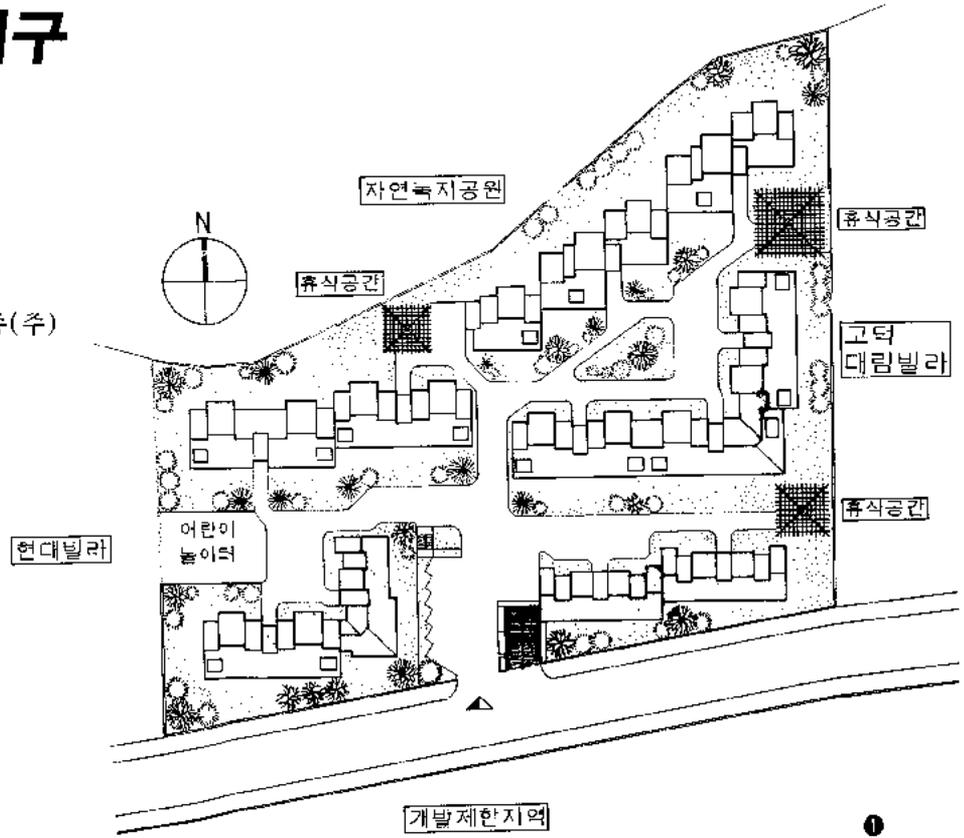
효성빌라 고덕지구

Hyo - Sung Villa

禹南龍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나·세종(주)
Designed by Woo, Nam - Yong

WORKS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76번지
대지면적 / 9, 058. 8m²
건축면적 / 2, 703. 73m²
연면적 / 10, 306. 68m²
세대수 / 69세대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의장재 / 붉은벽돌 치장쌓기, 스페니쉬기와.





이 단지는 남쪽이
 개발제한지역이고 북쪽은
 자연공원으로 둘러싸여
 이상적인 주거단지이다.
 서민도 좋은환경에서 살아볼
 기회를 만들고자 국민주택형을
 위주로 계획하여 보았다.
 몇가구가 모이면
 이웃을느끼고, 노소가 만나서
 교감할수있게 되도록
 휴식공간을 최대한
 배려하였다. (모든주차는 지하로)
 도시속의 시골 작은마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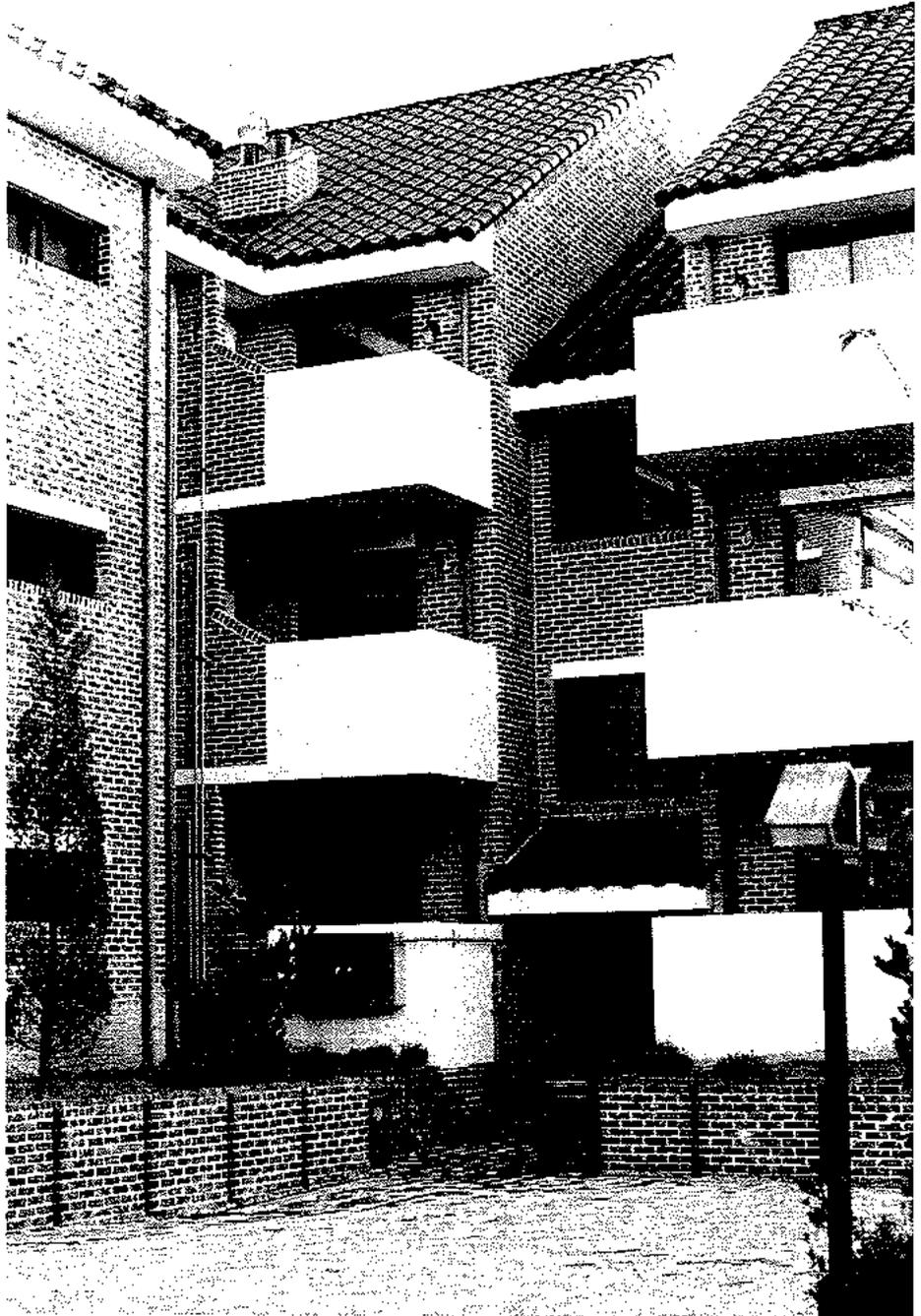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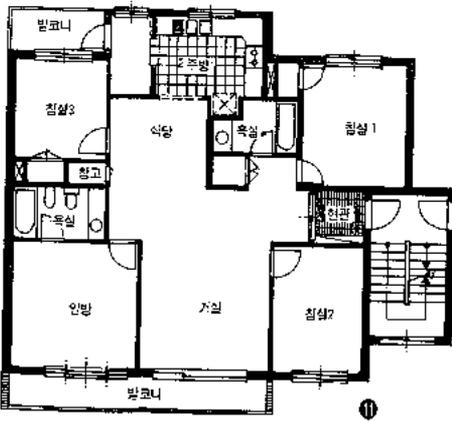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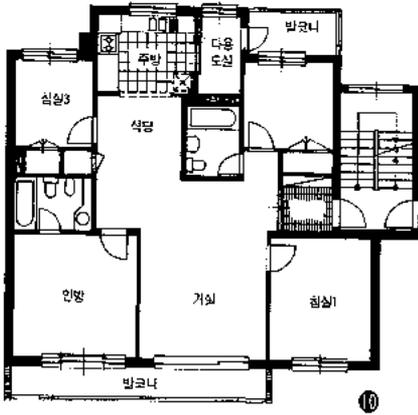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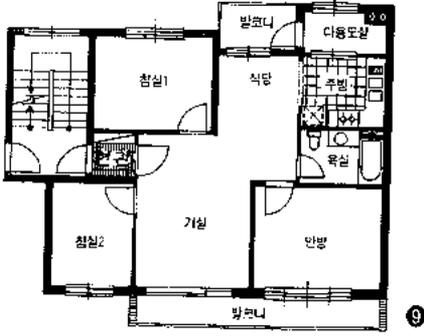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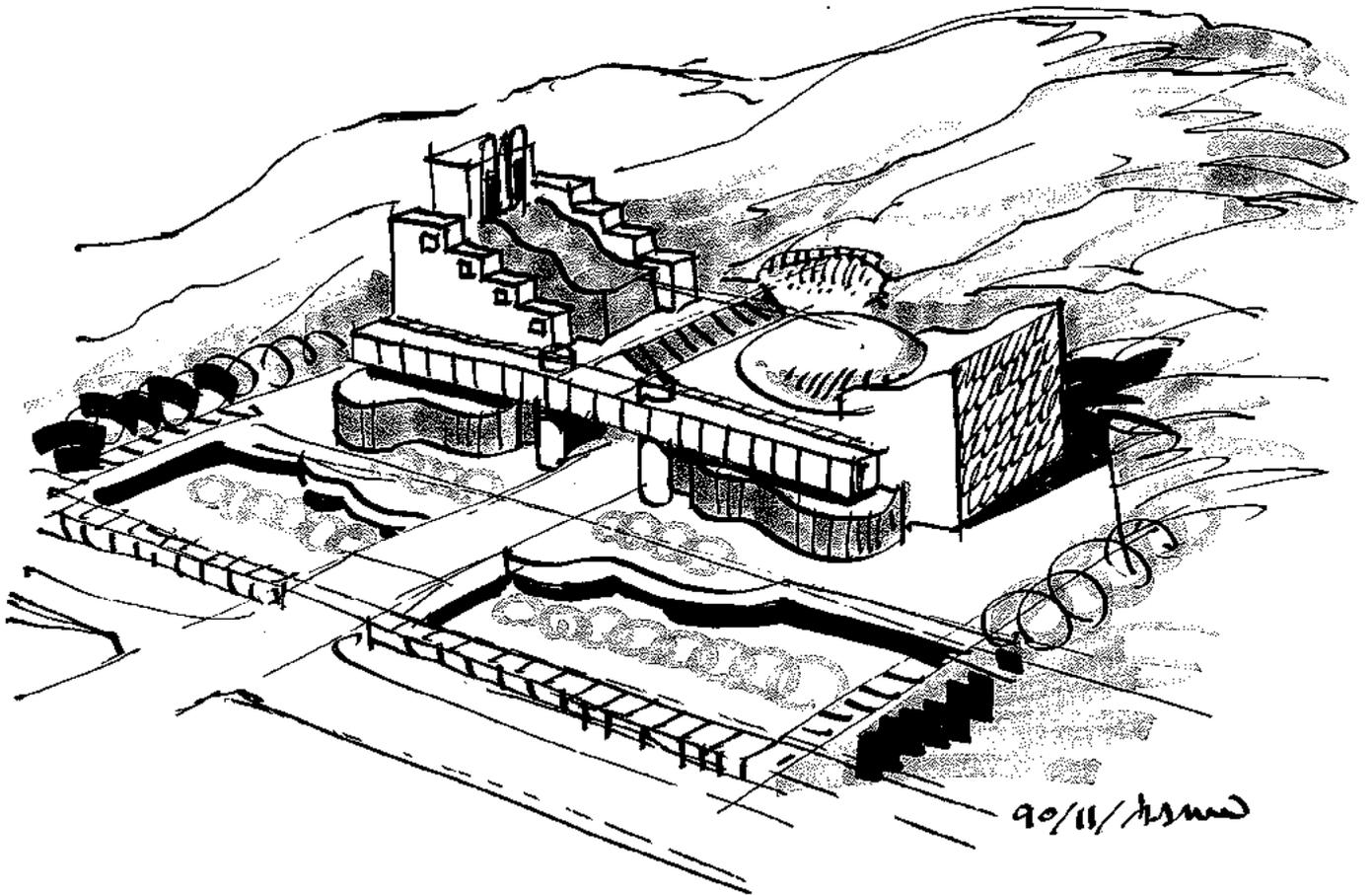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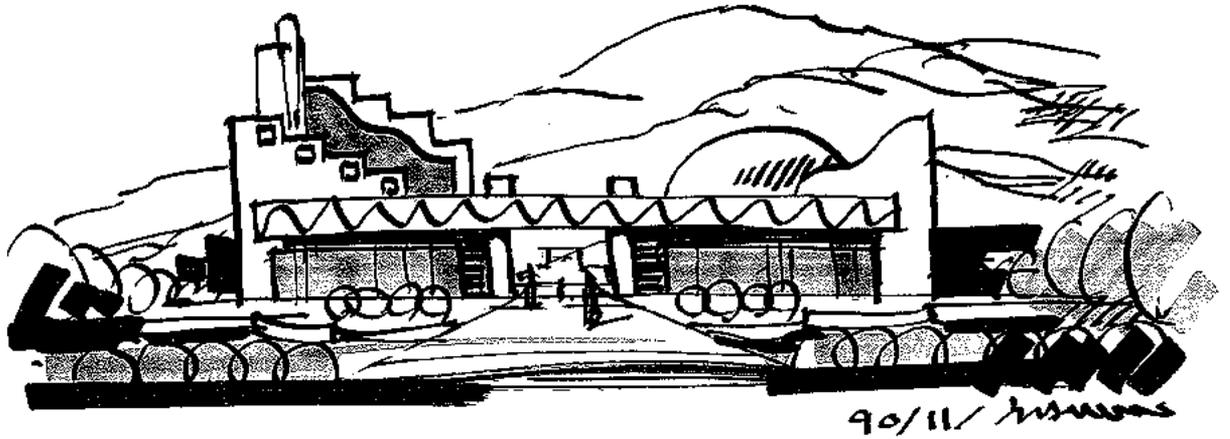
- ① 단지 배치도
- ② 전경
- ③ 원경
- ④ 도로에서 본 진입부
- ⑤ 외부상세
- ⑥ 외부상세
- ⑦ 놀이터측에서 본 외부상세
- ⑧ 입면상세
- ⑨ A동 기준층 평면도
- ⑩ B동 기준층 평면도
- ⑪ C동 기준층 평면도
- ⑫ 현관상세
- ⑬ 외부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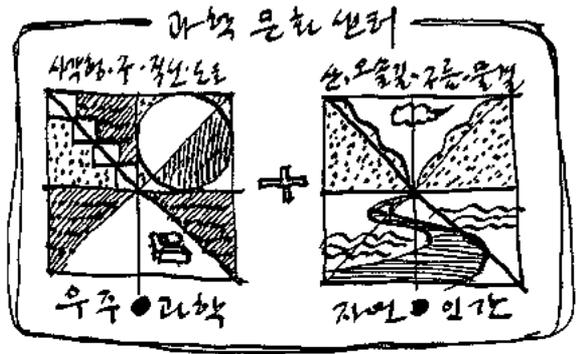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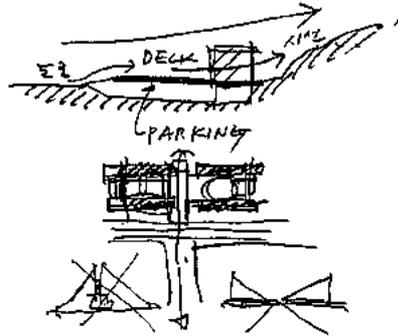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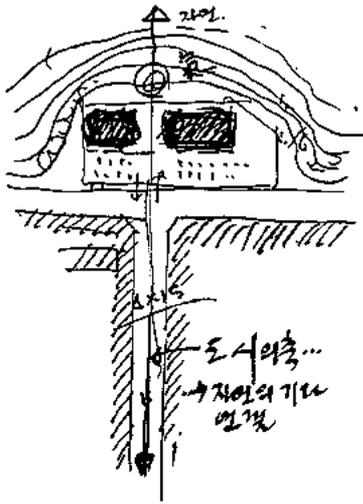
대덕과학문화센터

Daeduck Science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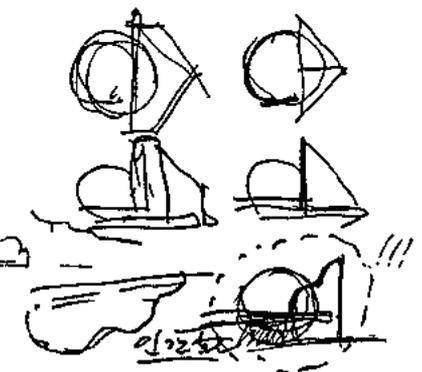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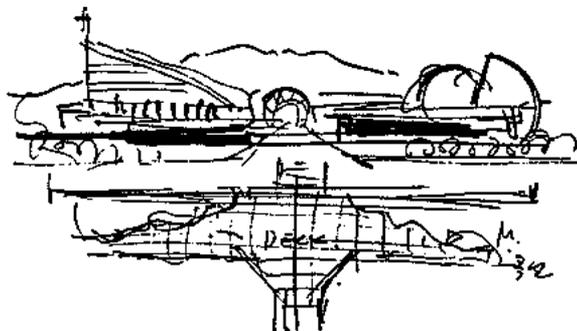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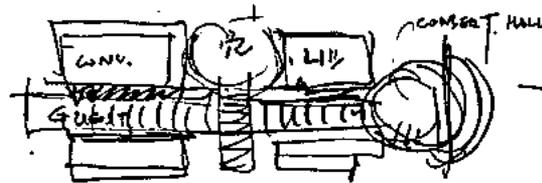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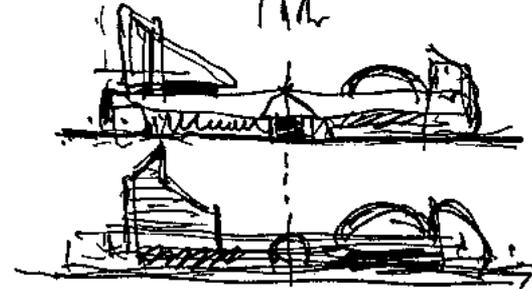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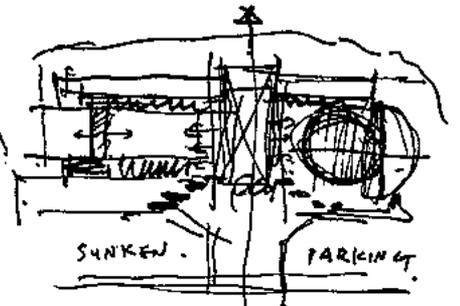
SKETCH

方喆麟 / 종합건축사사무소 목인·인토
Designed by Bang Chul-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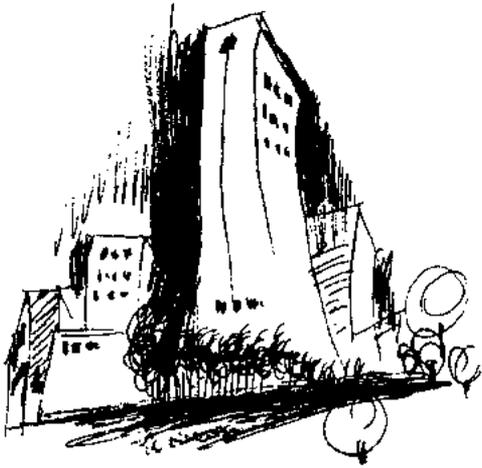
자연 · 인간 · 과학은
 과학문화센터의
 디자인 정신이다
 자연과 인간이
 과학속에 살게 하자
 뒷산은
 과학인에게
 정서풍 일개워 준다
 자연의 백과
 도시중 연결시키자
 자연이
 원하기 때문이다
 정서각과 구
 직선과 크러스도
 과학의 은유이며
 산과 모순길
 구름과 불길은
 인간의 은유이다
 자연과 인간의 기호
 과학의 차의참 속에
 체문을 불러넣자.



新年斷想

Fragmentary Thoughts of the Now Year

金錫澈/(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by Kim, Suk-Cheol



매년 새해를 맞으면 새롭다. 지난해는 유난했던 것 같고 새해는 도전적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해는 인류역사상 드문 큰 사건의 한해였다. 진후세계의 기본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세계의 틀이 보이려 한다. 전세계가 대변혁의 물결위에 있다. 이런 변혁의 와중에 우리는 제 몫 찾기에 바쁜 각계각층의 사람과 제 앞가림에 급급한 지도자 사이에 서있다. 우리도 그중 하나다. 정도 600년 가운데 최대의 도시변혁인 신도시 건설이 불합리와 졸속 속에 도시의 블랙홀을 만들고 있어도 어느 하나 나서는 않는다. 진지한 자기헌신과 각고를 통한 건축과 도시에의 역사개입보다 개인적 욕심의 수사학에 불두해 왔다. 변혁의 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역사에 책임이 있다. 변화는 역사적 실체이므로 누구든 참여의 일원인 것이다. 그 참여에는 무대에서의 참여와 객석에서의 참여가 있다. 건축가는 무대에 선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새해를 맞아 그런 우리의 며칠에 대해 생각해 본다.

건축주에 대해서

건축가의 일은 건축주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건축주는 좋은 건축을 원하지 않는다. 자기 취향과 상업적 성취만을 고집한다. 집은 도시의 한 부분이므로 건축주의 집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한시적 관리인인 셈인데 그들이 도시의 한 부분이 될 건축에 대해서 자기의 취향과 이익만을 요구한다. 그런 건축주에게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래도 자기주장만을 말하면 정중한 말로 출구의 위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삼류 건축주와 함께 가면 삼류 건축가가 되는 것이다.

시공자에 대해서

건축은 단 한번 연주된다. 삼류연주가는 단 한번만 작곡자에게 결례할 수 있다. 건축은 단 한번 연주되므로 삼류시공자는 삼류의 건축으로 건축가의 혼을 급강하시킬 수 있다. 건축가의 작업이 설계도면만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므로 상당부분의 건축적 성과는 시공자에게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설계도면을 다시 그리다시피 자기가 시공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설계의도를 물어오는 그런 시공자가 나타나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게으르고 싶고 쉬고 싶어한다. 시험 끝난날은 아인슈타인에게도 즐거운 날이다. 우리를 쉬게 하지 않는 시공자가 나타나야 한다. 건축적 열정을 가진 사람이 시공자가 되어야 한다. 마음 맞춤의 자세가 건축가와 시공자 사이에 있어야 한다. 건축가는 개념을 생각하고 이미지를 구상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그리고 시공자가

시공할 도면을 그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설계는 개념과 이미지와 메시지를 만드는 일이지 시공의 방법을 그리는 일이 아니다. 작곡자와 연주자의 사이보다 더 짙은 공동작업의 관계가 건축가와 시공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가들에 대해서

우리는 도시라는 극장에서 객석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무대 위에 선 사람이다. 객석의 편안함 대신 시선과 감성과 지각이 우리를 구속하는 무대의 사람이다. 조명은 앞을 가리고 대사는 흔들리고 극의 흐름은 급류처럼 몰아쳐 온다. 한번의 좌절은 파국으로 이어지고 긴 연습도 농료와 실수로 허사가 된다. 삼류 극본이어도 무대위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토지라는 무대위에 선 숙명을 이해해야 한다. 주어진 토지와 사건의 시일년대의 유일무이한 무대위에서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건축가에게는 잠시 무대를 떠난 객석에서의 숨이 중요한 일이다. 극장 밖에서의 도피는 건축가에게 필연적인 과정이다. 자주 여행하고 남의 일과 건축역사에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무대위의 전쟁을 제대로 차르기 위해서 많은 연습의 반복이 필요하듯이 많은 시간 무대 밖에서의 진지한 험과 배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설계사무실에 대해서

설계사무소는 영업조직이 아니라 건축가들의 스튜디오이다. 대규모조직의 설계사무소가 있으나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스튜디오에서 일한다. 이것이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일하는 모습이다. 대규모 설계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건축가이기 보다 고급직업인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설계한다는 일은 도시와 자연에 인간과 사회의 궤적을 남기는 일이다. 더 성실하고 진지한 인간다움의 모임이 그런 일을 담당하기에 적합하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건축 설계조직이 필요하지만 단순한 상업조직으로서의 대규모 대서방은 우리의 도시와 자연을 큰 스케일로 황폐하게 할 뿐이다. 자기일의 중요함을 알고 진지하게 일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은 항상 자랑스럽다. 그들은 우리도시에 옛 우리의 마을이 가졌던 본질적 공간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되찾아 올 것이다. 뛰어난 능력과 꿈을 가진 건축가들은 스튜디오를 떠나서는 안된다. 더 큰일, 더 많은 일은 약간의 능력이 다음 단계인 사람들 몫이다.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건축심의라는 것이 있다. 삼수년 된 제도로 대부분 큰 길가

건물은 모두가 다 심의된 건물이다. 붉은 연필로 작각 긋고 몇 주일, 심한 경우 반년을 끌고 또 끌고 고치고 또 고치게 한다. 말하자면 그들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다. 건축심의는 도시적 차원의 더 큰 스케일 속에서 건축의 문제를 보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대신 그리고자 한다. 우리 도시의 이 잘난 집들은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겠는데 정작 어떤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관의 힘을 등에 업은 호가호위가 아니라면 과연 그들이 건축가들 앞에서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프로의 세계에 타나난 그들 아마추어에게 소크라테스의 발을 들려주고 싶다

현상설계에 대해서

스무번 넘게 옹모도 해보고 서너번 심사에 참여도 해 보았다. 그럴 때마다 아직 우리 건축계는 현상설계를 통해 일을 차르기 보다는 이성적 판단에 의해 건축가를 선정하는 일이 현명하다고 느낀다. 현상설계를 통해 새로운 건축적 제안이 실현되기보다 유행적 잔부함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일이다. 현상설계가 아니었으면 그런 평범하지도 못한 잡지취향의 건물이 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상설계에 임하는 건축가들도 어느틈에 심사위원의 낮은 수준에 맞추려는 이해할 수 없는 야심을 보이고 만다. 그들에게 조건없이 맡겼으면 그런 건물을 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야 한다. 공정이 문제가 아니라 피차의 수준이 문제다.

건축적 유행에 대해서

건축은 십년, 백년 혹은 수세기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 따라서 건축에 있어서 대지에 대한 건축집합군의 부분으로서의 이해와 주제에 대한 당대의 필요를 포괄한 기본적 인식이 건축집근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시적이고 즉물적인 마이너 디자인인 유행적 조류에의 탐닉은 역사에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세계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역사에의 공감에 의한 자신의 확대가 아닌 피상적 모방과 표절이라면 우리도시를 삼류의 변방으로 만드는 일이다. 자기가 일하는 장소의 역사성과 주제의 사회적 틀을 생각하고 되물고 검증하는 조형의지와 형이상학의 본격적 도전이 필요하다. 건축은 오래토록 그 자리에 우리들의 죽음뒤에도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自畫像

Self-Portrait

黃寅秀 / 종합건축사사무소 東明像木

by Hwang, In-Su

POEM



알바트로스
벌써 어둠이 물살위로
퍼져오고 있어요.

맑지도 푸르지도 않는 물속은
그만 들여다 보아요.

당신의 부리가 아슬수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아요.

샘은 마르고
바닥난 창고엔
魂들만 영성하게 살아 숨쉬고
和合되지 못한 뼈들
부딪치는 소리 ...

알바트로스
어둠이 물승을 타고
오고 있어요.

이젠 그만 들여다 보아요.
빛 잃은 친구 얼굴만
일렁거리지 않아요.

알바트로스
어두워 졌어요
자만하지 말고
마스트 위로 가세요

찾아갈수 있다가요.
언제 갈꺼예요.

詩作 노트……

젊은 시절에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속에 자기만의 우상이나 영웅을 간직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닮으려고 노력도 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 보려는 시도도 하게 된다. 우리 현대시사에서 高銀이 徐廷柱라는 커다란 산맥을 뛰어넘으려고 일평생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여러 명의 우상이 가슴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소설 배경의 주인공인 에어헤브 선장이 얼마간은 나의 인생의 향로를 이끌고 갔다. 그로 인하여 나는 바다를 알려고 했고 결국 바다와 마주치게 되었다. 마주치거나 부딪치지 않고는 인생이라는 장엄한 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폭풍우 속의 바다와 그것이 지나고 난 뒤의 고요한 정적의 바다, 관념의 틀을 떠나서 바다의 야누스적 속성을 현실적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孤島와 동대와 동대지기의 삶을 마주치게 되었고, 비릿한 나는 선창과 어시장에서 생선장수 이준마의 얼룩진 앞치마와 물 묻은 손, 찬바람 부는 겨울바다결에서 출어준비에 바쁜 어부들의 손놀림들……

아! 이 외면할 수 없는 엄숙한 생활들, 생존이란 이렇게 한치의 틈도 없이 정해진 틀 속에 있는 것을, 이 피할 수 없는 엄숙한 현실을 팽개쳐 버리고 원시림 속으로 탈출해 버린 고갱과 자기 귀를 잘라버린 고히와 몽마르뜨의 휴지통에서 버려진 빵조각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랭보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썼던 사람들로서 쓰지 않고 그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인 것이다. 인류문화사란 그런 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외담되게도 외도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가끔씩은 들때도 있었지만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거나 그리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다는 감정은 고백컨대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나는 무엇때문에 그림과 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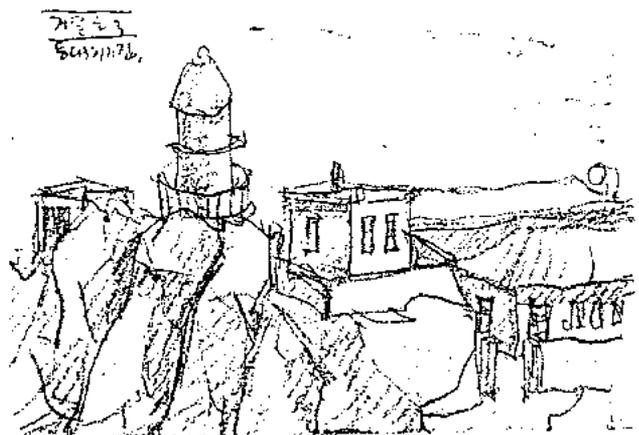
감정의 사치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허영심인가. 건축행위에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보전적인 수단이라는 미명하에 한번도 정면으로 시와 그림을 凝視해 보지 못했던 나, 늘 한발은 뺀고 서있는 나의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있다.

공자는 나이 40세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그동안의 자기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恒心을 가지고 일평생 가지고 갈 것과 정리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주관적인 자아를 확립하게 된 시점을 인생 40으로 잡은 것 같다.

모든 사람이 다 시인이거나 화가가 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시라는 것은 인간의 밖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도 아니며 시인이 성자나 현인도 아닌 것이다. 시인은 凝視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시적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하는데 직업으로 시를 쓰는 사람 즉 시인이 아닌한 언어만을 만지고 응시할 수는 없지만, 이 응시라는 행위를 통해서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가능과 불가능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적은 수확은 아닐 것이다. 경계해야 할 것은 丁茶山의 말처럼 吟風咏月이고 배워야 할 것은 견고한 지구력이다.

소설 안나카레리나를 16번씩이나 고쳐쓴 톨스토이의 지구력과 불란서 국전에 7번 낙선하고 8번째 입선했다가 이듬해에 또 낙선하기까지 20년을 기다린 세잔느의 견고함을 배울 일이다.



구조계산에 있어 철근의 피복두께

The Thickness of Protective Cover for
Reinforcement in Structural Calculation

李昌男/센 구조 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Nam

FEATURE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현장감리에 임하는 실무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한결 튼튼한 건축 구조물이 되게 하는 ONE POINT 제안을 생각하는데로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참여 있기를 기대하면서 긴급제안 제 1호를 내 놓는다.

외국에 사는 친구들이 가끔 서울에 오면 도무지 길을 못찾겠다고 투덜거린다. 없었던 점들이 들어서면 거리의 인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해냈고 그러다보니 알게 모르게 적당히 지나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오늘은 그것들중 가장 간단하고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철근의 피복두께 제한 규준에 관한 얘기를 해 볼까 한다.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아래표) 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표 5.9.1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의 최소값

구조부분의종별			최소값(cm)	
흠에 접하지 않는부분	바닥슬래브·지붕슬래브 ·내력벽 이외의 벽	마무리 있을 때	2	
		마무리 없을 때	3	
	기둥·보·내력벽	실내	마무리 있을 때	3
			마무리 없을 때	3
		실외	마무리 있을 때	3
			마무리 없을 때	4
옹벽		4		
직접 흠에 접하는부분	기둥·보·바닥슬래브·내력벽		4(5)	
	기둥·옹벽		5(7)	

[주] 경량콘크리트에 대한 피복두께는 위 값을 적용한다. 다만 ()내의 값은 경량콘크리트 1종 및 2종에 적용한다.

5.9 피복두께

5.9.1 총 칙

이 절은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에 적용한다.

5.9.2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특기시방 또는 도면에 따른다.

특기시방 및 도면에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는 다음 "나" 및 "다"에 따르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피복두께는 소정의 내화성·내구성 및 구조내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멘트의 종류·콘크리트의 종류·마무리의 유무 및 종류·환경조건 및 시공정도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다.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아래 중 큰 값으로 한다.

1. 표 5.9.1의 값
2. 주근을 이형철근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주근의 공칭지름의 1.5배

나는 피부가 얇아서 살짝 건드려도 피가 난다. 그래서 전기 면도기로만 수염을 깎는다. 피복이 최소치인 경제적으로 설계된 표본이라고나 할까?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도 사람의 피부와 마찬가지로, 내 몸처럼 경제적으로 설계하려면 건설부에서 제정한 위 표에서 규정하는 피복의 최소치를 택하면 된다는 뜻이다.

목욕탕에서 이태리 타올로 뽀뽀 밀어야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느껴진다.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유들유들한 사람들, 양반이 아니므로 막 대해도 끄떡없다. 따라서 만약 그 건물이 상놈처럼 막 굴러야 하는 옹도의 것이라면, 즉 정확조라거나 쇠붙이를 끌고 다니는 공장바닥, 옷도 안입히고 (마감공사도 없이) 벗겨 놓는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것과, 맨발로 모심는 농사꾼처럼 땅속에 묻히는 기초나 옹벽, 지중보 같은 부재는 피복이 두꺼워야 한다.

나는 뜨거운 물도 잘 못마신다고 마누라에게 편잔을 든다. (뜨거운 것을 잘 먹어야 여자복이 있다고 하면서) 뜨거운 그릇도 척척 들고 다니려면 피부가 두꺼워야 한다. 또한 유독성 화학물질에 노출시켜도 안전하려면 두꺼운 피부가 유리하듯 철근의 피복도 두꺼운 것이 편리하기는 하다.

그러나 삼겹살 돼지가 둔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피부가 필요이상 두꺼우면 힘이 없다. 무거운 고기덩어리를 달고 다니느라면 심장과 근육에 무리가 오는 것이다. 성인병에 걸리기 쉽고 활동에 지장을 주며 또한 이른바 세련되고 날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 그 많은 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먹어야 하므로 비(非)경제적이다. 여기에 설계자와 시공자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날씬하고 힘도 세면서 부드러운 피부의 여인, 그 예쁜 손으로 빨래하고 김을 매도 뜨지않는 손, 그런 것을 원하는 자가 돈있는 건축주인가보다.

구조계산하는 사람들은 위 시방서에 기재된 피복의 최소치를 기준하여 설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래서 아예 "최소값"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한 필자의 글을 읽어 보신 분도 있을 것이다.

특히 슬래브나 높이가 낮은 작은 보에서 피복두께가 두꺼우면 내력 감소율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아래 설명해 보기로 한다.

월급 30만원 받는 아가씨가 10만원 짜리 코트(피복두께에 해당)를 사면 33.3%가 날아간다. 하지만 200만원 받는 사람에게겐 10만원이 5%에 불과하므로 크게 표가 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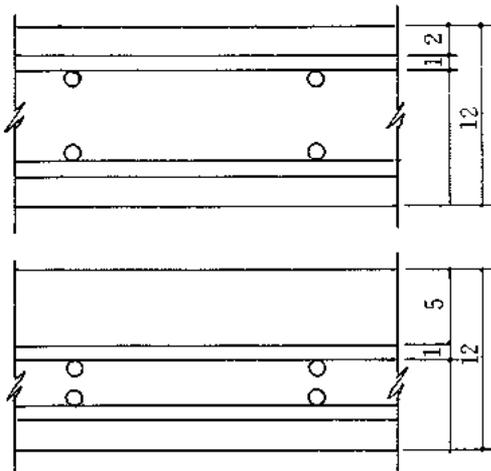
두께 12cm 슬래브에서 철근 피복두께를 2cm 라고 가정하여 구조계산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해서 철근 피복두께가 6cm로 늘어났다고 하자, 그 내력은

$$\frac{(12\text{cm} - 6\text{cm} - 1\text{cm})}{(12\text{cm} - 2\text{cm} - 1\text{cm})}$$

↑
철근중심까지의 거리

= 5 / 9 → 55.5% 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피복두께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보기좋은 떡을 좋아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이다. 기둥이나 보는 물론 슬래브에서도 기둥침을 뚫었을 때 철근이 노출되면 보기에 좋지 않다. 콘크리트가 잘못 다져져서 다소 폼보가 났다 해도 철근이 보이지 않으면 슬쩍 넘어갈 수 있어서 좋다. 마치 바짝 마른 명자의 갈비뼈처럼 철근이 보일듯 말듯한 구조부재도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잘못 배근된 철근이 흰히 들여다 보여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철근 가공업자는 피복이 넉넉하여 다소 잘못된 것도 후에 들켜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의 요령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Stirrup 과 Hoop 의 Size 를 아예 규격보다 작게 만들어서 Stirrup 과 Hoop 로 둘러싸인 주근이 안전하게 두툼한 콘크리트 피복 속에 묻힐 수 있게 하는 것을 예사일로 하고 있다. 피복이 두꺼우면 우선 시방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의 포에서 본대로이다. 엄연히 "피복두께의 최소값" 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그 값 이상으로 하면 좋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전혀 잘못한다는 감동도 없는 것이 그들이다. 따라서 실제로 구조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철근 피복두께가 과대하게 시공되고 있으며 그것이 구조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만큼의 하자 발생의 한 요인이 됨으로 증명되곤 한다. 필요한 콘크리트를 다 소비하고 철근은 철근대로 다 쓰면서도 약한 구조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짓는 구조물이 안전하게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가지 방안으로 도면 한귀퉁이에다 철근의 피복두께를 기재하여 구조계산자의 의사를 시공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긴급제안 1호로 발표하는 바이다. 즉 아래 "예" 와 같은 문구를 구조계산자와 협의하여 구조도면에 적어두는 수고를 아끼지 말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슬래브 : 2cm
 보, 기둥, 벽 : 3cm
 지하실 벽체 중 흠에 직접 접하는 면 : 4cm
 기초 : 7cm
 * 피복두께가 위 값을 초과하면 부재내력이 저하 되므로 특별히 주의 할 것.

현장에서의 감리

- ① Stirrup 과 Hoop 의 규격을 사전 제시받아 승인할 것.
- ② Spacer 와 Separator 의 규격, 재질 배치간격을 사전 확인할 것.
- ③ 슬래브 이어지기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각재의 규격을 사전 확인할 것.

건축공사의 적법수행을 위한 감독·감리제도의 개선방향

Bettenment Schem of The Supervision system for
Lawfulness Construction

元鍾一 / 예자인 건축사사무소
by Won, Jong-Il

FEATURE

1. 개정취지

이 땅에 현대식도시가 건설되고 도시에 들어선 건물들을 현재와 같은 “건축법”으로 통제하지도 근 30년이 되었다. 모든 사회 부분이 그러하듯이 건축문화 부문도 문명적 사회상이 하나하나 변할 때마다 같이 대응하여 변천하였고, 그 중 건축법 및 그 관계법은 건축문화의 하드웨어 시스템으로서 주거 환경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는 중요성 때문에 민감한 대응변천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사회상의 변화요체는 현대에 있어서는 바로 민주화와 문명화이다. 이런 연고로 올해 현시점에 요구되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 개정취지 속에는 허가 사전 예고제와 소형 건설업 면허제도 등을 도입하여 각각 건축물 생산과정을 민주화하고 생산의 질을 단속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다. 다른 사회 부문도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할 대응책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런 중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건축물 생산과정의 민주화와 생산의 질에 대한 통제는 바로 우리의 사회상의 본질인 민주화와 문명화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과 함께 병행 발전시켜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도는 건축물 생산과정에 있어 어느 한 과정에 국한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허가 사전 예고제는 초기의 허가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형식으로서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의 적응도에 대비하여 문제시 되었지만 이것을 감리, 감독 과정에서 도입한다면 적응이 훨씬 용이하고 우리 국민의 의식도 충분히 개선되어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현재 우리 국민의 준법 정신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하여 민주화 사회에서는 행위권리가 공공적 이해 입장의 통제를 받아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무지함으로 해서 법의 기준에 지고의 가치를 두지 않고 자의적 이기심 충족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사회적 행위의 보편적 의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국민의 낮은 민도(낮은 법 이해 및 준수능력) 상황에서 건축공사의 적법수행을 관리 통제하고 있는 현행의 건축공사 감리, 감독제도가 그 적법 수행 목표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또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2. 기존 체계 방식과 문제점

현행 건축물의 공사 수행 과정에서의 감리, 감독은 공사행위 그 자체와는 다른 책임 감독 행위로서 공사행위와 별개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행위를 하는 인적 구성도 건축주(시공자 및 원인 행위자 포함)집단 대 감독자 집단이라는 두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건축주 등의 법적 자질 결여로 야기되고 있는 수많은 위법건축물의 감리, 감독 및 준공처리의 과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의 복잡성에 비해 이에 대응하여 처리하는 제도적 방법이 획일적이고 단순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이라는 데 있다.

현 제도는 건축주 등이 시공한 건축물을 건축사의 책임하에 현장조사하고 이결과를 행정관청에 보고하여 그 기재된 조사 내용으로써 준공처리를 결정하는 절차 형식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여기서 실제로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단계는 건축사가 현장조사한 결과 보고 내용 그 자체인 바, 이것은 현 제도 이전에 행정관청에서 현장조사 행위를 직접 수행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장조사 수행자 개인의 재량 남용이 계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적, 폐쇄적 방식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의 제도는 민간에 대하여 타율적 방식으로 단속 통제하는 관리 형식이므로

국민은 더욱더 준법정신에 소극적 자세를 갖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불법성을 통제하는데 개선적 효과를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적 행정 체계에 있어서는 조사행위의 정당성이 부단히 감시되는 부담만 관청 공무원으로부터 건축사로 이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행정 편익주의적이고 또한 행정 권위주의적일 수 있는 제도가 건축공사의 불법 수행 현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껏 보여져 왔고 또한 이에 관련한 각자의 행태만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위상으로 정체시키고 있으므로 건축 공사의 적법 수행 및 사회발전을 위하여 감독, 감리제도 체계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필연인 것이다.

이런 변화는 현재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는 사회의 민주화 발전을 위해서 타율행정적 관리 중심 체계로부터 국민의 자율중심 체계로 권력과 의무 주체 정신의 이동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며 또한 한편에서 인허가 제도의 폐지 내지는 개편을 요구하는 정신과도 상응하는 것이다.

3. 개선방향

- 1) 감독 감리의 법적 체계는 건축주등(원인 행위자)의 전적인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 2) 건축물의 공사상 적법수행 성과 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은 건축주 및 인근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 과정을 가질 것.
- 3) 이 개선된 제도하에서의 재래의 행정적 관리자들 - 관청의 건축직공무원 및 설계사무소의 건축사 등은 건축 공사의 적법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 건축주 또는 인근주민의 요청에 따라 건축물을 정확히 측정 보고만 함으로써 공사의 적법 수행 과정에서의 역할은 건축기술자로서 기술자문을 주로 하는 것을 그 책무로 한다.
- 4) 건축물의 측정결과는 반드시 건축주측의 감리 건축사와 이웃 주민 측을 대표하는 선임된 건축사 쌍방의 측정 위임 건축사 상호간 확인하는 대립된 구조 절차이어야 하며 이 모든 행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 건축주의 건축기술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이 제도가 실제로 실행되는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전문 면허를 가진 법적 현장 대리인 제도 채용을 반드시 병행한다.
- 6) 공사의 적법 수행 과정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준공여부를 판정하는 판결 회의 기구 및 장소를 설치한다. 또한, 이 기구는

민원분쟁 조정에 관한 전반적 역할을 겸한다.

- 7) 이미 교정하기 불가능한 위법 부분은 그로 인한 건축주측 이득과 이웃 주민의 예상 피해를 재산적 가치 기준으로써 계산하여 이웃 주민의 범위를 정하여 보상토록 하고 교정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맨 마지막층 및 노대 등)은 교정을 원칙으로 한다.
- 8) 벌금 형식으로 된 보상은 반드시 실제 이득 또는 재산피해 금액 이상으로 부과, 그 일부를 지방세로 할당함으로써 지방 자치 재정에 일익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한다.
- 9) 이 판결 회의 기구의 행위 역할 범위를 분명히 정하여 소임이 아닌 행위 내용에 대하여는 단호히 배제함으로써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4. 개선에 따른 사회 발전적 효과 및 의의

민주 제도의 정착 요구 추세가 현 시대 현 시점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이제는 국가의 물질 문명적 발전이 국가의 행정적 관리 주도형 체계로서는 그 한계점에 도달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활전반에 대하여 세세히 간섭하여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정책은 그 관리 책무가 너무 방대해져서 사회 관리업무 능률이 저하되고 또한 관리자측에서는 권위와 부정심리가 생기고 민간측에서는 소극적 책임 심리가 유발되어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작금의 비대해진 사회적 제현상을 질서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 스스로의 책임 능력을 진작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주거생활을 담당하는 건축행위 분야면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책임 능력을 시험삼고 발전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사회 관리제도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유익하고 그 파급 효과도 지대할 것이다.

이 제도의 운영으로 국민은 부지불식간에 민주주의의 본질인 권리 행위에는 반드시 그 책무가 따른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민주 사회에서는 나만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 이웃과 함께 모두가 권리의 주체이며 따라서 소위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도 개발된 국민 모두의 준법정신 및 책무 이행능력이 사회 관리를 능률적으로 하게 하는 밑바탕이 되며 이 능력적 자질이 모든 사회적 행위의 기초가 될 때 국가의 경제 발전이 확연히 보장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노년층의 주거연속체와 공동체형성

Housing Continuum for The Elderly and Formation of Retirement Community

朴泰換 / 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Park, Tae-Whan

REPORT

I.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2. 연구방법

II. 노년층을 위한 주거정책

III. 노년층의 주거연속체 / 3단계 노인주거 프로젝트

1. 독립노인 계획주거
2. 반의존 노인계획주거 / 노인 서비스주거
3. 노인 간호시설 / 노인 요양시설

IV. 노년층의 커뮤니티 형성

V. 한국형 실버타운의 모형개발

V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노인주거에 관한 건축계획과 설계를 위해서는 어떤 프로젝트이든지 그 주요 목적은 노인들이 거주하는데 있어서 안락하고 행복한 생활이 되게 하는 데 있다.

노인들은 스스로의 정신적, 육체적 변화에 적합한 욕구, 즉 즐거운 환경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을 통한 물리적 보호와 감작스런 이변없이 그들의 감정을 지속시키기를 원한다.

노인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보호, 소득을 높일 능력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비용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보호에 대한 욕구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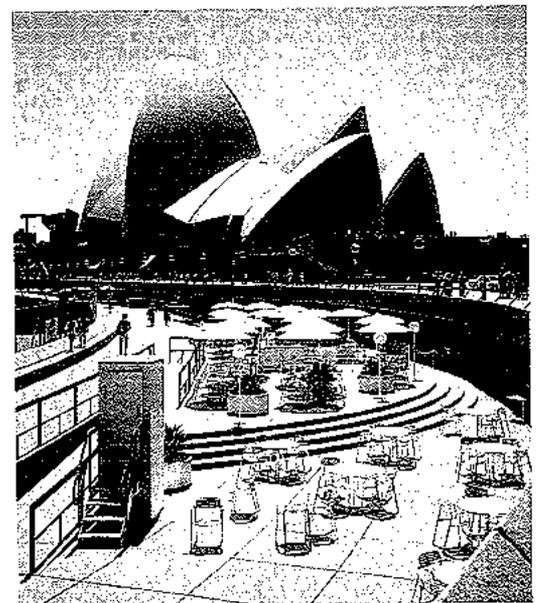
노인 주거에 대한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미래에 직면하게 될 공포를 없애주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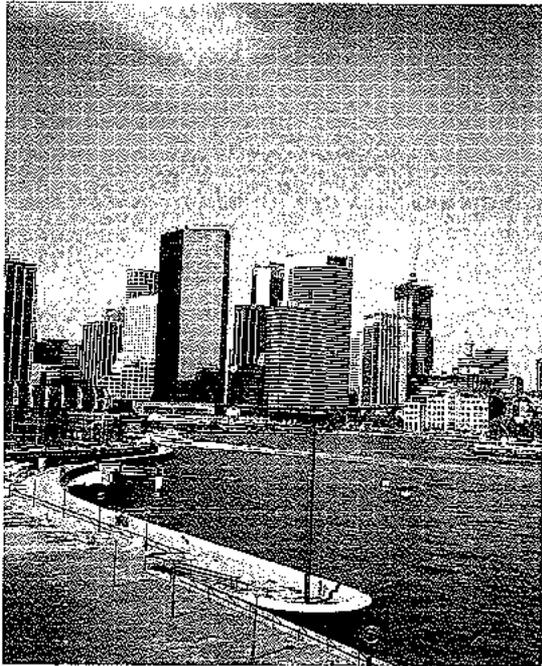
이미 노령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나, 아직 노령에 이르지않은 사람을 위해서 노인주거를 계획하고 설계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본 논문은 노인주거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노인주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하며,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따른 제요구에 부합되는 물리적 시설에 대한 계획지침과 설계기준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알맞는 노인주거프로젝트와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기여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1983년 1월-2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서독,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7개국과 1983년 7월-8월, 1985년 7월-12월, 1990년 1월-2월, 1990년 7월-8월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대학교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건축대학 및 사회정책연구소 (Social Policy Research Center), 시드니대학교 (The University of sydney) 건축대학 및 주택연구소 (Ian Buchan Fell Reserch center) 그리고 트와이빌 종합건축사무소에서 호주의 노인복지정책, 노인주거정책, 노년층의 의학적 보호정책, 그리고 및 가정 및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 (HACC programes) 정책에 관한 자료와 노인복지전담공무원, 노인복지시설 전문설계가, 노인복지시설개발업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입수된 정보와 수집된 실제도서를 분석하고 종합된 내용을 건축계획과 설계프로세스에 맞추어 서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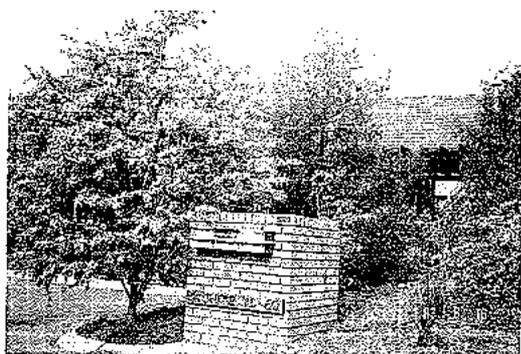
2

3. 연구범위

주거의 적합성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지만, 노인들의 경우 ① 건전한 상태의 집 ②소득의 1/4-1/3정도에서 유지관리 가능 ③ 건전한 이웃관계의 형성 등이 주요 관건이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비이다. 소득에 따라 지불능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노인들에게 주생활과 의료서비스를 복합적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연속체(Housing continuum)는 각자 기호에 따라 완전히 독립된 세대(Independent household)에서부터 완전의존 세대(Dependent household)까지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즉, 독립노인계획주거, 반의존노인계획주거, 노인간호시설로 구분되며(박태환, 1990) 독립노인주거(Housing for Independent Elderly), 독립 및 의존노인혼성주거(Mixed housing for the independent and elderly), 완전의존주거(Housing for the dependent elderly)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이러한 노년층의 주거연속체를 중심으로 노년층의 주거정책과 노년층의 공동체형성에 관한 것으로 한다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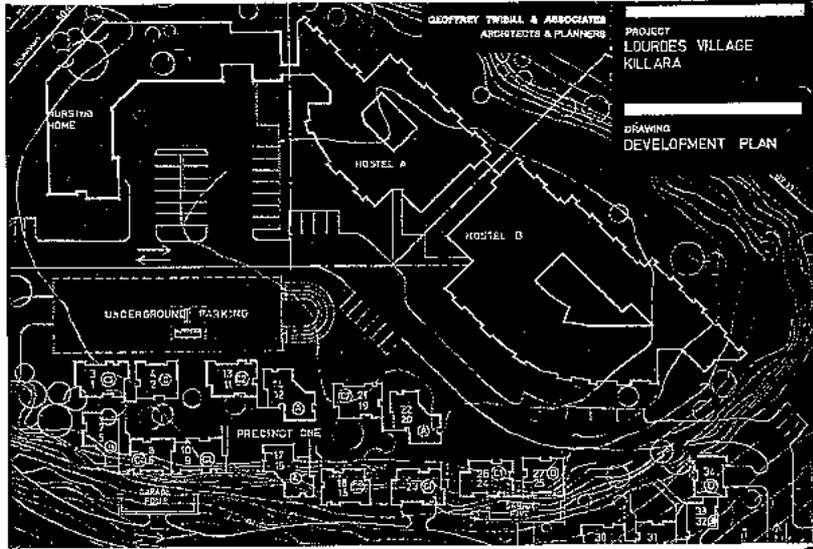
6

II 노년층을 위한 주거정책

- ①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②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州) 시드니항구 전경
- ③ 호주 수도민 캔버라 근교의 노인계획주거
- ④ 호주 수도민 캔버라 근교의 노인계획주거
- ⑤ 독립노인계획주거(빌라형)
- ⑥ 반의존노인 서비스주거(빌라형)

서구의 노인주거정책은 수년간 보호를 위한 격리수용 시설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신질환자들과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구빈원(Poor House)이 그 좋은 예이다.

최근에 정부의 예산지원증가와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로 노인주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많은 연구와 출판등을 통해 노인주거에 대한 발전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노인주거 개발의 중요성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60세 이상의 인구는 2차대전 이후에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유럽의 여러나라에서는 10%이상, 2000년대의 동유럽에서는 20%이상이나 되므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에 미래에는 적당한 주거의 부족이 예상된다.

의학의 발전과 사회적 서비스의 개선으로 인간수명이 연장되고, 노부부를 위한 소규모의 독립주거의 요구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노년층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계획주거 공급의 필요성도 커져간다. 유럽전체의 기본적인 노인주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자기 집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단지 그들의 요청이 있거나 다른 선택이 거절되었을때 시설보호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지역서비스센터의 노인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가정 및 지역 보호서비스 (Home and Community Care Services)의 이용으로 보장된다.

각국의 노년층 주거정책은 아래와 같다. (Goldenberg, 1975 /McRae, 1975 /박태환1990)

1. 네덜란드(The Netherland)

1975년에 네덜란드 전체인구의

① 완전의존노인 간호사설 (Nursing Home)

② 노년층의 공동체형성(노인주거단지)

10.7%(1.45백만)가 65세이상의 노년층이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00년에는 12.1%로 예상된다.

네덜란드에서는 가족들이 노부모들의 보호와 주거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나 자선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1963년 노인주거법(Home for the Age Act)에 노년층들이 자기방식대로 계속생활허용, 건강, 안전, 직원의 수와 숙련정도, 건물의 기능적인 쾌적성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1965년 문화, 오락, 사회복지부의 정책은 노년층의 자립유지, 지역사회내에서 노년층 생활의 통합화 지속, 특별한 요구를 고려한 노년층 주거와 서비스확대 등에 관한 것으로, 노년층들의 요구와 기본적인 재정에 대한 정부의 최고수준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리고 1972년 노년층 보호를 위한 "Five-year Plan"은 노년연금의 구조개선, 주택, 서어비스확대에 관한 것으로 시설단거나 교회 또는 자선단체 등에서 사회정책의 수행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노년층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는 자선단체에 의해서 수행된 음식배달, 연금생활자의 워크샬과 시간제 고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주일 또는 하루에 몇시간씩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 그리고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노년층에게 가사조력제공과 중앙정부의 노인복지협의회와 지방당국의 직원과 시설의 은퇴준비를 위한 지역훈련 프로그램서비스센터 설치, 운영 등이 있다.

노년층 주거정책의 주요내용은 보호된 주거시설에 이사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오래도록 자기 집에 머물면서 생활하도록 장려하는 데에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노년층(약 85%)이 가족들의 주거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다. 주택계획부(Ministry of Hosing and Physical Planning)에서는 노년인구의 다양함과 주거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에 따라서 노년층의 주생활대비에 있어서는 최대한 독립생활을 우선하도록 하며, 오래된 이웃과 어울릴 수 있고 모든 연령층과의 사회적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고밀도 주거를 피하게 하고, 주생활 방법에 있어서 개인적인 변화와 자유를 보장하는것 등을 주거 선정시의 고려사항으로 제안하고 있다.

바람직한 주거유형의 개발 필요성과 함께 가능하다면 자기의 옛집에서 오래도록 머물러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적당하게 개선된 주택의 제공, 가사조력과 가정보호서비스제공 그리고 의료, 교육, 오락, 문화, 개인적인 간호프로그램을 세우고 있는 지역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에서 개발한 노년층의 주거선택은 ①자기 집에서 생활

②기존지역사회내의 소형 임대아파트
 ③노년층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거 ④서비스 아파트 ⑤노인양로시설이나 노인간호시설이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주거나 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것을 노년층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지역사회에서는 복합된 단지(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2. 덴마크(Denmark)

덴마크 사람들은 노년층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대해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70년에 65세이상 노년인구는 전체인구의 12.3%, 1980년에는 13.8%이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78%가 도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산업혁명은 젊은이들을 도시노동력으로 투입하게 하고, 노년층들은 혼자 소외되어 독립생활을 유지할 재정적·물리적 능력이 없이 농촌에서 일하면서 자기 집을 관리하게 되었다.

산업화의 영향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전체인구의 75%가 도시인구가 되었으며 노르웨이나 핀란드는 60%정도이다. 이러한 도시성장은 주거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1981년 노인조력법(Old Age Assistance Act)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노년층들이 자기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기를 허용하며, 더 이상 자기 집에 머물면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거제공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주거는 기존의 주거, 서비스센터나 간호시설에 근접된 서비스 아파트와 함께 혼재된 특별한 실비를 갖춘 아파트 형태가 보통이었다.

1960년 노년층을 젊은층과 분리시키는 정책에서 젊은 가족들과 함께 통합시키는 정책으로 변경한 것이 "Mixed-age Program"인데, 다층구조아파트의 일층에 노년층들이 거주하게 한 것이다. 젊은 가족이 노년층들의 주거와 연결되어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었다. 이것이 "Collective House"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형태의 개념은 노년층들에게 젊은 이웃과 함께 상호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1968년 노인연금법(Old Age Pensioners Act)에는 노년층들이 친숙한 주변환경에 머물러서 가능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공통적인 욕구를 감안하여, 노년층들이 자기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사조력원에 의해서 가사조력서비스나 병원에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는 노년층들에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받게 한 것이다. 또다른 서비스프로그램에는 음식배달, 주간간호시설이나 주간간호센터의 개발 등이 있다.

최근에는 물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재정지원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애나 질환노년층들이 생활하기에 부적합한

기존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에 의해서 욕실이나 부엌의 분턱제거, 통로확장, 경사로설치, 승강기설치등을 통해 가능한 한, 자기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기존주거를 변경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히 설계된 주거개발을 하여 노년층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노년층들에게는 돌발적인 변화없이 그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갖도록 필요한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정상화 프로그램인 "Normalization"은 은퇴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는 열쇠가 되고 있다. 그것의 사회적인 정책인 ① 연금, 임대비 보충 등 재정지원 ② 가사조력과 가정간호서비스 제공 ③ 물리적 요구와 변화에 적합한 연금생활자 주거개발 ④ 반의존단계에서 완전의존단계의 보호시설의 개발 등이다.

3. 스웨덴(Sweden)

지리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이나 인구는 가장 적으며, 인구의 고령화는 다른 도시 보다 빠르다. 1976년 65세이상 노년층은 전체인구의 14.4%이며, 1990년에는 16.8%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적인 변화, 노인인구의 증가, 취업여성의 비율 증가로 정부당국에서는 노년층 부양의 책임이 증대하고 있다. 국가예산의 40%를 사회적 서비스에 지출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순수입의 20%를 복지서비스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노년층을 위한 특별서비스망의 방대한 조직이 형성되어 1966년 11,000명, 1972년에는 60,000명의 가사조력원이 있어 노년층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식사배달, 교통서비스, 이동도서서비스 그리고 은퇴준비프로그램 등이다.

노년층보호에 대한 기본태도는 ①정상화 ②스스로의 의사결정 ③유도와 참여 등이다.

대부분의 스웨덴의 노년층들은 자기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65세이상 노년층의 88%가 일반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정부의 주택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애자들의 요구에 적합한 주거를 이용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는 특별히 설계된 연금생활자의 보호시설이 전통적인 "Old Folks Home"에서 "Residential Hotel"로 발전한 것이다. 여기서 Residential Hotel은 수용보호의 성격을 배제한 일종의 서비스 아파트이다.

4. 노르웨이(Norway)

1975년 65세이상 노년층은 11.8%, 1990년에는 13.9%에 이를 전망이다. 인구의 2/3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년층의 부양은 전에는 가족의 관심사로 국한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정부의 책임으로 정부에서는 노년층인구의 증가에 대비해서 보호시설과 주거를 개발하고 있다.

1845년 주정부나 지방당국에서 구빈원을 제공하였으며, 종교단체, 비영리조직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홈을 개발하게 되었다. 1936년 노년연금은 70세이상 노년층에게 지급하게 되었다가 1967년 National Insurance Legislation 규칙에 따라 67세이상 모든 노년층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또 1964년 노년층 보호위원회에서 가사조력서비스, 보건과 사회적 시설의 개선으로 노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노년층의 보호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는 행정당국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Ministry of Social Affairs의 주요정책은 ①독립노인의 생활보장, ②노년층의 지역사회내 융합 ③노년층들의 요구에 따른 특별서비스 제공으로 자기 집에서 생활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한 재정지원(난방설비수선, 급수시설 개선 자금 지원) 또는 주택의 신축자금지원 등으로 노년층을 도와주고 있다. 사회적 서비스는 가사조력, 음식배달, 방문간호서비스, 주간간호센터 이용 등이다.

주거선택은 Social Service Center와 동일한 단지에 건립된 특별주거, Service Flats, 그리고 Residential Home, Nursing Home이 있다. 특히 Residential Home은 음식 배달, 세탁, 물리치료, 제한된 의료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센터에 인접되어 있다.

5. 영국(Great Britain)

영국의 은퇴연령은 남65세, 여60세로서, 1981년 65세이상은 7,8백만으로 총인구의 15%에 해당된다. 75세이상 인구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영국에서는 (Department of Enviroment)(DOE)와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DHSS) 두개의 정부단체에서 노년층들의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책임을 지고 있다. DOE에서는 주택을 담당하고, DHSS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 주택부서의 노력에 참가해서 노년층주거는 자원단체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 600개 이상의 주택협회가 노년층들의 주거개발에 관여하고 있다. 가장 큰 주택회사인 Anchor Housing Associations에서는 1968년에 7000세대이상 완성한 바 있다. 이들 주택협회에서 개발된 주거는 "Flat"라고 불리워지는 아파트 단위세대이다.

질병과 외로움과 가난이 노인의 3고로 부각되면서부터 사회적 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과거에는 많은 노년층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재배치를 강요받았으나

대다수 노년층들이 자기 집에서 머물러 있기를 더 원하고 있으므로 최근의 정책은 가능한 현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가사조력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건강서비스 등이 있으며, 여기에 추가해서 식사배달, 주간간호센터 그리고 교통서비스가 있다.

6. 호주(Australia)

호주는 공무적인 목적으로 남자65세, 여자60세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게된다. 총인구의 12%이상이 이 집단에 속하며, 65세 이상은 총인구의 10%에 이른다.

호주는 현저하고 확실하게 노인들의 사회복지를 개발시키고 있다. 소득지원, 간호서비스, 주택과 생활대책, 사회복지 서비스 등 각 부분에 걸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1981년 5월 현재 노인인구의 93.6%인 1,331,100명은 노인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공공시설에서 시설보호를 받는 경향이 높다. 이 현상은 75세 이상의 여자중에 더 많다. 시설보호노인의 77.6%는 75세 이상이다.

소득별 노년연금생활자의 독립된 생활을 위한 저렴한주택인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의 요구는 공급의 수준을 넘고 있다. 1979, 80년 연금 생활자중 공공주택의 입주응답자 1/3만이 입주되었고, 같은 해에 노인연금생활자의 13%만이 공공주택에 입주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들이 사실 임금주택시장에서 노인주거를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호주의 N.S.W주 주택부(Dept.of Housing)에서는 계획주거를 도시지역사회내의 주거지역에 통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거의 질을 높여서 계획된 주거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노인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완전히 분리시킬 경우 노인들이 고립될 우려가 있으며, 더욱 격리된 노인들의 새로운 환경의 부적응문제 등 사회적, 심리적 문제가 생기므로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통합의 개념에서 개발된 노인주거는 이원주거(Dual Occupany), 통합주거(Integrated Housing), 복식주거(Duplex Housing), 연결계획(Linked Units Schem), 그리고 혼합주거(Mixed age Housing)가 있다(탁태환, 1990)

Ⅲ. 노년층 주거연속체/3단계노인주거 프로젝트

1. 독립노인계획주거

독립세대의 거주자는 자기 스스로

주거관리(House keeping), 조리(cooking), 그리고 개인적 보호(Personal care)를 할 수가 있다.(New comer, Lawton, Byert, 1986)

즉 노인독립주거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독립해서 조리, 세탁, 청소, 자기 몸을 돌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쾌적성, 사용성을 실현한 주거형태이다. 이러한 주거는 공동주택, 테라스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준단독주택이다.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주택과 생활대책을 위해서는 재정적 해결의 뒷받침과 함께 노인 개인의 특성, 교육정도, 부양형태, 생활양식의 차이 등이 중요시 된다. 가장 큰 과오는 연령 외에는 공통성이 없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일괄해서 처우하려고 하는 점이다.

노인들의 생활특징인 건강약화, 불안감증대와, 소외감 증대에 수반해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반영과 건축적 구상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주거의 집합규모, 주거와 간호의 복합필요성, 주거의 위치, 이상적인 거주자수, 분리와 혼재의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형적인 노인이 없는 것처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다.(서의택/박태환, 1984)

대부분의 기존주거가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이며, 빈약한 주거의 질, 높은 주거비,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의 부족 등을 이유로 노인들이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충분한 주거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는 노인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박태환, 1984)

가. 노인독립주거의 개발규모(Number of dwelling units)

개발의 규모는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노인주거단지가 건립된 곳에는 경제적 요인이 우세하고, 젊은층과 노인집단이 바람직하게 혼재된 곳은 사회적 요인이 틀림없이 우세하다.

영국에서는 노인주거를 12-30거주단위로 집합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이다. 이 정도의 규모에서는 거주자의 사회화를 위한 바람직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며, 관리인이 입주자를 손쉽게 돌볼 수 있게 하며 수용시설의 삭막한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덴마크에서도 초기의 사회적인 이유로 대규모 프로젝트는 더이상 건립하지 않으며, 비슷한 이유로 스웨덴은 분산된 공동주택(scattered flats)을 정책으로 옹기고 있다. 스웨덴은 많은 연금생활 노인들의 공동주택 규모가 3층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대규모로 나아가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토지가 부족한 탓으로, 고밀도의 현실적 요구에서 파생된다.

이러한 구조는 12층이 보통이다. 그러나 각 층의 입주자의 수는 소규모이다.

미국에서는 경제적인면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대규모로 하고 있다. 토지가와 관리비용이 소규모 프로젝트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주거 요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새로운 개발의 규모는 비교적 적은 규모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에도 6-32 거주단위의 소규모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거주단위수는 100-150이 바람직한 것이다.(서의택/박태환, 1984)

나. 대지조건(Site Factor)

노인들을 위한 다른 유형의 프로젝트에 공통되는 대지조건은 위치, 방위, 지형적 특성 등이다. 위치(Site location)는 적당한 간격으로 대지 구입이 가능해야 하고, 노인주거가 다른 지역 시설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위치라야 한다. 즉 지역사회의 생활권내에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들이 태어난 친숙한 주변환경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다. 친척과 친구들, 상가시설과 다른 지역 서비스시설에 접근된 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노인주거는 병원이나 의학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은 소음과 사람들의 왕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놀이터와 근접해 있을 경우 소음외에도 창문이나 정원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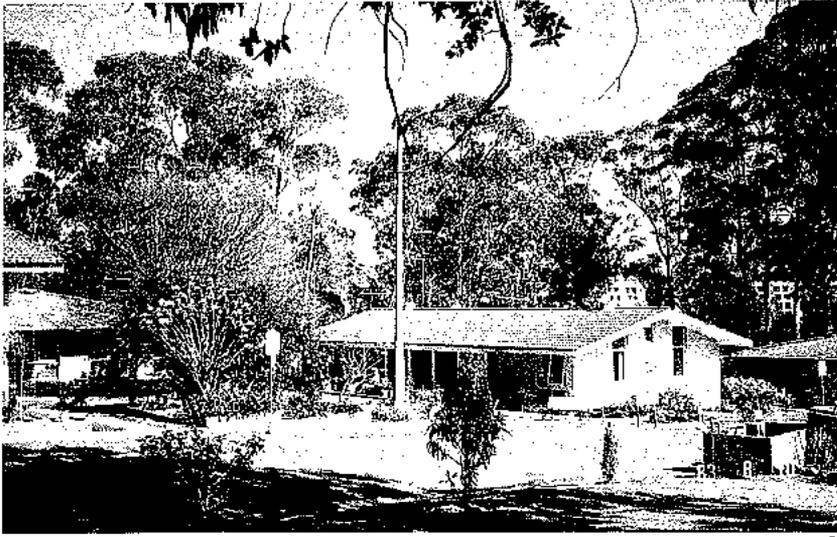
방위(Site Orientation)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많은 시간을 단지 않아서 밖을 내다 보면서 보내므로 즐겁고 유쾌한 조망이 필요하다. 침실과 거실은 남, 동남, 또는 남서에 면해서 언제나 햇빛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형적 특성(Topographic factor)은 경사가 심한 비탈에서의 대지접근은 피해야 하고, 거주단위의 접근은 최소한의 계단으로 오를 수 있게 계획 해야 한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정원꾸기 등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서의택/박태환, 1984)

다. 구조의 유형(The type of structure)

노인주거의 구조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서구의 여러나라에서 개발된 유형은 단일 가족의 단독주택, 테라스주택, 다층구조, 고층구조 등이다. 이 중에서 계단을 오르는 수고를 덜기위해 단층과 2층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리고 토지가 부족한 시가지 가까운곳에서는 밀도를 높이기 위해 승강기가 있는 고층구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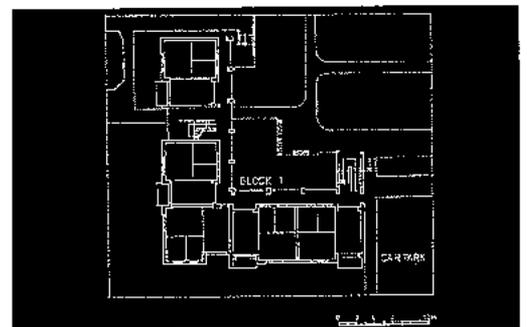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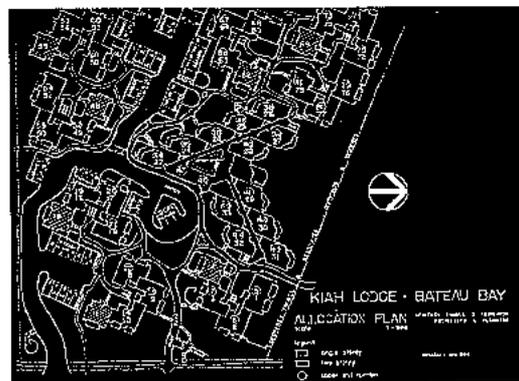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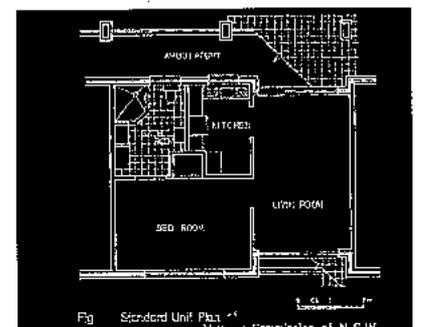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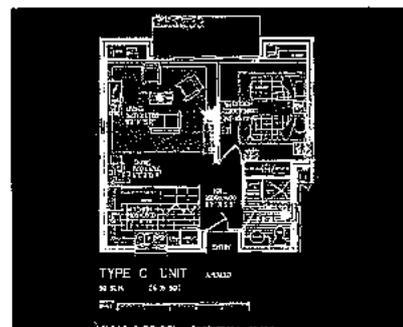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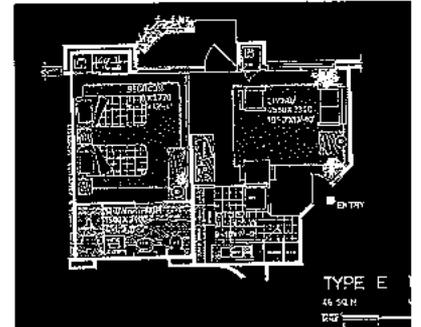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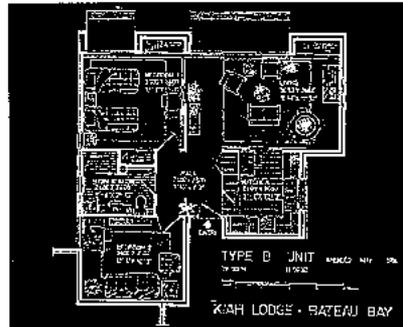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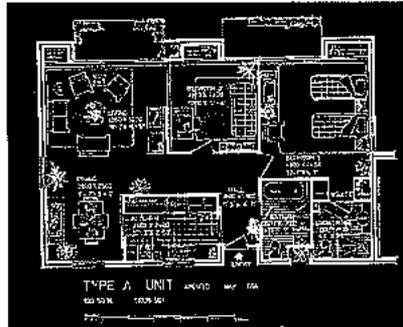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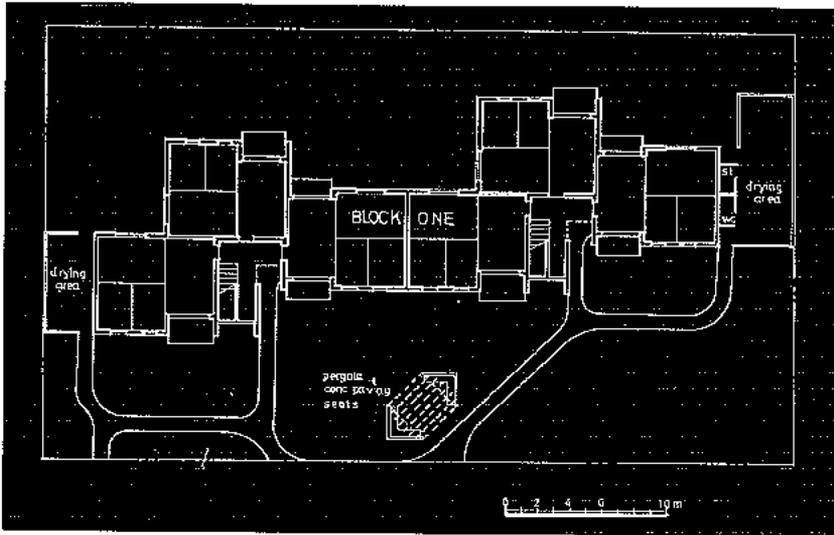
또한 승강기가 없는 건물의 1층에 노인들을 위한 거주단위를 배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서의택 / 박태환, 1984)

라. 단위평면 (unit plan)

일반적으로 주택의 공간구성은 공동생활공간, 개인생활공간, 가사활동공간과 부수공간으로 되어 있으나, 노인독립주거에서는 거주자의 능률향상과 건축비의 절감을 위해서 주거공간을 집약화하고 있다. (박태환, 1984)

침실과 거실이 1실을 이루고 여기에 욕실이 부속된 침·거실형 (1실형: Bed sitting Room)은 대부분의 노인독립주거의 기본을 이루고 있으나, 많은 거주자들이 침실과 거실이





분리된 형태를 원하고 있다.

호주의 뉴사스웰리즈 주택부(N.S.W dept.of Housing)의 "Waterloo" 프로젝트에서는 1실형과 2실형의 비율이 7:1 비율이나, 대부분의 1실형 거주자들이 2실형을 원하는 경향이어서 노인독립주거의 표준단위평면을 그 실형으로 하여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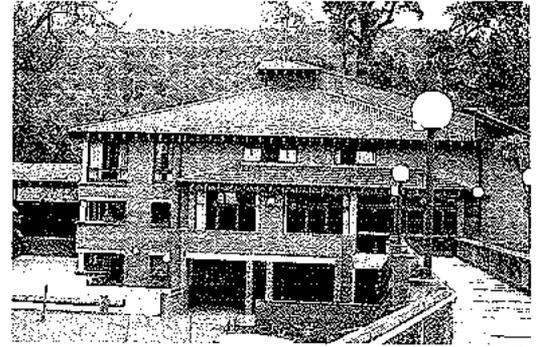
주거단위의 규모는 각나라별로 서로 다르나 영국에서는 독신형이 32.6㎡-33㎡, 부부형이 47.5㎡-48.5㎡이며, 덴마크에서는 독신형 33㎡-38㎡, 부부형 42㎡-50㎡이다. 미국에서는 1침실형이 35.3㎡, 2침실형 46.5㎡, 호주에서는 부부용 51.69㎡이다. (박태환, 1990) 그리고 주거단위의 배치형식중 거주단위를 연결하는 복도형식인 회랑형(Ambulatory type)은 비·눈이 내렸을 때나 기후의 변화에 피해없이 각 거주 단위로 통행할 수 있는 복도가 건물의 내면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그 안쪽은 중정(안뜰)이 되게 한다. 이 경우에는 상호 이웃관계의 형성(Family Groups)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6-12세대 정도로 집합되게 배치하고 있다.

6~12 세대의 소규모집단이 포도송이 모양의 군집상을 보이고 있는 뿔기형(cluster type)도 복도형보다는 많은 옥외공간을 확보하므로써 역시 이웃관계(Family Groups)를 형성하게 된다. (박태환, 1984)

마. 안전설비 및 보조시설

노인들은 심신의 제기능이 저하되어가므로 비상사를 고려하여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쾌적하고 즐거운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옥내외의 부수시설, 실내기온, 환기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격방지과 지속적인 안정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소득감소 또는 소득원의 단절로 인한 재정적 곤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건축계획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보행을 지장을 주는 출입문의 문턱을



제거하거나, 모든 통로에 미끄럽지 않은 마감재료를 선택해야 하고, 계단과 비탈진 곳에는 손잡이설비, 위험이 내포된 지역에는 조명장치, 욕실과 침실의 경보장치, 열손실방지와 작동의 용이성을 고려한 창문,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출입문, 안전성을 고려한 부엌취사용 연료 등이다.

특히 노인독립주거단지의 보조시설로는 관리사무소를 독립주거의 각 거주단위에서 가깝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중앙위치에 두고, 각 거주단위에 경보장치를 연결시켜 종합관리하게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일축하나 크리스마스 축제를 위해서 대·소규모의 공용실을 제공하고있다.

그리고 노인독립주거에 관계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방문자들이 묵을 만한 공간이 없으며, 그러한 공간은 노인들이 아픈 기간에는 특별히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침실하나를 더 두고 있다. 평소에는 서재(study room)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공용식당을 두어 거주자가 자기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나, 친척·친구들이 방문했을 때는 공용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외에 공용세탁실 및 세탁물건조장을 설치한다. (박태환, 1984)

- ④ 노인부부주택(단독주택형)
- ⑩ 노인부부/독신노인을 위한 계획주거(빌라형)
- ① 노인계획주거의 출입구부분
- ② 노인계획주거의 외부부분
- ③ 노인부부와 독신노인을 위한 주거단지
- ④ 노인부부세대단위 평면도(A형)
- ⑤ 노인부부세대단위 평면도(B형)
- ⑥ 노인부부세대단위 평면도(C형)
- ⑦ 노인부부세대단위 평면도(D형)
- ⑧ 노인부부세대단위 평면도(E형)
- ⑨ 노인복지주택의 세대단위 평면도
- ⑩ 배치계획(복도형)
- ⑪ 배치계획(뿔기형)
- ⑫ 노인복지센터
- ⑬ 노인부부/독신노인을 위한 계획주거(공동주택형)

도쿄도신청사와 도쿄의 최신프로젝트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
New Project in Tokyo

金文德/전국대학교 실내디자인과 교수
by Kim, Moon-Duck

1. 도쿄의 과거, 현재, 미래의 건축상

도쿄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도쿄의 도시미는 1923년의 대지진과 제2차대전 종전 무렵의 전화(戰禍)를 고비로 하여 그 기초부터 변하기 시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도시의 무화(無化)상태에서 도시부흥 정비계획의 확립을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1958년 건조된 도쿄 타워는 그 이전의 메이저(明治)신궁과 야스쿠니(靖國)신사 등 근대화이후의 내셔널 모뉴먼트를 대신하는 상징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천황 부세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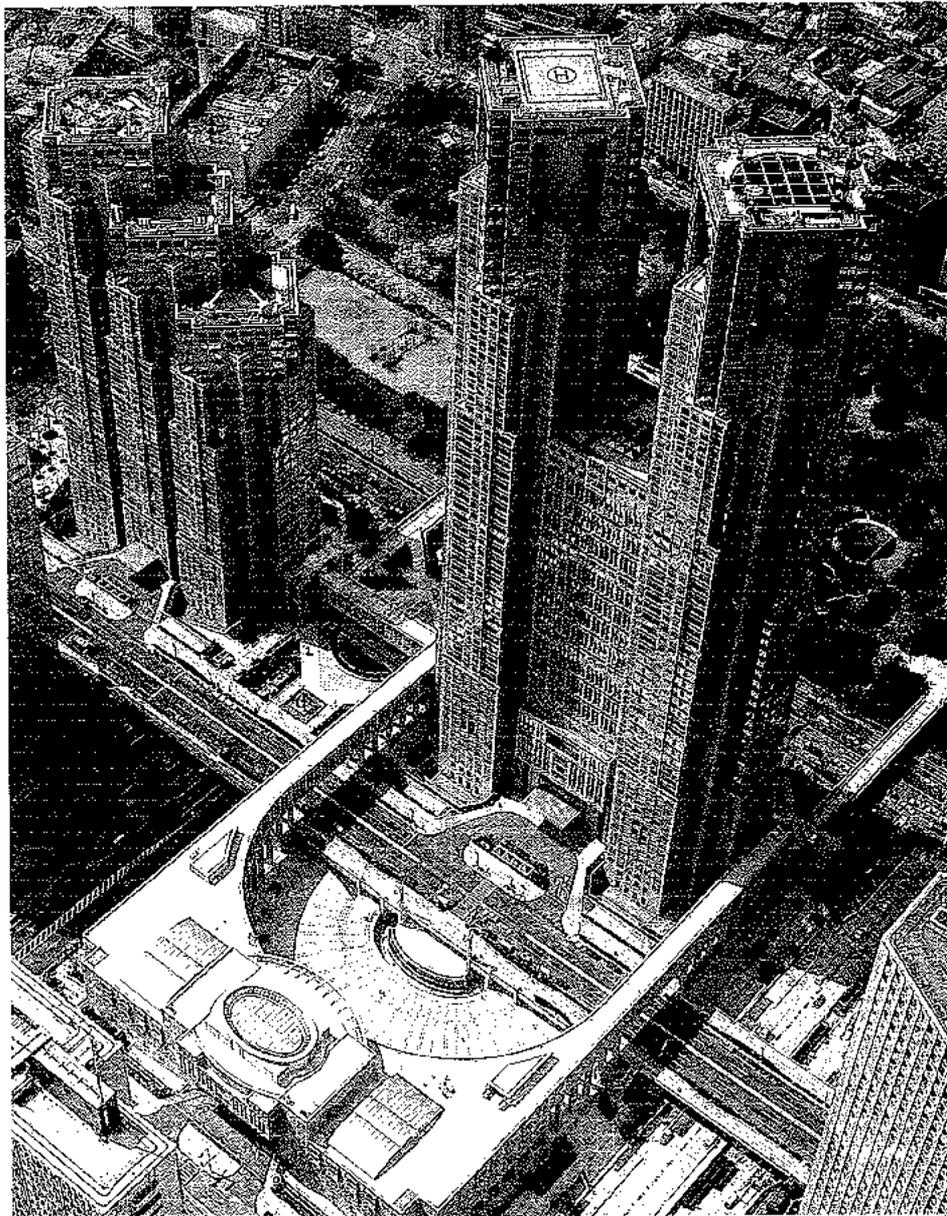
이런 과정을 거쳐 가장 도쿄 개조에 공이 컸던 것은 1964년의 도쿄 올림픽이었다. 도(都)내의 대규모 부지의 확장화에 의한 토지의 의미전환, 수도고속도로의 정비, 동해도(東海道)신판센 부설에 의한 도쿄의 일핵(一核)집중화를 실현했으나, 수도고속의 건설에 의한 고가고속도로에 의해 공공적 명소가 도시의 시계(視界)에서 매몰되는 문제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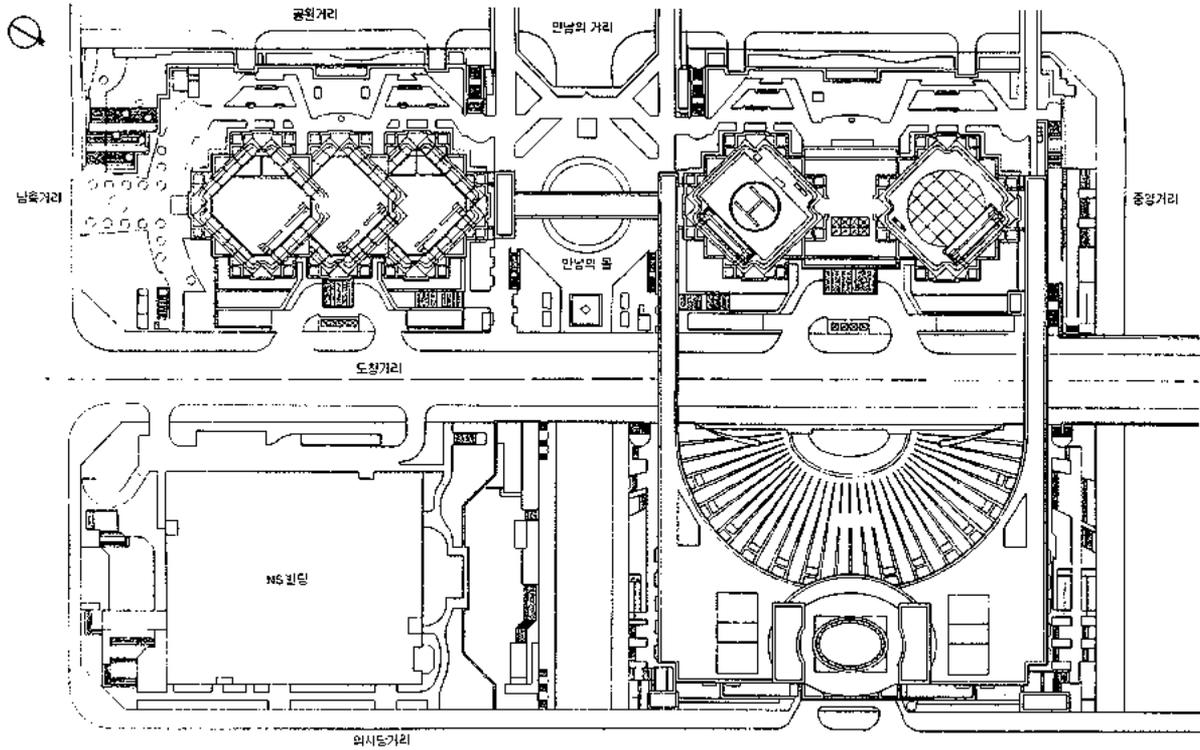
“1990년

신주쿠(新宿)에 단게 겐조(丹下 健三)설계의 신도청사가 완성되었다. 이것에 의해, 도쿄는 일본이라는 물리적 국토에서 이탈한 하나의 정보도시로서의 자체심볼을 갖게 된다.

신도청사의 문제는 디자인 자체만이 아닌, 그것이 상징하는 정보도시=도쿄의 존재양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히코사카 유다카(彦坂 裕)





2

유발시켰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걸친 디미널문화, 기대산업환경과 교통거점의 정비라는 건축적 작업은 80년대 전반의 포스트모던의 유행과 엮어져 화려하게 도쿄를 시작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이것은 80년대 외국인건축가 붐과 상업시설의 공간프로듀스 붐을 유발시켰다.

특히 80년대 후반 도쿄 다즈니랜드의 오픈이나 마부하리(幕張) 메세의 오픈은 이런 도쿄의 액티비티를 가시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즉 도쿄는 기업주의의 영토이고 수동적인 소비형 인간을 위한 부화장치를 입증시켰던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와 도쿄 자체는 파리가 그렇듯 프로젝트Grand Prfoject에 의한 도시를 활성화시켰던 것처럼, 도쿄 부도칸(東京 武道館 : 1990), 도쿄 체육관(1990), 도쿄도 가사이(幕西)임해공원(1989), 도쿄 예술극장(1991), 도쿄도신청사(1991), 도쿄 하루미(晴海)객선 터미널(1991)같은 빅프로젝트를 속속 완성시켜서 엔고에 의해 활성화된 도쿄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즉 대형 문화시설 프로젝트, 항만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기타 부도심계획은 종래의 도쿄의 건축적 상황을 일신시킬 만큼 그 규모나 진행속도에 있어 과거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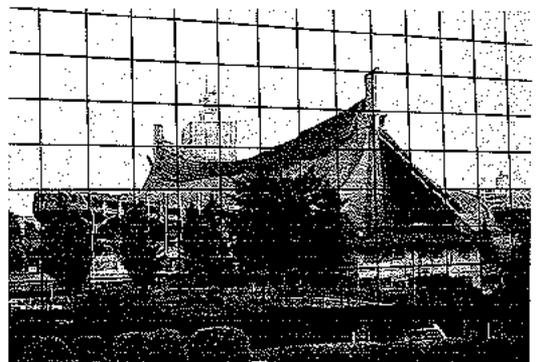
그리고 현재 완공된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완공예정인 제2국립극장(야나기사와 다카히코 : 柳澤孝彦 설계), 도쿄 인터내셔널 포럼(Tokyo International Forum/라파엘 비놀리 : Rafael vinoly), 밀레니엄 타워(Millennium Tower/노만 포스터 : Norman Foster), 도쿄도 에도(江戸) 도쿄박물관(기쿠다게 기요노리 : 菊竹 清訓), 도쿄도 신미술관(야나기사와 다카히코)등이 완공되면 도쿄는 비록 불협화음적인 도시적 상황을 노출하고 있지만, 새롭게 대두할 것이며, 필자는 그 귀추를 주목해보고 싶어진다

- ① 북동측 공중에서 본 도쿄도신청사 전경
- ② 배치도
- ③ 도쿄의 건물창에 비친 올림픽 실내체육관

2. 신청사는 91년의 도쿄 화재거리인가?

「일본판 노트르담」—본관만 48층, 도쿄도청사 “호화판” 구설수—1990년 7월 14일 국내의 국민일보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새 청사는 시티홀로 21세기를 향한 수도 도쿄의, 그리고 국제협력도시 도쿄의 「자치」와 「문화」그리고 「국제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라는 스즈키 슌이찌(鈴木俊一) 도쿄지사의 말을 인용한 이 기사내용은 신주쿠에 자리잡은 이 (243m)의 청사가 1천4백4십8억엔(한화 약 6천5백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 지하 3층과 지상48층의 제1본청사와 지하 3층, 지상 34층의 제2본청사, 그리고 지하 1층 지상7층의 지방의회동이라는 3개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약5천㎡의 도민광장이 부가된 매스 스트럭처임을 전하고 있었다.

형태가 노트르담 사원의 느낌이 든다고 하여 “일본판 노트르담”으로 불리는 이 전형적인 포스트모던풍의 신청사가 기사화된 것은 현재 국회의사당 연면적이 5천3백㎡이고 총리관저가 2천7백㎡인데 비해, 19만5천㎡라는 연면적의 매머드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함께 궁전 같은 시설과 노른자위 상권에 관련된 이권에 따른 구설수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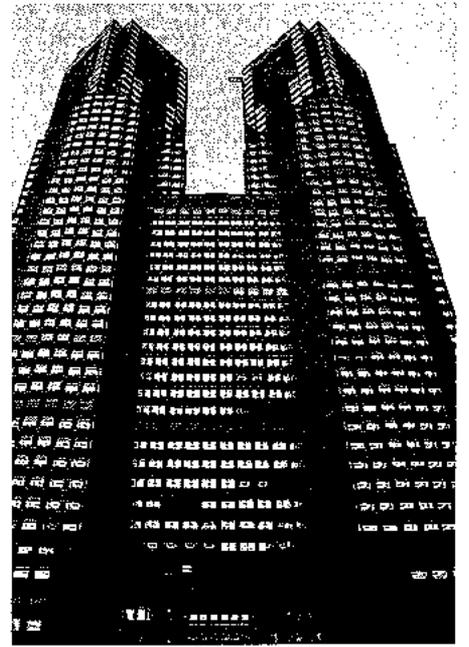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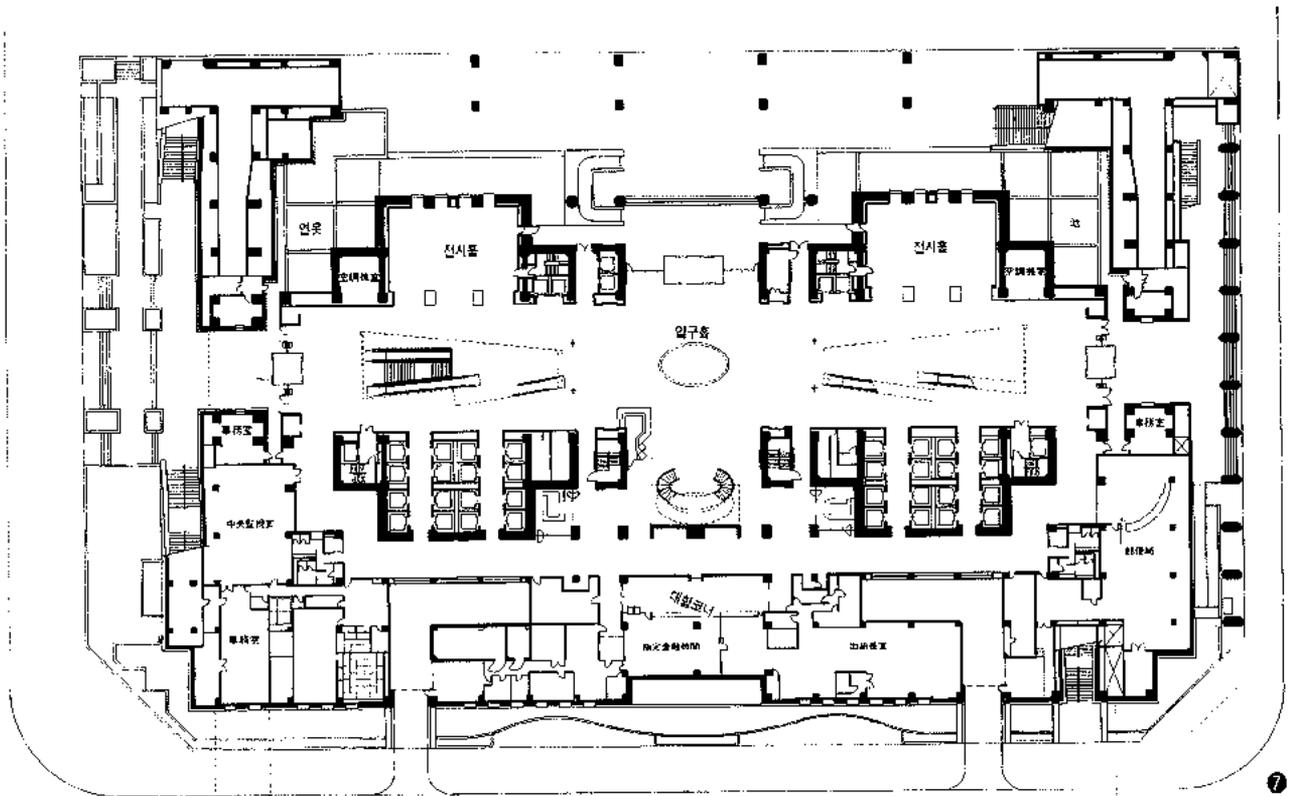
4



5



6



7

하여간 완전히 개관하기도 전에 이런 구설수가 따랐다는 것은 청사로서는 유례없는 규모 때문이기도 했지만, 도쿄도민과 매스컴의 이 신청사에 대한 호기심의 정도를 표현하는 해프닝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완공후 도민들에 대한 개방에 의해 호화관이라는 구설수는 불식되었고, 매일마다 이 신청사의 스카이라운지에서 도쿄시내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려는 관람객들로 장사진을 이루게 하는데 전술한 구설수가 커다란 광고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필자는 주야간에 이 신청사를 방문한 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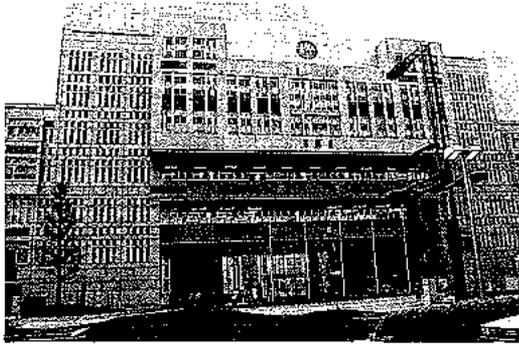
- 4 신청사의 제1본청사 전경
- 5 측면에서 본 제1본청사
- 6 야간의 제1본청사
- 7 1층 평면도

있었지만, 특히 일요일날 방문했을 때, 늘어진 관람객들의 장사진에 놀라서 감히 스카이라운지에는 올라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저층부의 홀정도만 구경하였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신청사의 건축적 면모를 살펴 보기로 하자.

신청사의 입지적 조건은 신주쿠 도심지구의 3개 부지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서측은 신주쿠 중앙공원의 녹지에 면해 있어, 도심지에 위치하면서도 비교적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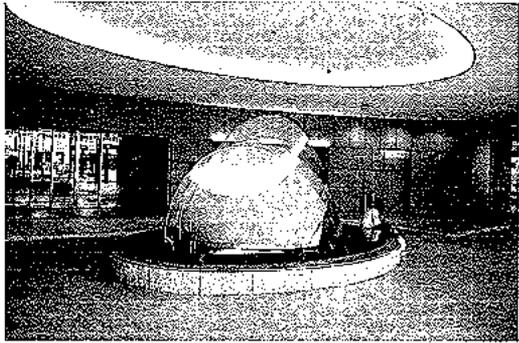
또한 부지에 인접해 있는 신지하철 12호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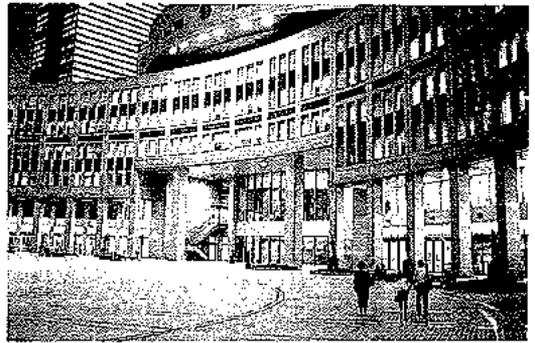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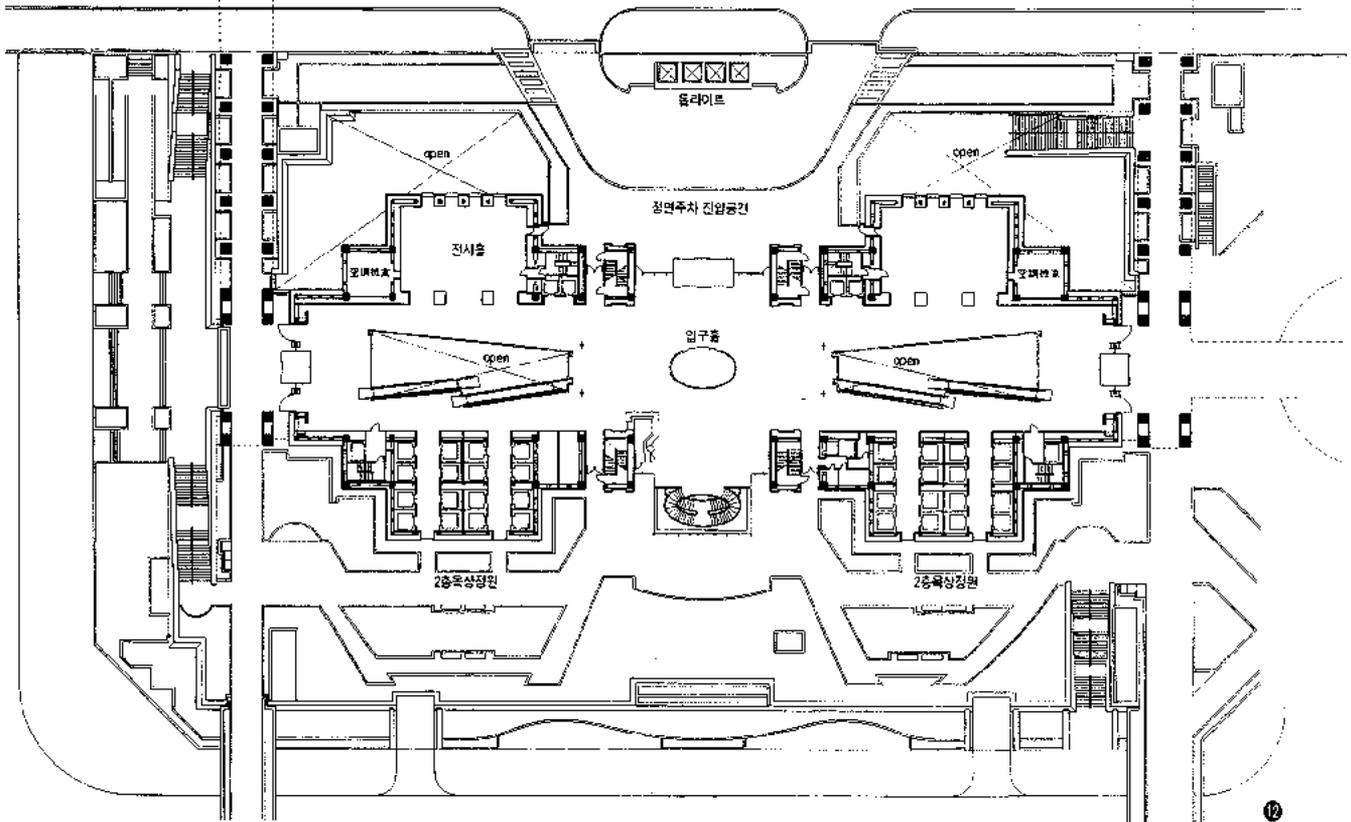
⑩



⑨



⑪



⑫

신역이 1994년말 완공되면 교통상황도 상당히 호전될 것이다.

인접한 3개 부지의 각 동들은 오버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제1본청사와 지방의회동 사이에 반타원형의 중앙광장을 배치하고 상부는 오버브릿지에 의한 구조물로 둘러 싸서 광장의 공간감을 강화시키고 있다. 광장의 중앙무대를 향한 완만한 구배에 의한 경사처리는 이 광장공간의 구심적 구성을 강화시키면서 무대에서 행하는 퍼포먼스를 더욱 동적으로 느끼게 하는 공간적 장치로 계획하고 있다.

- ⑧ 지방의회동측에서 본 청사
- ⑨ 의회동로비의 조형물
- ⑩ 로비의 전시장
- ⑪ 야간에 바라본 광장에 면한 아케이드
- ⑫ 2층 평면도

제1본청사는 243m의 트윈타워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의 1920년 아르데코식의 마천루처럼 3부구성을 취하고 있다. 제1본청사 좌측면에 위치한 제2본청사는 163m의 높이로, 3단의 계단식 형태를 취하면서 제1본청사측을 향하여 순차적으로 낮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제1,2본청사는 일체감을 이루면서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특색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의회 의사당 상부에 있는 본회의장은 휴먼스케일상에서 볼 때, 원통형이라는 상징적 형태와 위치를 점하고 있다.

외장계획은 에도시대 이래의 전통을 지닌 도쿄의 문화성과 세계 최첨단의 도쿄의 선진성을 이미지화하려고 시도하여 전통적인 개구부의 패턴과 집석회로라는 선진적인 패턴을 조화시키고 있다.

외장재는 청사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과 유지관리 및 안전성이 높은 화강암을 선택하였으며 외장의 FC 판넬은 3.2×4.0m의 사이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제1본청사 9층까지와 제2본청사 4층까지의 저층부는 석재마감의 표현을 의식하여 조인트폭35mm의 에도시대의 디테일을 사용하고 있다.

저층부에는 중후한 인상을 부여하기 위해 콘도라레일 기능을 지닌 스테인레스파이프를 부착하여, 시각적으로도 경쾌한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오피스 계획에 있어서는, 행정적 측면에서의 도시구조의 고도화, 복잡화, 도시기능의 집적을 고려한 신속정확한 정보교환이 필요하게 되어 21세기를 향한, 환경적 설비적으로도 새로운 타입의 사무실환경의 조성이 요망되었다.

따라서 기능분화한 스페이스를 모두 무리없이 내포가능한 후렉시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6.4×6.4m의 평면형 코어를 하나의 수퍼기둥으로 조성하고 제1본청사는 약 10층 마다 1층 분해 해당하는 트러스빔을 수퍼보로 조성한 대가구형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 구조에 의해 사무공간이 19.2m의 내스팬을 지닌 무주공간으로 실현된 것이다.

또한 OA화와 조직변경에 대응할 수 있게 바닥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제 후리악세스후로어에 타일카페트로 마감하는 것이 전사부실에 채용되고 있다.

기준층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된 것은 코너윈도우부에 맞는 공간의 설정이다.

각 층 서측 중앙공원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는 휴게코너는 커피숍과 휴식, 담화를 위한 공간으로 김무중 기본전환을 위한 공간으로 배려하고 있다.

특히 엘리베이터코어, 실비코어, 화장실 등을 서쪽에 배치하여 에너지절약의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각 층의 오피스는 두 개의 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1.5m의 낮은 칸막이의 원형으로 구획된 오리엔테이션 존으로 유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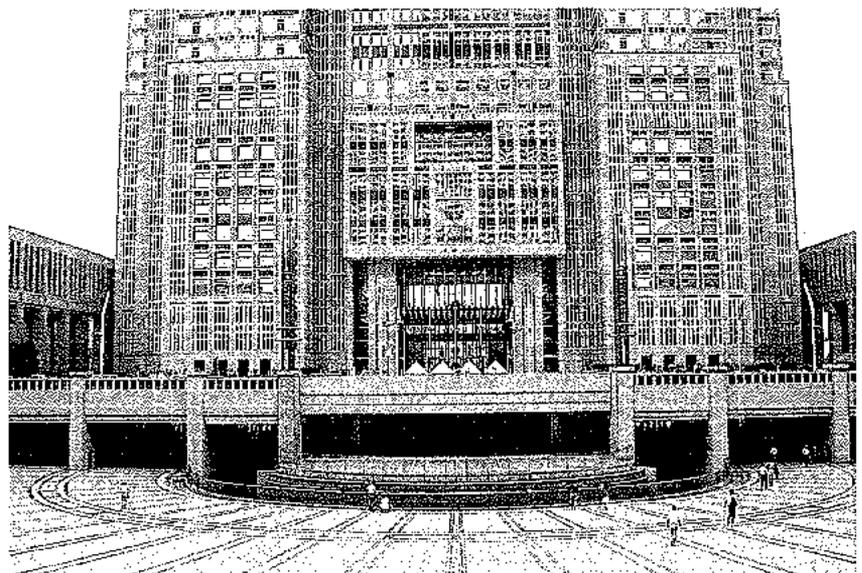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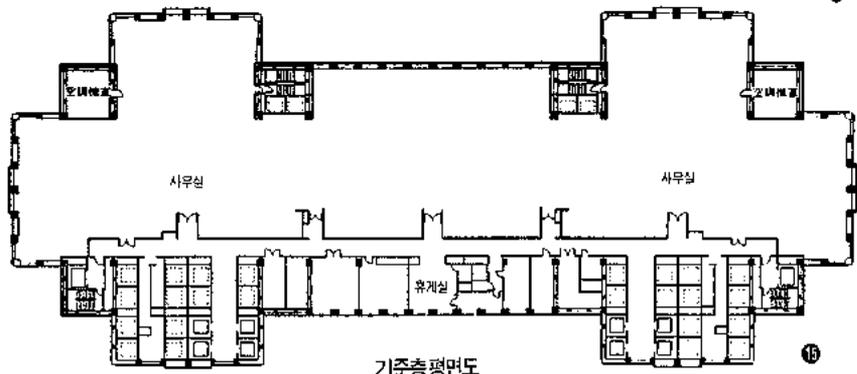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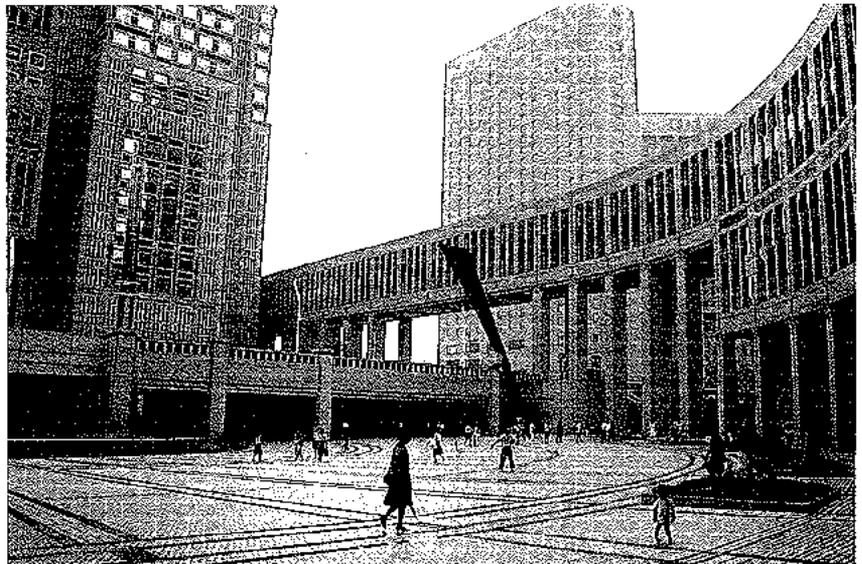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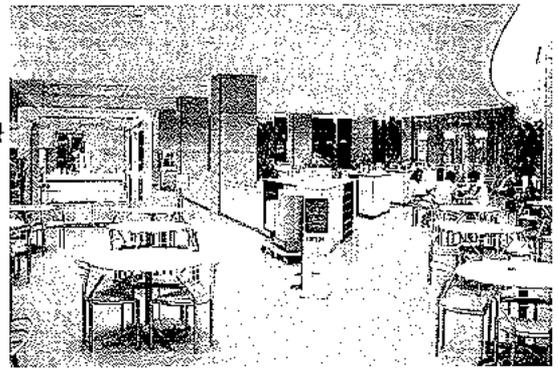
조직배치도,내선전화가 부착된 정보포스트가 안내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수납카운터, 접객공간, OA코너 등은 일반존으로서 높이 1.3m의 낮은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다.

3. 단계 겐조! 일본 현대건축계의 대부

단계 겐조하면 일본건축계에 있어,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산 증인인 동시에 대부라고 할 수 있다.

프란시스 코플라의 「대부」에서의 돈 코를레오네 같이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도 의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단계 겐조라는 인물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아마 일본식으로 말한다면 야쿠자의 보스일지도 모르지만

- ⑩ 광장측 아케이드에 면한 카페테리아
- ⑪ 광장측 아케이드
- ⑫ 기준층 평면도
- ⑬ 제1본청사 저층부 스테이지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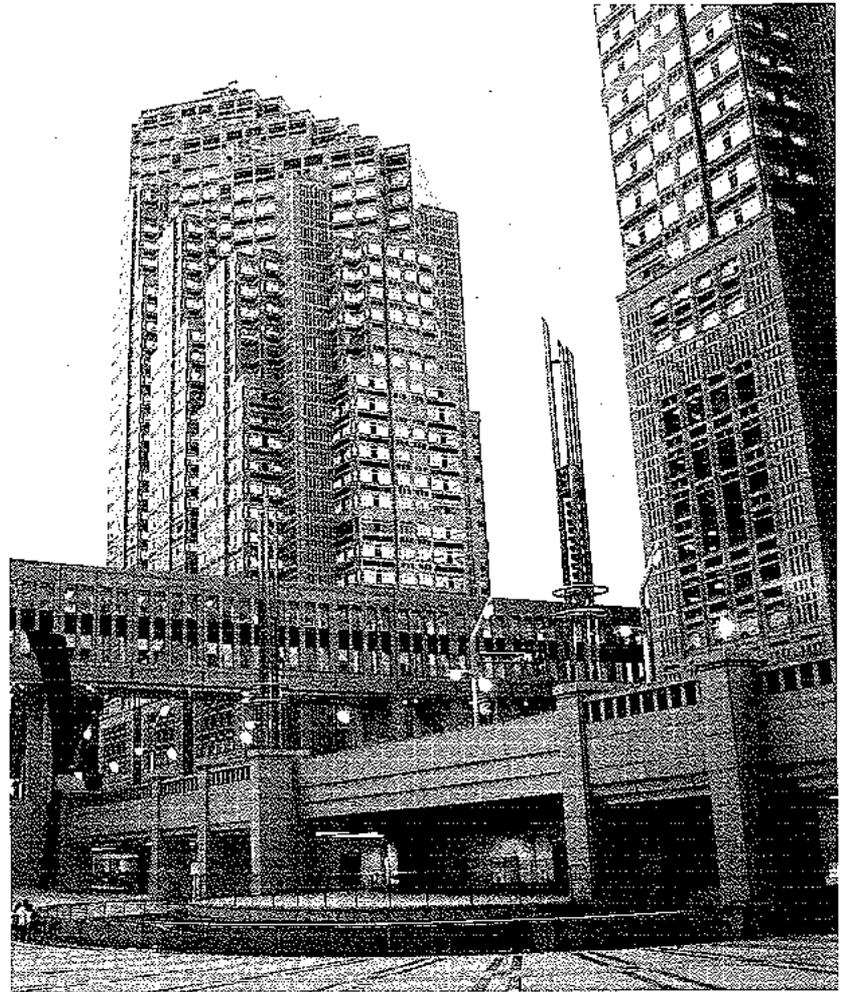
1913년 출생, 1938년 도쿄대학 졸업 및 마에가와(前川國男) 사무소 입소, 1945년 도쿄대학 대학원 수료, 1946년 단계 겐조 연구소 설립 및 도쿄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조교수, 1963년 동대학 공학부 도시공학과 교수, 현재 도쿄대학 명예교수가 그의 이력이지만, 그 이력 후면에는 건설한 도쿄 올림픽을 위한 건축물과 오사카 만박(萬博)을 위한 건축물... 그리고 도쿄도신청사에 이르기까지 그의 건축물이 일본건축계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 그의 이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현재 이소자키, 구로가와, 기쿠다께, 마끼같은 일본건축계의 거장들(그 당시에는 신인들이었지만)의 모임이었던 메타볼리즘 운동의 후원자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현대건축=메타볼리즘의 등식으로 이해하는 구미건축가와 평론가들에게 있어서는(비록 이 신청사도 단계의 스타일이 아니고 사무소의 멤버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뒷이야기가 있지만...) 그를 일본건축계의 거장중의 거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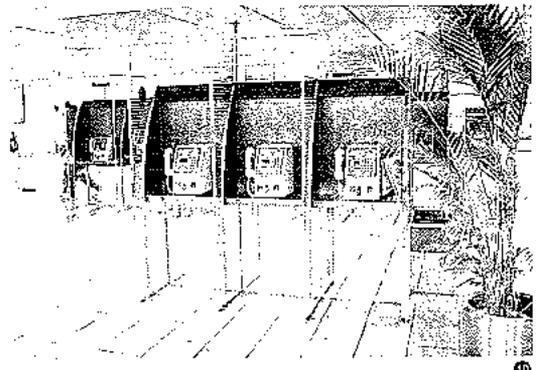
신건축 91년 5월호에 “건축의 장수를 생각하는 시대”라는 제목의, 단계와 이시이 가즈히로(石井和紘)등과의 대화를 읽어 보면, 단계의 마지막 말은 “백년, 이백년의 수명을 가진 건축물로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하나의 명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에서 마치 그 자신의 건축적 생명에 대해 말하는 것 같기도 하였다. 즉 그가 이제까지, 78세의 나이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건축적 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건축적 열정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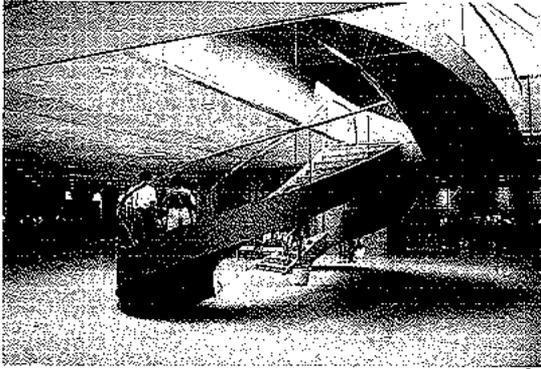
그렇다고 이 신청사에 대한 평이 온통 찬사로만 차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후 기능주의·합리주의에서 탈피」, 「매스컴과 정치의 사이에서」, 「단계 겐조: Right & Wrong」, 「정치의 표현으로서 신청사」, 「오염한 미」, 「오리무중의 한가운데서」등의 신청사에 대한 건축적 평의 제목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반응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신청사는 중앙공원에 인접한 입지적 이점을 살려 도시의



- ㉓ 제2본청사 전경
- ㉔ 야간에 본 제1본청사 주출입구부
- ㉕ 로비의 전화 부스
- ㉖ 제1본청사 로비에서 본 에스컬레이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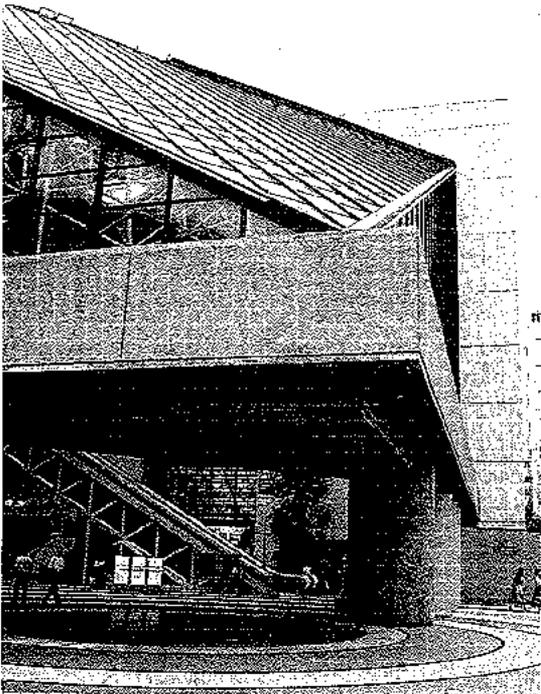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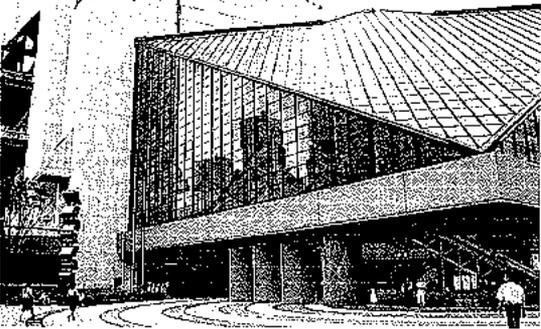
㉑



㉒



㉓



㉔

- ㉑ 제1본청사 로비의 계단실
- ㉒ 도쿄 예술극장 전경
- ㉓ 주출입구 측에서 본 아트라운 부분
- ㉔ 주출입구 부분

랜드마크(Figure)로서의 기념성을 획득하면서 도시의 배경(Ground)을 형성하려는 질감있는 표피를 이용해, 소위 그림(Figure)과 바탕(Ground)적 형태와 텍스처의 양성(兩性)을 공유하는 건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도쿄도신청사의 트윈타워는 절벽끝에 위험스럽게 서 있다.”라는 평이 그 반응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상토론에 의한 신청사의 찬반논쟁을 뒤로 하고 현실의 신청사 광장에 서서 트윈타워를 바라보면, 서구적인 골격위에 일본적인 직조화된 옷을 걸친 것 같은 이 신청사가 보이고, 그 모습이 서구적인 것을 일본화하려는 일본인의 개주처럼 상당히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러나 그 절묘함에 비해 감동의 정도는 반감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국내에서 서울에 새로운 시청사의 현상공모가 시행되어 건설된다면 과연 이 정도 수준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물론 여기에서 단순비교는 위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결국 건축이란 모든 제사회적인 여건의 결집이란 대담으로 질문을 회피하고 싶어진다.

도쿄의 시간과 서울의 시간차는 과연 얼마일까 생각하면서 신청사의 광장을 떠났다.

4. 아시하라 요시노부와 도쿄 예술극장

아시하라 요시노부(原 義信)하면, 국내건축인들은 「건축의 외부공간」이란 책을 기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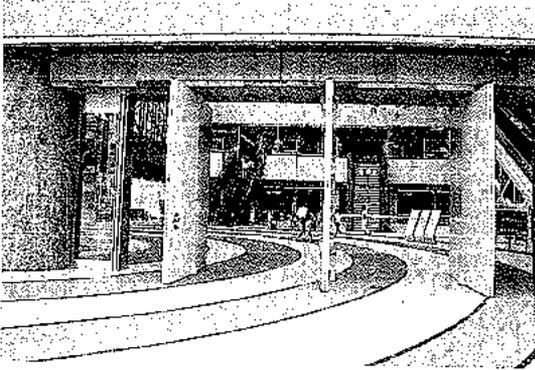
“공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물체와 그것을 지각하는 인간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상호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 상호관계는 주로 시각에 의해서 규정되나 건축공간으로서 생각할 경우에는 후각, 청각, 촉각 등도 함께 관계된다.”는 구절이나 적극적(Positive) 스페이스, 소극적(Negative) 스페이스라는 단어는 필자도 학창시절 그의 책을 통하여 익숙해진 것들이다.

그당시 하바드 대학에서의 졸업논문을 정리한 것이라는 이 책이 많은 건축인들에게 설득력있게 임해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과연 그러면 1970년 미국에서 그의 책을 출간한 이후 현재 그의 면모는 어떻게 변모되었을까?

1918년 도쿄 출생, 1942년 도쿄대학 졸업, 1953년 하바드 대학원 수료, 1956년 아시하라 요시노부 설계연구소 설립, 도쿄대학 교수 은퇴후 1976년부터 설계연구소 운영 및 무사시노(武蔵野)미술대학 교수, 1988년 일본건축학회 명예회원이라는 그의 이력을 통한 변모를 알아 보기 보다는 그의 최근작을 통한 변모를 알아 보는 것이 건축가로서의 그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설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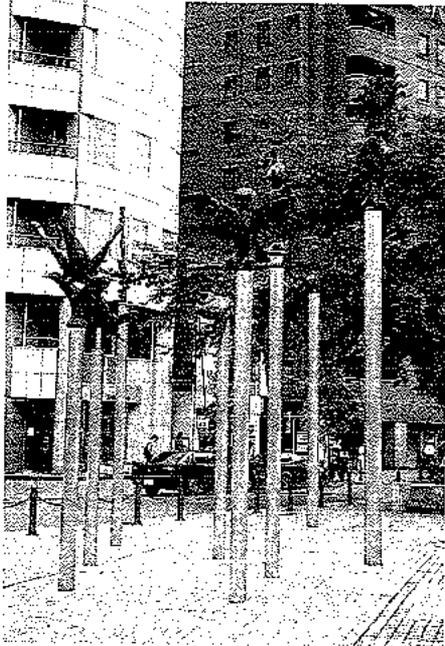
도쿄 예술극장은 「문화도시 도쿄」를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문화환경조성을 목표로 하는 「도쿄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도쿄도가 계획한 것이다.

이 극장은 일류 예술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대예술 감상의 장인 동시에, 또한 창조활동의 거점으로서, 인간성 풍부한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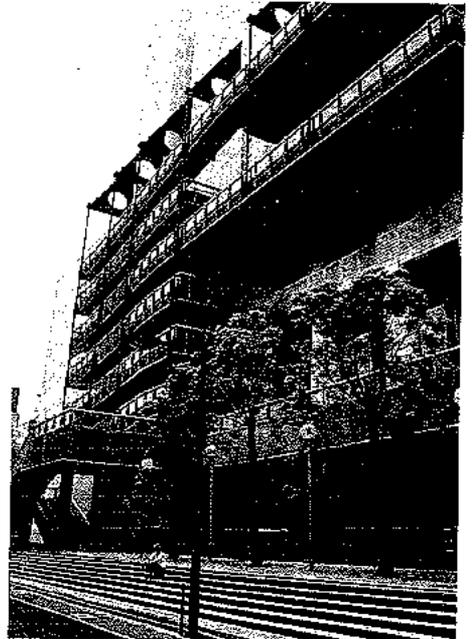
- 25 피포트 힌지에 의한 문
- 26 목의 조형물
- 27 조경에 면한 목의 조형물
- 28 측면부에 매달린 케트와 경사르
- 29 제1본청사의 우측면부



26



27



28

하고 있다.

JR 어제부꾸로(池袋)역전에 인접한 이 문화시설은 대, 중, 소(2개소) 총 4개의 홀시설, 리허설실, 전시갤러리, 회의실 등의 창조적 시설, 레스토랑, 휴게실, 주차장 등 이용자 서비스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이다.

특히 4개의 홀시설에 대해 설명하면, 대홀은 객석 가동석의 고전음악전용의 연주회전용홀이다.

대홀 정면에는 이 홀의 얼굴이기도 한 세계최대급의 파이프오르간(126스톱)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 오르간은 바로크, 르네상스, 로마이라는 3개 타입의 연주가 가능한 동시에 고전과 현대라는 2개의 얼굴을 연출가능하게 회전판위에 세트되어 있다.

이 대홀의 음향에 대해서 설명하면, 홀의 음향조건은 음량감, 음의 명료함, 임장감, 잔향감 등 음의 절적, 양적 울림을 추구하였다.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작업은 물론이려니와 1/10 실물모형에 의한 초기반사음, 측방반사음의 확보, 음압분포, 잔향시간과 그 주파수특성, 유해 에코의 제거 등, 다방면에 걸친 검사가 행해졌다.

그 결과 「풍부하고 중후한 울림」의 홀을 만들게 되었다.

또한 이 홀이 지닌 또 하나의 얼굴이기도 한 천장 대반사판을 설명하면, 이것은 정면반사판(수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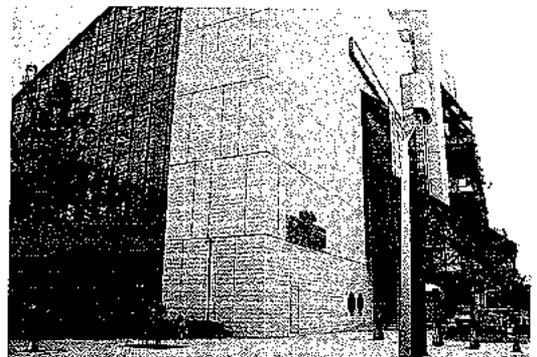
상하작동)과 천장반사판(자유롭게 구배설정 가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중량은 약 55톤에 달한다.

특히 오르간 스테이지 하부에 있는 이동반사벽은 음향의 반사와 흡음의 이중기능을 지닌 이동이중벽으로 휴식시에는 좌우로 열려서 중정을 바라보게끔 계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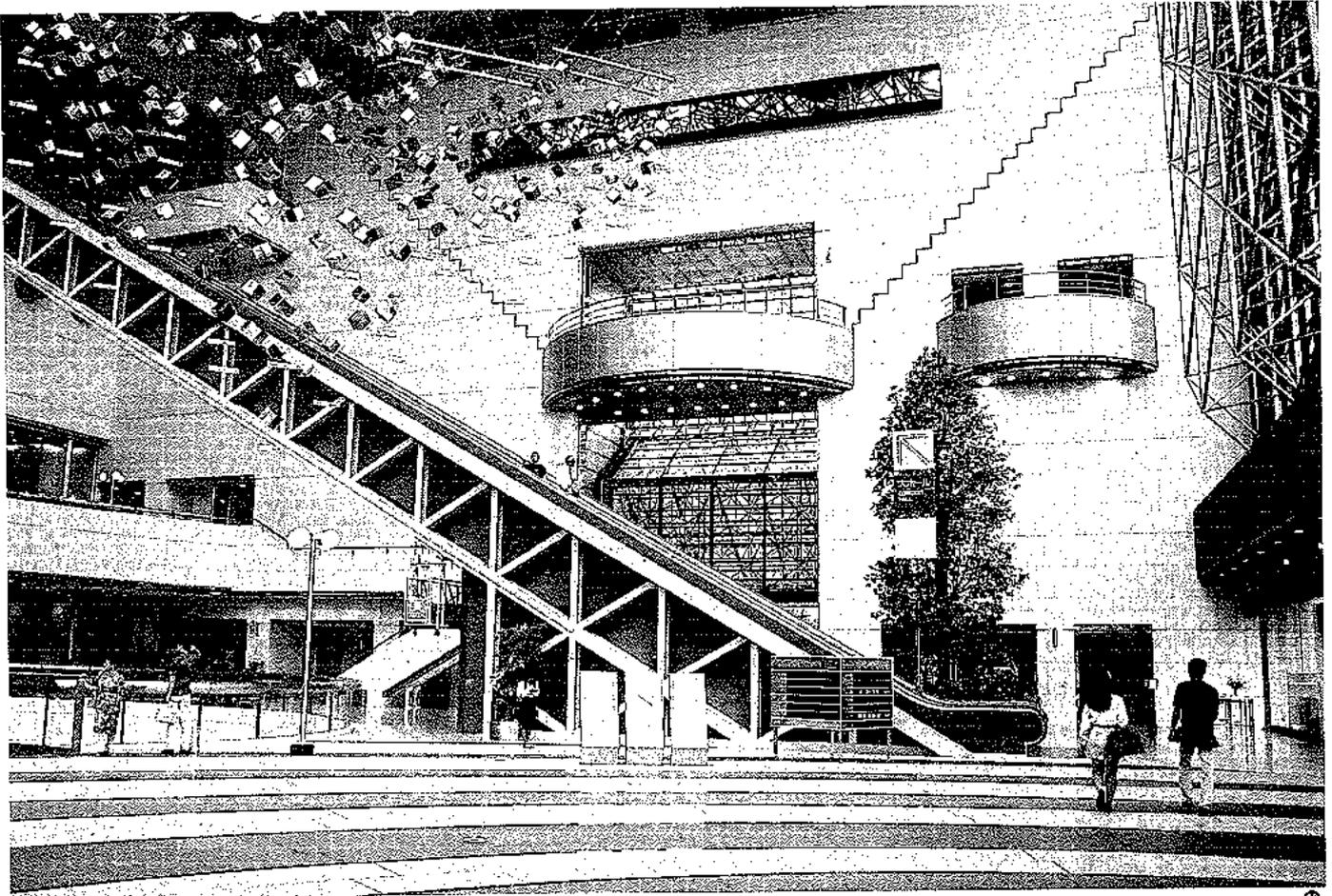
한편 중홀은 객석수 850석의 프로세니움형의 극장으로 연극, 오페라, 발레 등의 무대예술에 대응할 수 있게 고도의 무대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신극, 퍼포먼스, 연주회 등이 가능한 450석의 프리 스테이지와 300석의 아담터블 스테이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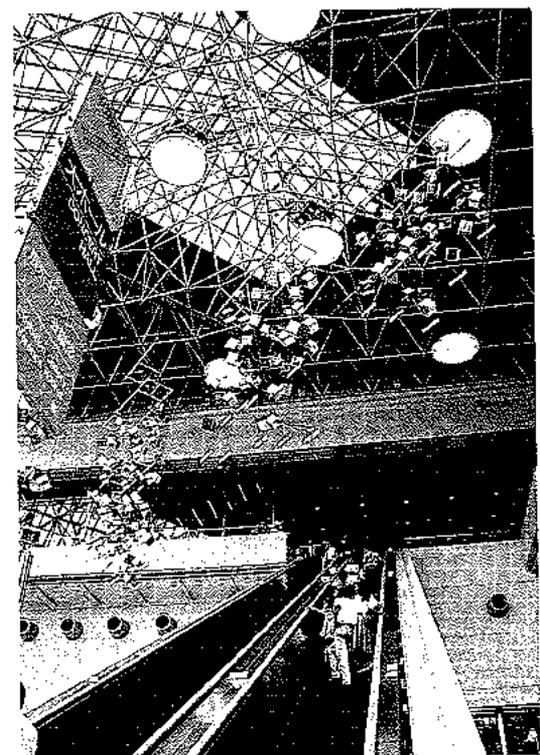
이 4개의 특징있는 홀 외에 예술극장의



29



㉑ 대홀 진입용 에스컬레이터
아트리움에 경시지게 걸쳐 있다.
㉒ 아래서 올라다 본 에스컬레이터



곳곳에는 40여점의 조각품과 회화작품이 설치되어
있어 관람객들을 즐겁게 만들고 있다.

5. 도쿄 예술극장은 예술품의 집합장인가?

도쿄 예술극장의 입지적 조건을 살펴보면, 7자형의 부지를 갖추고 있으며 극장 본체는 직방체적 구성을 지니면서 주출입구 부분과 연결된 커튼월 마감의 아트리움 매스가 광장쪽을 향하여 축을 틀고 있는 형상이다.

마치 쥐를 잡기 위해 머리를 돌리고 목표물을 바라보는 고양이와 유사하다고 할까?

그리고 외부공간의 배치계획에서 특징적인 것은 시각적 공간적 결절점이 되는 곳의 바닥에 동심원적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예술극장의 광장에 들어 서면, U자 지남침형을 서로 상하로 엮물린 것 같은 클레멘트 미도모어(Clement Meadmore)의 거대한 조각물이 눈을 끌고, 후면에는 약간 본체에서 버튼 형태의 경사면이 커튼월로 이루어진 아트리움 매스가 눈에 들어 온다.

외부공간에는 원형의 분수에서 물이 힘차게 솟아 오르고, 남측면의 조정된 면을 따라 스텐레스 폴형 구조물에 지지된 많은 조각물이 시야에 들어 온다.

다가다 다이(高田大)라는 조각가의 작품을 비롯한 조각들이 필자가 문화적 공간에서 있음을 인식케 해주었다.

“건축에 있어서 외부공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자연속에서 자연을 한정하는데서 시작한다.”는



㉑

어느 건축가의 말에서처럼, 그는 자연을 한정시키고, 공간의 구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심원 패턴을 사용한 것처럼 보였고 조경은 그 구심적 외부공간을 둘러싸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가까이 가 보니 전체적인 매스의 조합이 그리 자연스럽지 않았다. 커튼월의 아트리움 매스부분과 장방형의 극장 매스 그리고 측면의 철제 구조물에 매달린 댁크와 경사도가 통일감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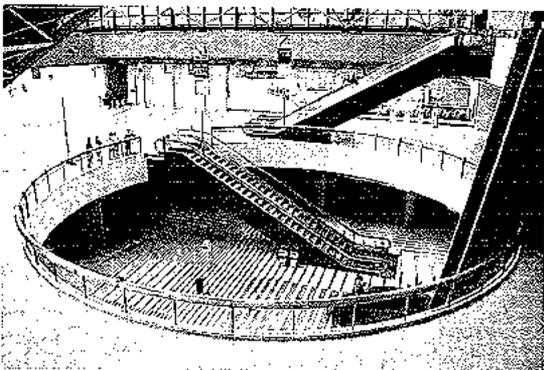
음식으로 말하면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상이지만, 양식과 중식, 일식 등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보니 옥외공간의 환경조각들도 그 양적인 것에 비해서는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출입구쪽으로 가보니 아트리움의 바깥부분은 커다란 크기로, 피보트힌지처리에 의해 열려져 있어 마치 벽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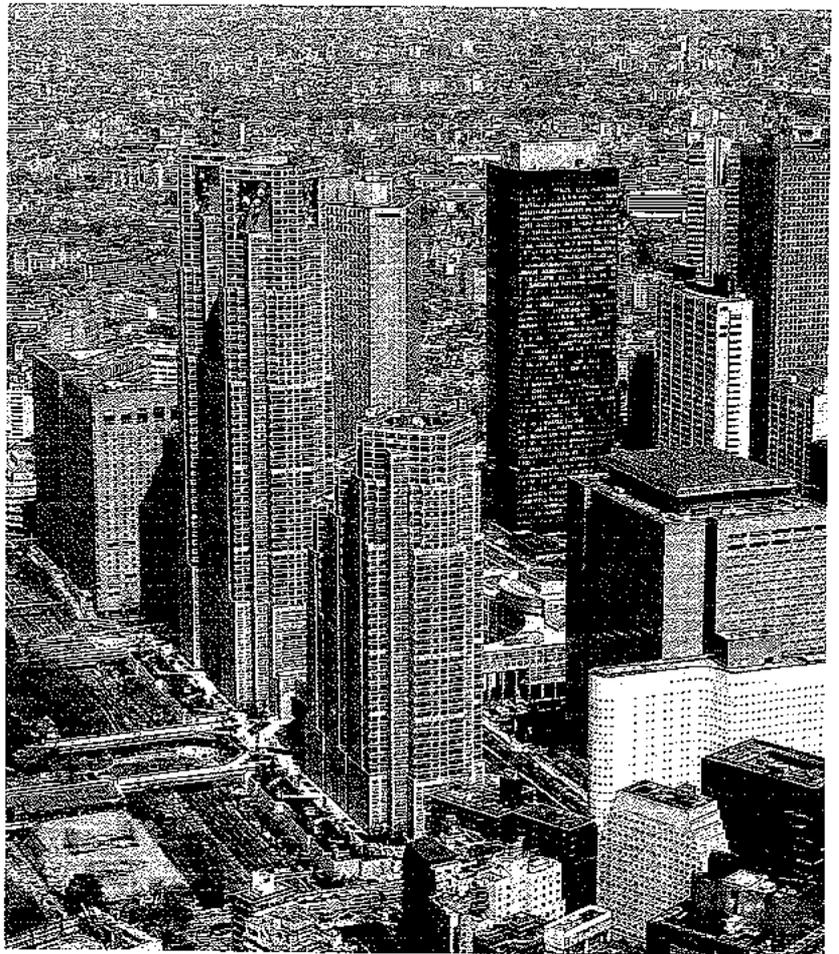
요즈음 국내에서도 로비문화가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예술극장을 처음 설계할 당시에도 이러한 움직임을 염두에 둔 탓인지 문에서부터 일반시민을 위한 로비 개방을 고려한 세심함을 보이고 있었다.

이 문을 통해 들어 서자 거대한 아트리움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로비의 가장 큰 시각적 임팩트는 대홀을 오르는



㉒



㉓

에스카레이터였다.

그리고 아트리움 상부에 매달린 수십 개의 금속 오브제들이 에스카레이터로 대홀을 오를 때, 시각적 즐거움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에스카레이터는 관람객의 시각적, 공간적 변화를 인지케하는 장치인 동시에 그 구조자체가 오브제적 성격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에스카레이터 측면에 도색된 청색이 전체적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원형의 오픈공간에 설치된 에스카레이터를 통해 지하로 진입케 되어 있었으며 그곳의 맞은편에는 오브제가 설치되어 있었다.

대홀로 오르는 에스카레이터를 이용해, 상부로 올라가 내려다보니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그러나 많은 공사비의 지불과 비치된 예술품에도 불구하고 완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다.

아시하라 요시노부의 역량부족일까 아니면 그의 사무실의 스태프들의 문제일까 생각하면서 예술극장을 나와서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 보았다.

“공간의 적극성이라는 것은 공간에 인간이 의도가 충만되어 있는 것, 또는 계획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이란 공간론적으로 말하면 우선 외주의 프레임을 정하고 안쪽으로 향하여 질서를 정리하여가는 사고법이다.”라고 한 건축가의 말을 떠올리면서, 비록 적극적 의도가 내포된

내외부공간이기는 하지만 동심원 패턴과 원형의 남발에 의해 그 효과가 약화된 예술극장을 뒤로 하면서 떠났다.

㉑ 상층관람장에서 바라본 모습
 ㉒ 지하층 진입용 에스컬레이터
 ㉓ 남동측 공중에서 본 신청사 전경

COMPETITION

부산시청사 현상공모 수상작 발표

부산시청사 현상설계 공모결과 일신종합건축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총16개 작품이 응모한 이번 현상공모에는 당선작외에 부림건축+동일건축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신도시건축안과 세진건축안이 가작으로 선정되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일신건축안은 건물의 상징성이 부각된 건물로 오픈스페이스가 많이 확보되어 이상적이고, 배치 및 동선계획이 적절히 계획되었으며, 전면의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 건물의 친근감을 주도록 계획되었다. 청사는 93년에 착공하여 96년 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시청 및 시의회, 경찰청 등이 들어서게 된다.

본지에서는 당선작과 우수작1점, 가작2점을 게재코자 한다.

당선작

일신종합건축(안)

(대표 : 이용홍)

대지위치 :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1402번지 일원

지역지구 : 주거 지역, 공공용의
청사 부지

대지면적 : 80,988.0m²

건축면적 : 29,062.1m²

건 폐 율 : 35.8%

연 면 적 : 114,605m²

시 본 청 : 69,719m²

시 의 회 : 6,985m²

경 찰 청 : 37,901m²

용 적 율 : 122%

건축규모 :

시 본 청 : 지하 2층, 지상 2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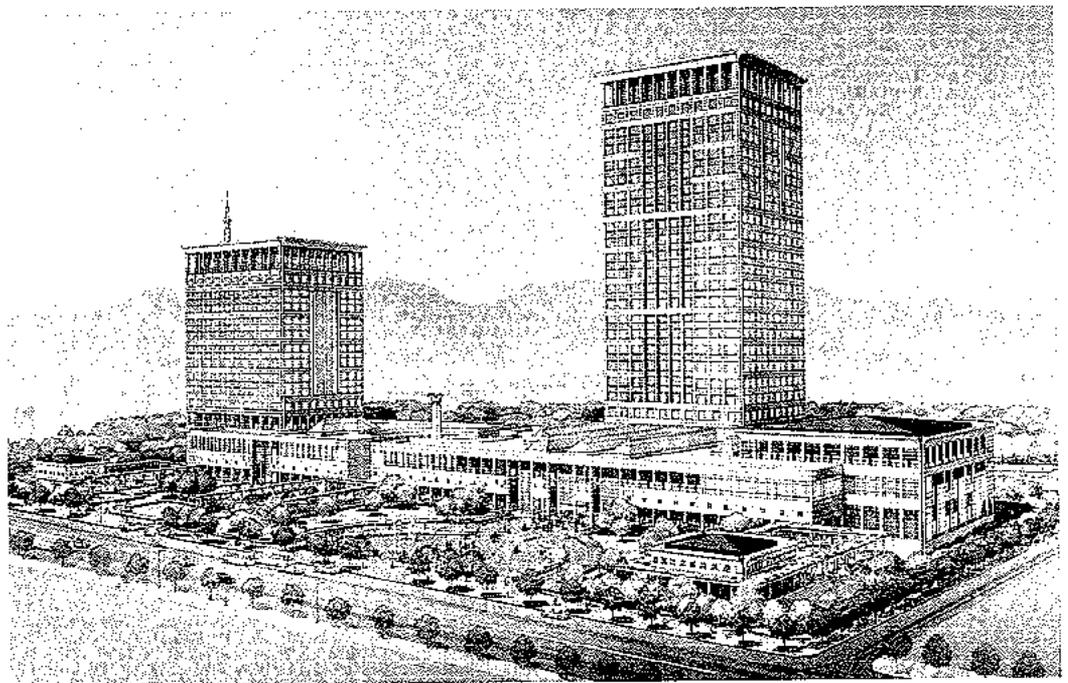
시 의 회 : 지하 2층, 지상 3층

경 찰 청 : 지하 2층, 지상 16층

구조 :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1,420대(육내, 옥외 : 소형
주차, 대형주차,
법정 1,133대)

외장마감 : 화강석 P.C볼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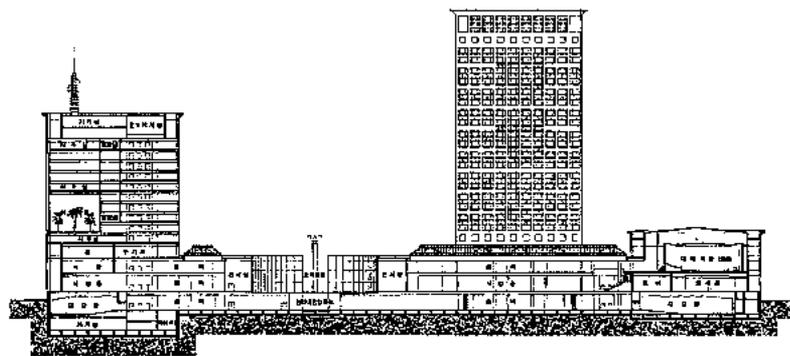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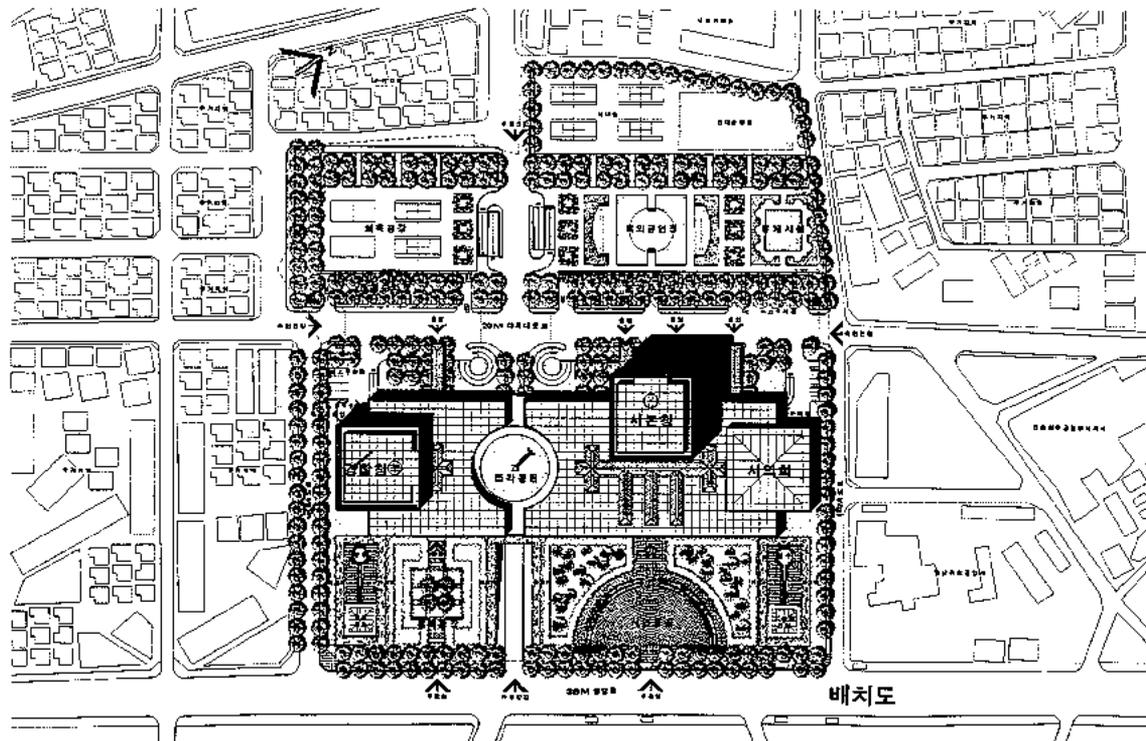
■ 계획 기본개념

본 시청사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이 지역은 부산의 행정, 업무 중심구역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새로운 스카이라인(sky-line)을 형성하여 시청사 건물이 그 중심점이 될 것이다. 부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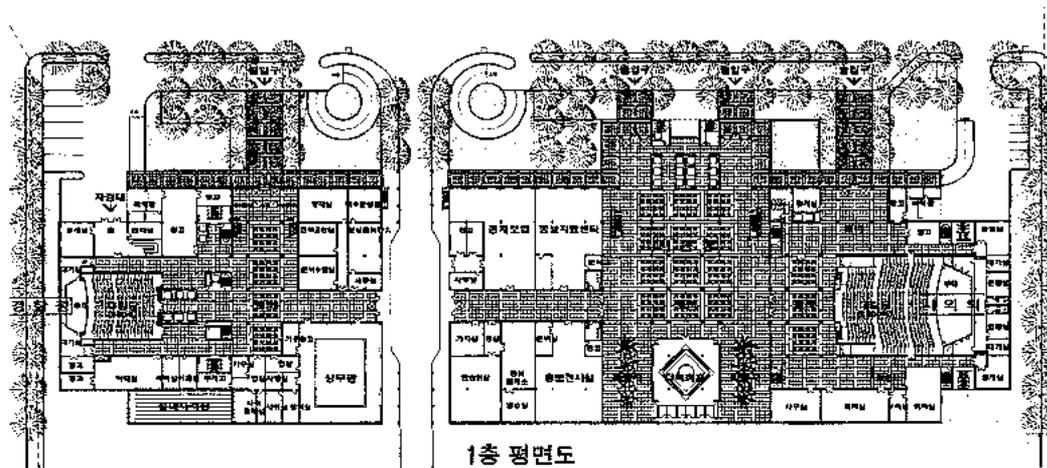
안고 있는 사회, 문화적 내지는 도시구조적 특성과 인접블록의 특성 및 대지가 갖는 지형지세를 완벽하게 이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시청사로서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려는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시의회, 경찰청, 시본청간의 위상정립

— 시의회, 경찰청, 시본청간의 관계가 뚜렷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이들 모두는 상호보완적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시설로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횡 단면도



1층 평면도

- 본 계획에서는 입구의 성격이 특수한 경찰청을 시본청과 시의회와 동일 개념으로 처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위압적, 권위적인 경찰청의 이미지 해소를 의도하였다.
- 시본청, 시의회, 경찰청 모두는 시민을 위한 공공장소로서

민주적 개념에 의해 본질적 위상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 교통체계(Traffic Circulation)

- 중앙로의 서면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들의 대지내 진입을 위한 교통신호대를 중앙로와 대지내 중축도로의 연결선상에 설

치하여 대지후면 거제로와 골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축(Urban Axis)을 두어 주변의 교통망에 순응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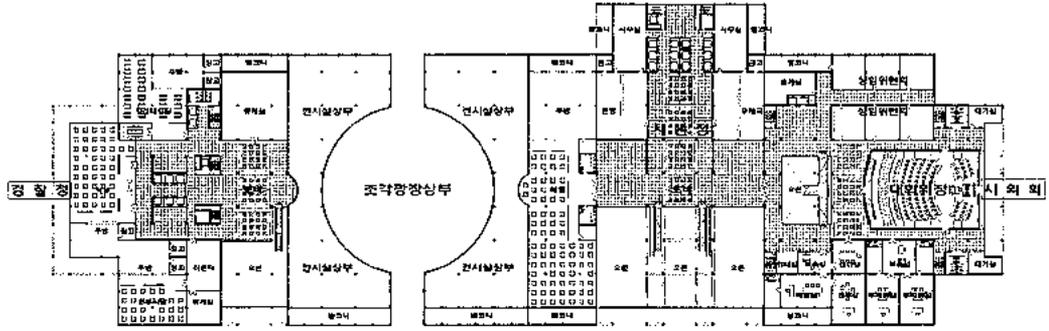
- 동래방면에서의 접근은 자유로우며, 대지의 순환도로는 일방향(One-Way)도로로 하여 진출입에 의한 차량동선의 혼잡을

방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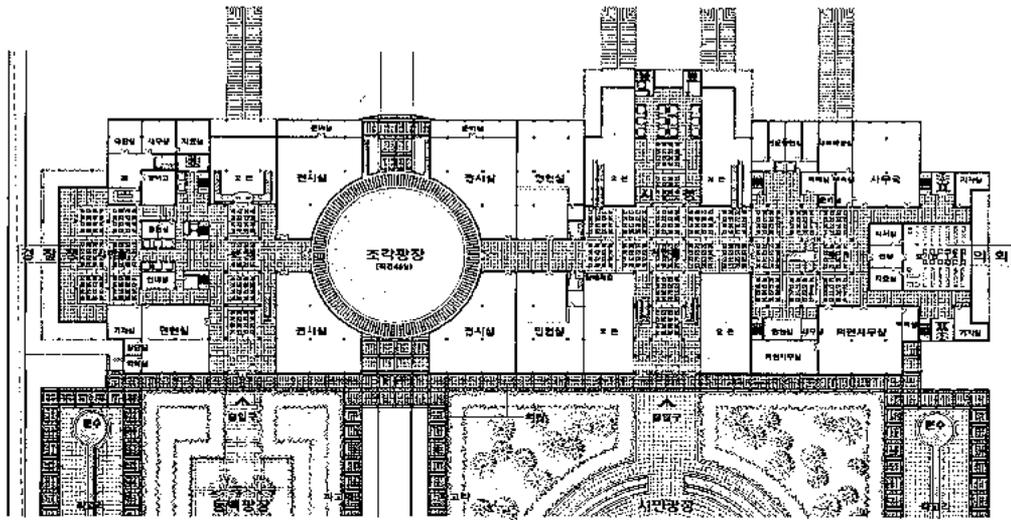
• 보차분리(Seperate Driving & Walking)

- 시청사 대지로 진입하는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의 엄격한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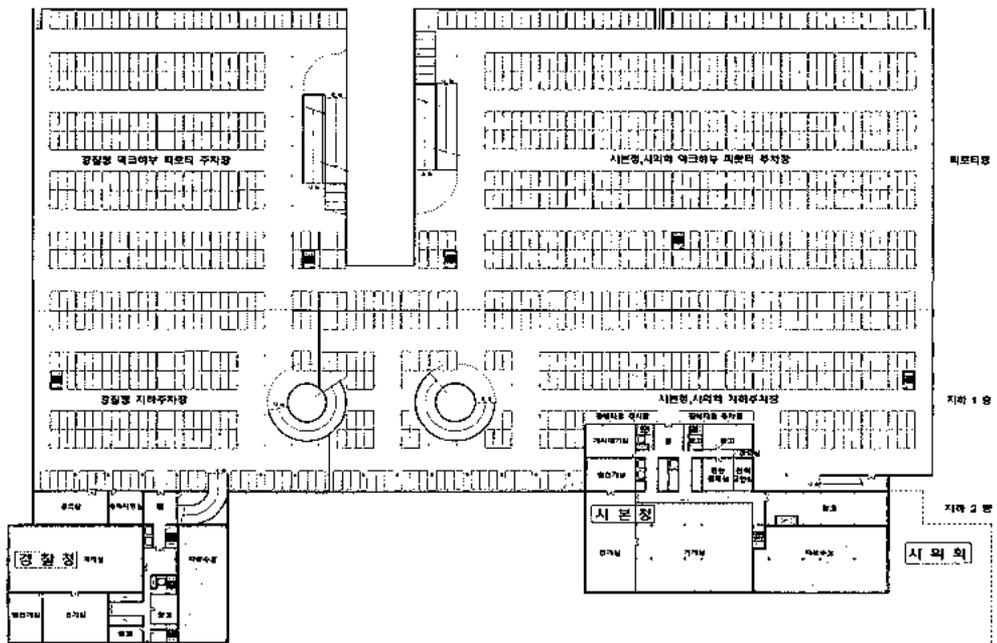
- 대지조건 및 주변 교통량에 대한 프로그램등을 분석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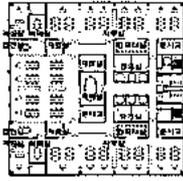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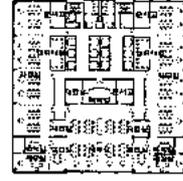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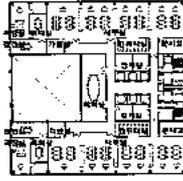
10~14층 평면도

경찰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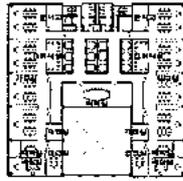


10~2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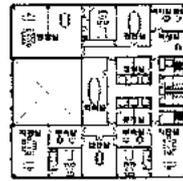
시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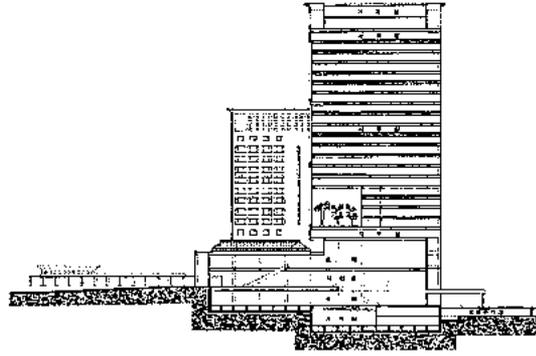
8~9층 평면도



8~9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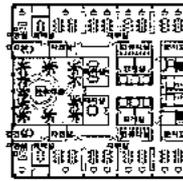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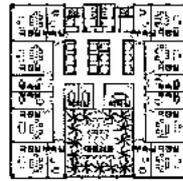
중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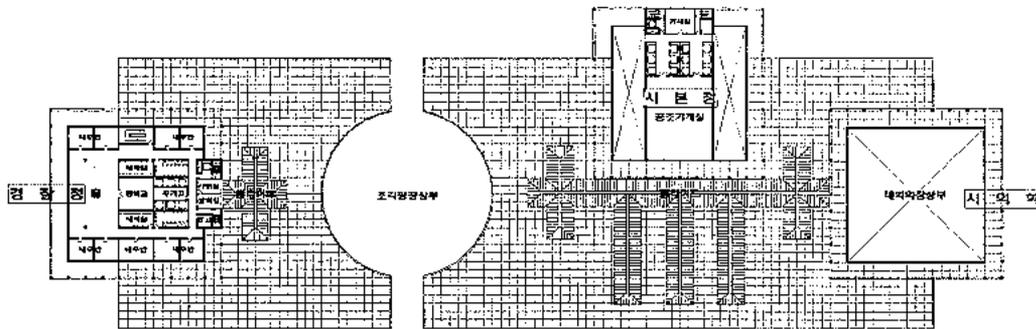
7층 평면도



6층 평면도



6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전면에서는 버스나 지하철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보행자 동선의 접근만을 허용한다.

- 대지후면으로 차량동선(직원, 민원, 서어비스)을 유입 소 화한다.

• 도시적 맥락(Urban Tissue)
- 넓고 큰 시청사 건축군을 도시적 구조에 맞추기 위해 건물은 전면도로에서 물러 배치하며(set-back), 중앙로 측과 건물측을 일치시킴으로써 도시적 흐름에 순응한다.

- 전면의 여유공간을 시민들의

만남의 장 내지는 상징적 광장으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 건물형태는 기단형식의 저층부와 수직적 형태의 고층부로 구성하여 대지 전체의 영역성(urban structure)확보 및 장래 주변환경변화에 따른 독자성(identity)내지는 상징성 유지에 유념한다.

• 지하철 연계(Connecting Subway)

- 지하철역사에서 시청사 외부 공간으로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주요 대중교통수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 지하철 이용자중 장애자를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 지형지세(Geological Approach)

- 대지의 전후고저차가 갖는 지형적 특성을 계획에 반영한다.

- 기존지형상태의 최대이용으로 토목공사의 경제성을 도모한다.

- 중앙로측에서는 2층진입, 대지 후면에서는 1층 진입으로 입

체적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 장래증축(Enlargement)

- 대지의 효율적 이용, 여유 대지의 과감한 시민공원화 및 장래증축을 고려한다.

- 대지후면에 증축유보지 설정과 함께 피로티(piloties)를 이용한 자주식 주차공간, 문화공간, 시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을 둔다.

- 장래증축후에도 단지내의 일체성은 유지되도록 한다.

우수작

부림건축+동일건축 (안)

(대표 : 김 호+오봉석)

대지위치 : 부산 직할시 동래구 연산
동 1402번지 일원

지역지구 : 준주거 지역

대지면적 : 80,988m²

건축면적 : 12,490m²

시청사+시의회 : 8,681m²

경찰청사 : 3,809m²

연 면 적 : 107,942m²

시청사+시의회 : 74,708m²

경찰청사 : 33,234m²

건 폐 율 : 15%

용 적 율 : 106%

건축규모 : 시청사-지하 2층,

지상 25층

시의회-지하 1층,

지상 5층

경찰청사-지하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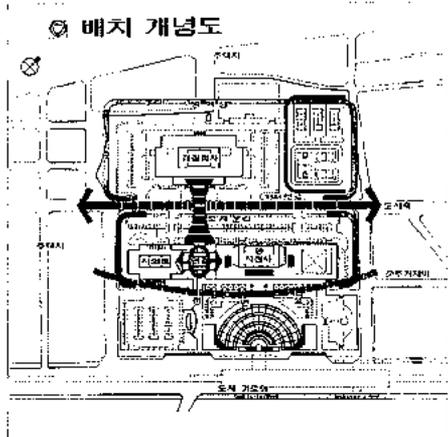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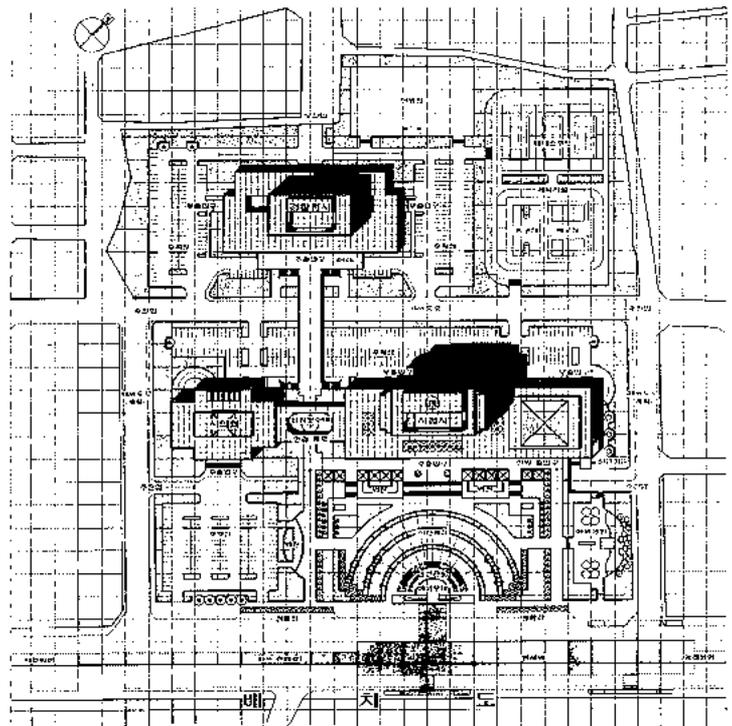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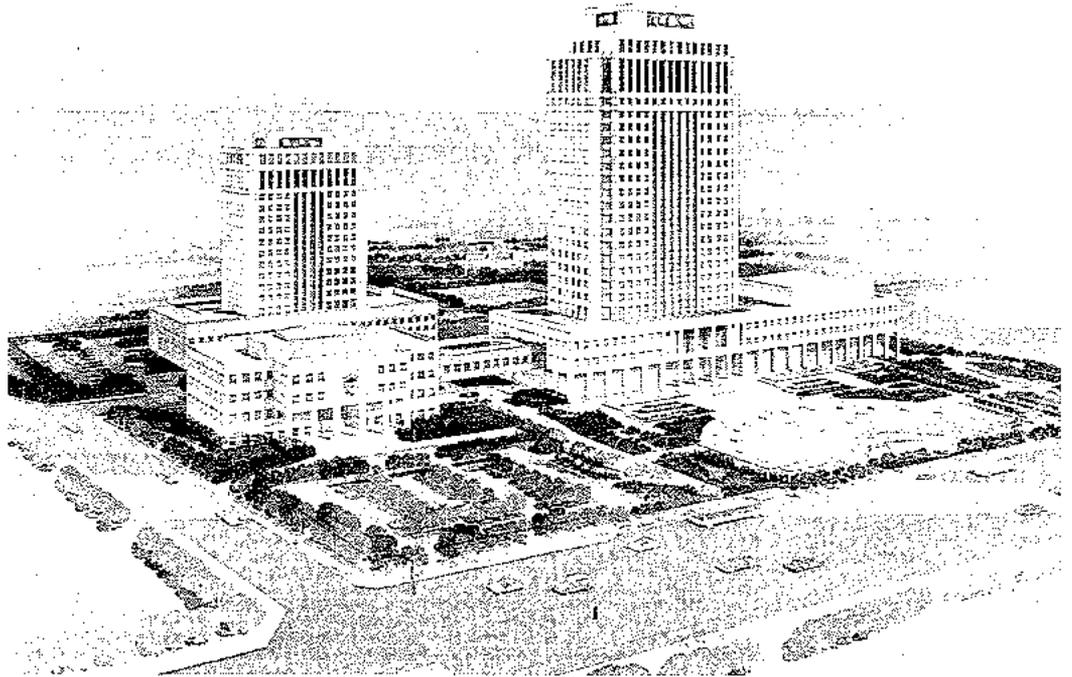
지상 16층

구 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마 감 : 기동및 벽-국산 화강석

(흑두기, 버너구이 및 불갈기)

창 호-알루미늄새시, 복층유리



■ 평면 계획

- 사무요원과 민원인의 원활한 동선체계
- 코아의 집중화(동선 단축, 설비라인 최소화)
- 모듈 시스템(Module System) 도입으로 융통성 부여
- 장애자를 고려한 계획(장애자 화장실, 림프)

■ 입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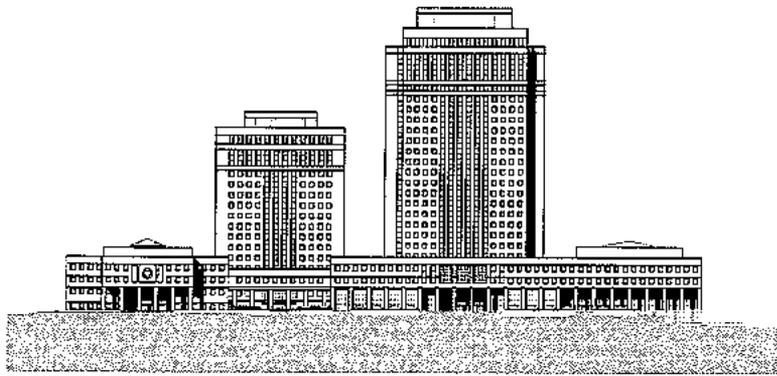
- 저층부+고층부
- 수직선의 상승감(Land Mark)
- 수평선의 안정감(Human Scale)
- 통일성
- 저층부의 전체적 개방감 확보
- 입면 패턴의 반복

· 정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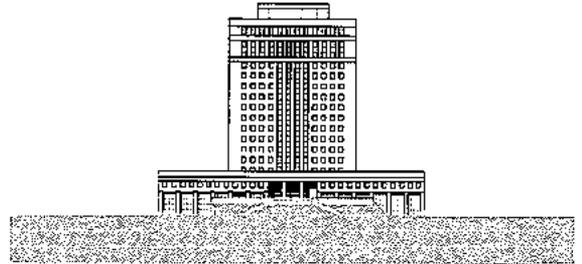
- 고층부를 중심으로한 볼류의 균형유지
- 주출입구를 중심으로한 개방성 강조
- 스카이라인 : 주거 지역으로부터 상업지역으로의 점진적인 스카이라인 형성

■ 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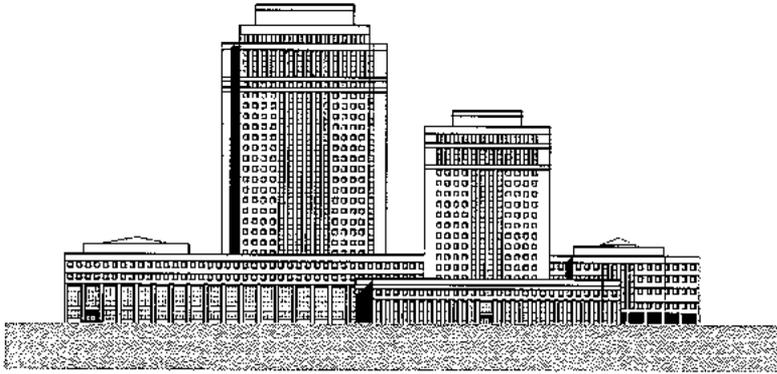
- 층별 기능분리(저층부-공용공간/고층부-사무공간)
- 자연 채광 적극 유도
-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IBS)을 고려한 적정 층고 결정
- 기능에 부합되는 층고의 융통성 부여(상무관,강당,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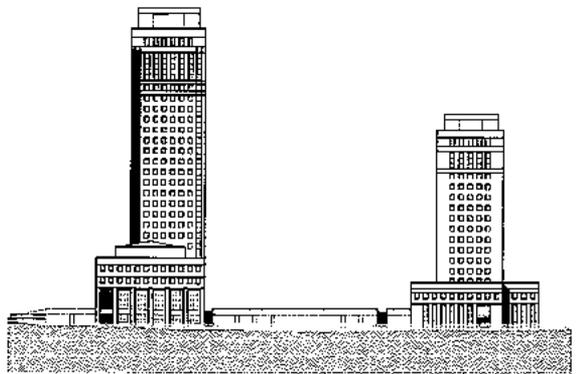
시청사 정면도



경찰청사 정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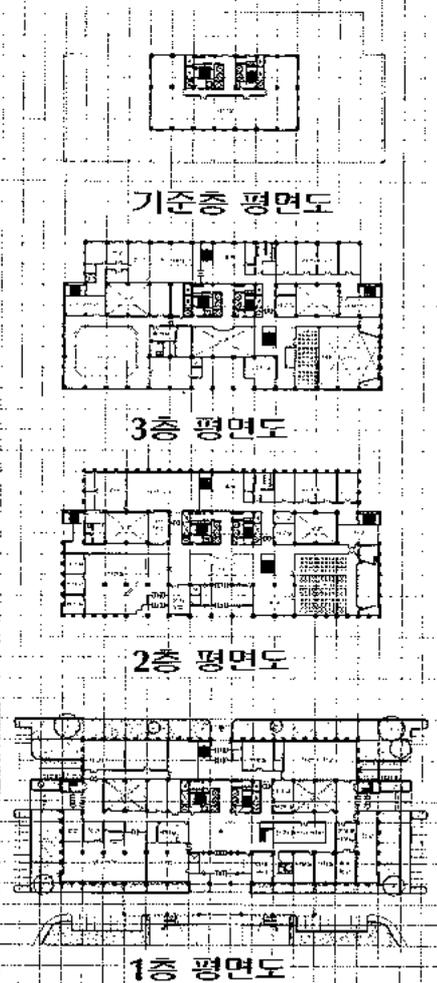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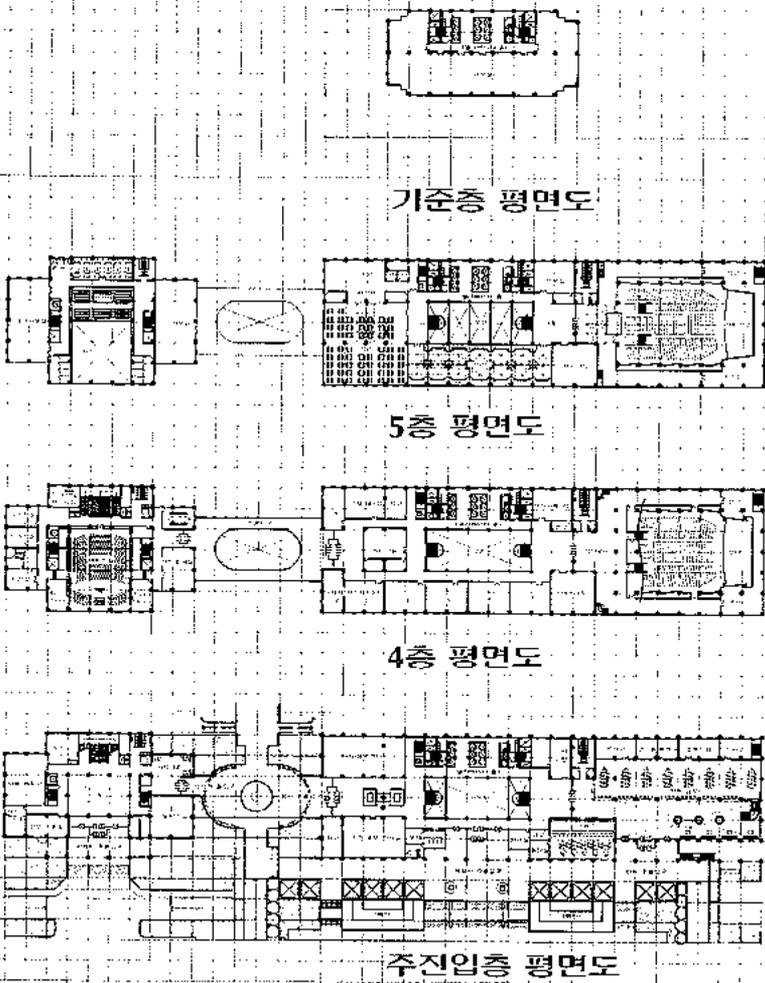


측면도

☉ 시의회

☉ 시청사

☉ 경찰청사



가 작

신도시종합건축(안)

(대표 : 박찬실)

대지위치 :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140번지 일원

지역·지구 : 주거지역, 공공용의
청사부지

대지면적 : 80,988m²

건축면적 : 10,464.40m²

시청사-5,810.13m²

경찰청-2,724.46m²

시의회-1,929.81m²

연면적 : 117,206.77m²

시청사-78,787.13m²

경찰청-31,138.90m²

시의회-7,280.74m²

건폐율 : 12.92%

용적률 : 109.21%

구 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 배치계획

- 도시축에 의한 건축물의 설정
- 기능과 동선에 따른 과정적 위계

- 개방된 시야 확보

- Site는 부산의 중심적 위치로 연산동 활성화로 장래

- 변화에 대비한 배치

- 기능별 분동 배치

- 대지 전체의 조화를 고려한 배치

- 합리적인 토지 이용으로 장내 수평 증축 고려

- 형태와 기능 분석에 의한 합리적 공간 분할

-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남동향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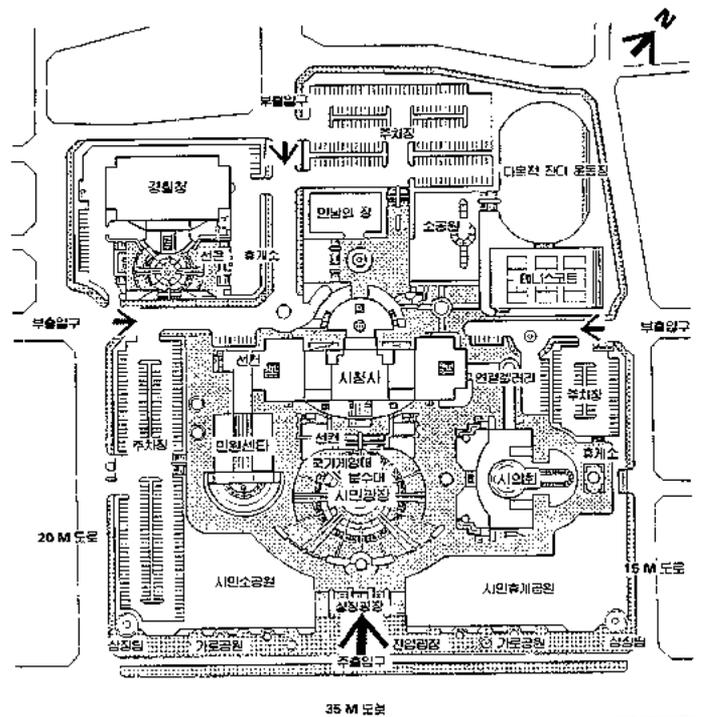
- 대지의 중심과 건물과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위해

- 시청사 건물을 중앙에 놓고 도로와의 연결성이 폐쇄한 조건으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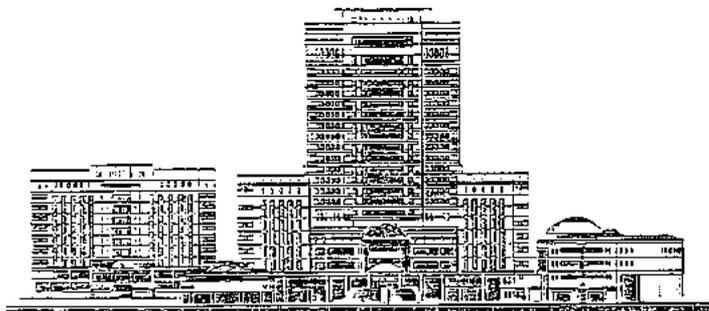
- 경찰청의 독립과 개방된 시민공원과 광장으로 시야확보

- 전통건축 배치 방법 도입에 따라 진입공간 시민광장 시청사를 상징적으로 부각하고 좌·우측에 민원센터, 의회청사를 계획하고 시민광장을 우리 고유의 안마당을 중정공간으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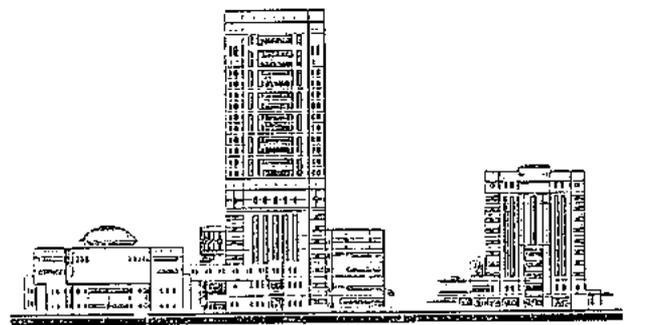
- 능한 휴게와 만남의 장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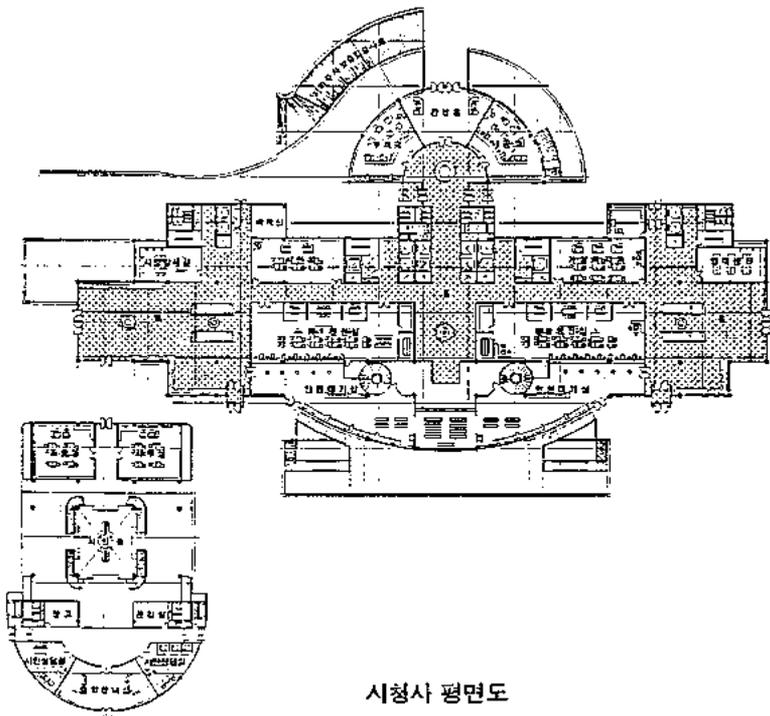
종합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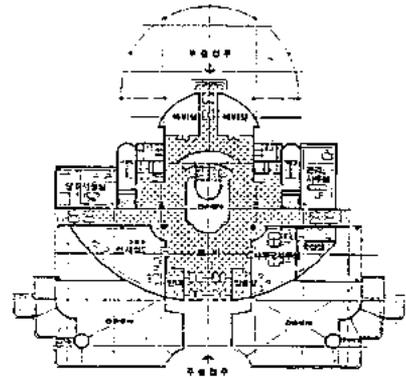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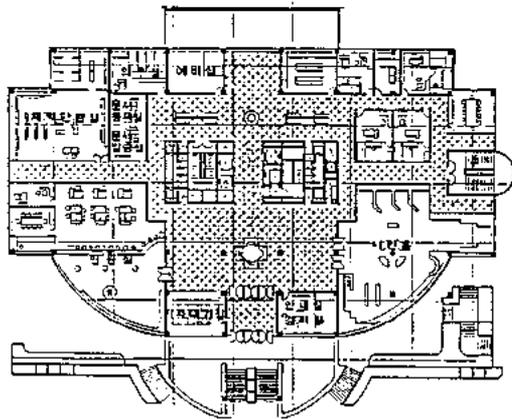
우측면도



시청사 평면도



의회 평면도



경찰청 평면도

■ 평면 계획

- 기능의 Grouping과 유기적 관계
- 남향의 실배치와 채광 확보를 고려한 구성
- 기둥의 가변성 계획으로 여유 있는 넓은 공간 확보
- 저층부의 시원한 출과 코아의 연결성으로 쾌적한 실내공간 연출
- 고층, 초고층의 심리적 요소는 배제 휴게실과 시야 확보 업무 동선의 원활한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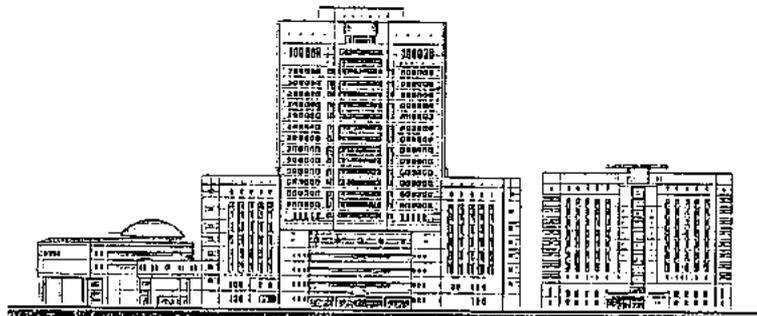
■ 입, 단면 계획

- 시청사의 상징적 이미지를 구현 수평성과 수직성의 조화를 가질수 있도록 가로와 긴창과 세로의 창을 격차 형식으로 전통 문양도입

- 좌우 대칭형의 입면 구성에 의한 균제된 Mass 의 안정감 추구
- 저층부의 Mass 는 인간적인 형태로 원형과 원호로 시민들에게 부담감을 주지않는 율동적이며 자연스러운 형태 추구
- 미래에도 싫증나지 않는 역사적 건물로써 21세기에 대비한 입면
- 단면 계획은 민원 홀 상부와 층의 변화에 따른 자연 채광을 적극도입 내부 공간 쾌적한 환경 조성
- 일반 사무실은 층고를 4m제책 OA화 대비한 사무공간 확보



좌측면도



배면도

가 작

세진종합건축(안)

(대표 : 박재평)

대지위치 : 부산직할시 동래구 연산동

1402 번지 일원

지역·지구 : 주거지역, 공공용지

대지면적 : 80,988㎡

건축면적 : 시청-4,533.00㎡

의회-2,509.48㎡

경찰청-2,548.54㎡

연 면 적 : 시청-89,669.90㎡

의회-11,935.64㎡

경찰청-22,471.81㎡

규 모 : 시청-지하 2층, 지상 22층

의회-지하 2층, 지상 6층

경찰청-지하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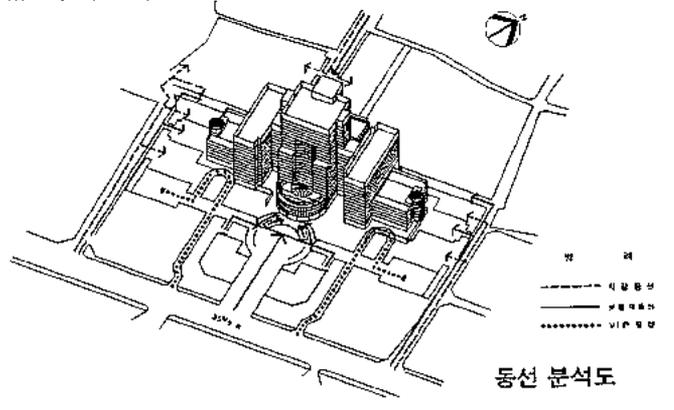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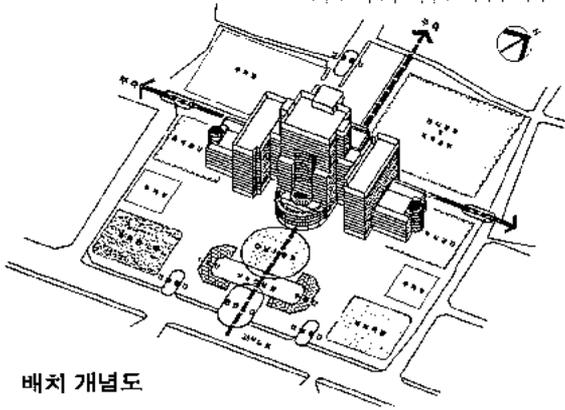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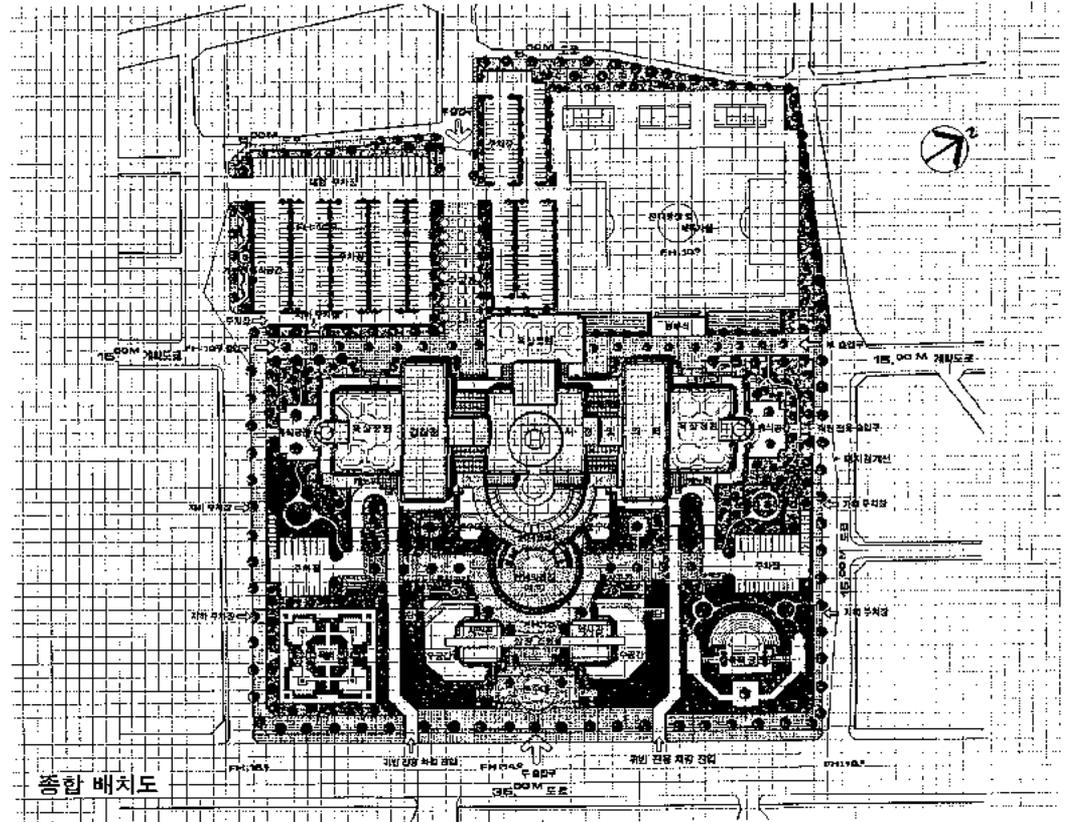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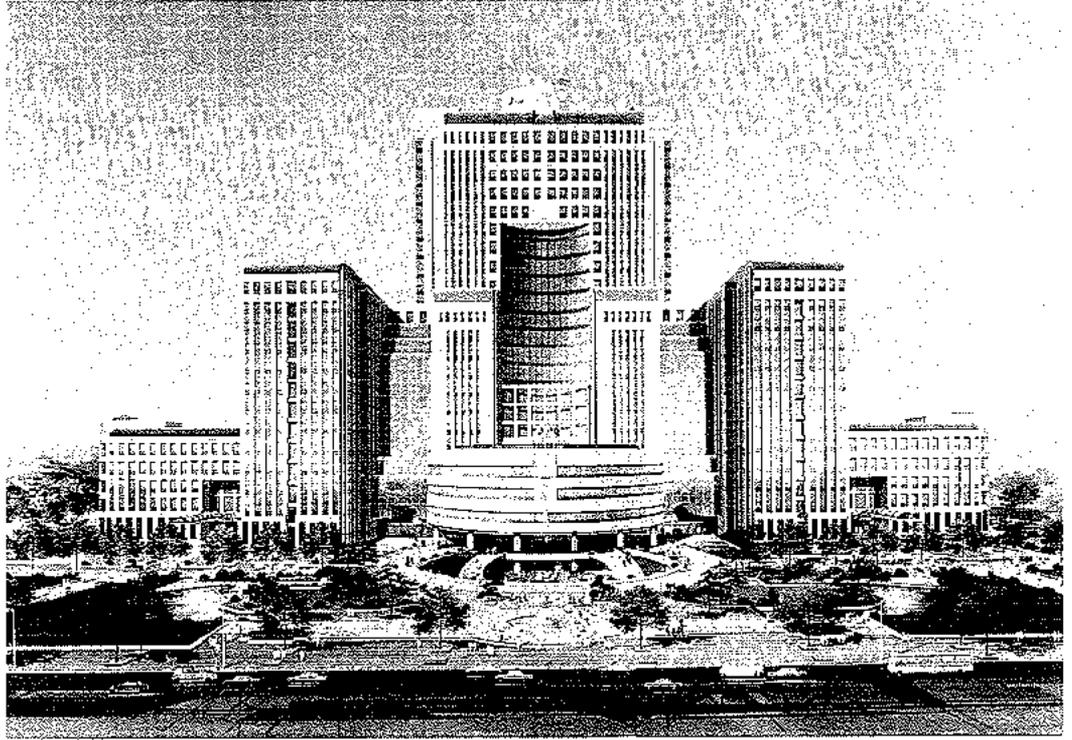
지상 13층

건 폐 율 : 11.81%

용 적 량 : 125.24%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외장재료 : 화강석비너마감 및 정다듬



■ 배치계획

· 기본방침

본 계획은 지방화 시대의 이정표를 제시할 중요한 계기가 될 건축물이며 고도 산업화 시대에 대비하여 현대건축의 최첨단 공법과 신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 항목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진행하였다.

- 시본청, 시의회, 경찰청 각 기능의 연결과 통제의 효율화를 높이는 배치와 일체감있는 건축으로서 통리성이 부여된 강력한 조형성을 갖는다.

- 계획부지 주변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 및 개발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각 기능별 진입이 명료하며 내외부 공간의 기능적 연관성을 고려한 전이공간을 확보한다.

- 대지형상의 특성을 고려한 축(Axis)의 설정으로 토지이용 및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다.

- 대지전면 지하철역(연계역)에서의 접근과 35m 도로에서의 시각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만남의 광장으로서의 진입을 원활히 하고 정면성을 강조한다.

· 축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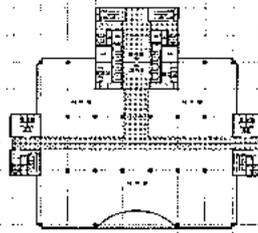
- 배치축은 건물 매스(Mass)의 접근성과 지형지세에 순응하는 계획부지 전면 주 도로(35m)축에 대한 수직축으로 한다.

· 효율적 토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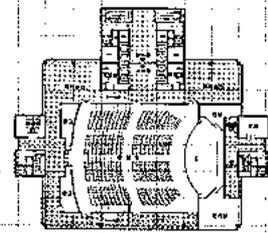
- 청사의 관료적 이미지를 벗고 시민과 관이 어울리는 개방적이고 활기찬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마련

- 저층부에 민원실을 위치시켜 시민의 이용편리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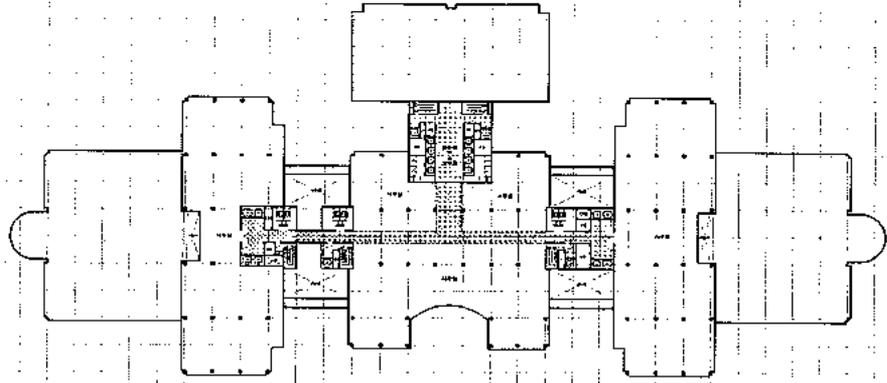
- 고층부에 사무동 배치하여 양호한 조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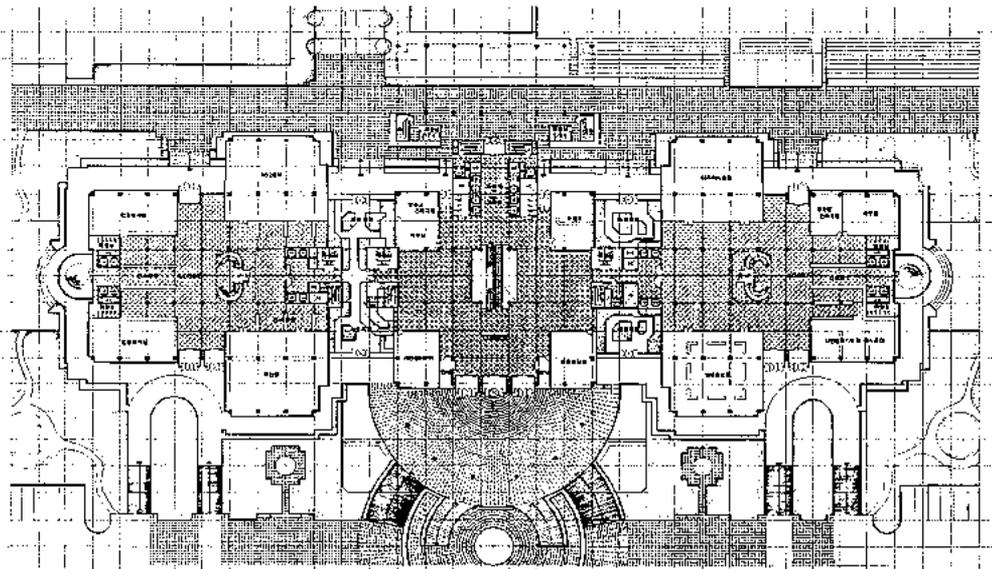
14~2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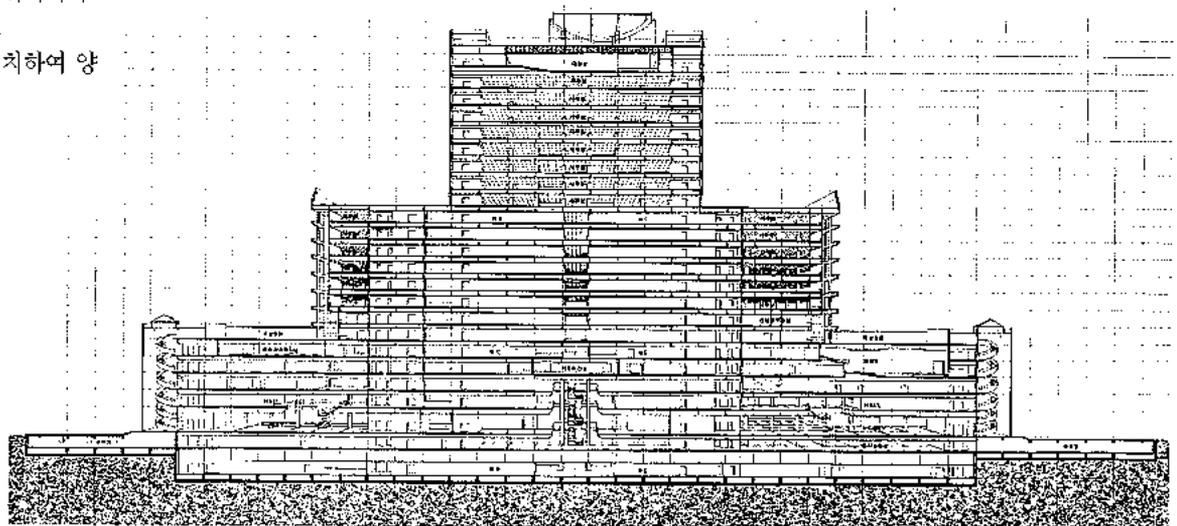
22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횡단면도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

◎ 대통령령 제13,518호 (1991.12.17)

◇ 건축법시행령 개정이유

조립식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간검사를 면제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규모종교집회장에 대한 용도분류를 변경하여 앞으로는 용도변경의 허가없이 근린생활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단열재가 사용된 벽·기둥·바닥·보·지붕 또는 주계단을 조립식

으로 건축하는 조립식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간검사를 면제함 (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분할된 일정규모이상의 대지안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령 제102조 제3항).

다. 300제곱미터미만의 소규모종교집단장은 종교시설에서 근무생활시설로 용도분류를 변경하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함.(령 별표1 제3항·별표2 제20항 및 부표 제4항) (법제처 제공)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단열시공이”를 “단열재가 사용된 벽·기둥·보·지붕 또는 주계단을 조립식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로서 단열시공이”로 한다.

제102조 제3항 본문 중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분할된 대지안의 건축물”로 하고, “그 대지안의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를 “그 대지안의 기존건축물을 포함하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분할된 대지안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부표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것과 동항 제6호 중 부동산중개업소에 한하되,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을 제외한 것

2. 부표 제4항 제7호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으로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별표 2]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㉔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안마시술소

[부표] 제4항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동항 제8호 내지 제10호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부표] 제6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 중 “수녀원·사찰”을 “수녀원”으로 한다.

1.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차장법중 개정법률

◎ 법률 제4,437호 (1991.12.14)

◇ 주차장법 개정이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 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차장정비 계획 수립시 주차장 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계·운영하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주차장정비지구 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반건축물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군수는 주차장정비계획 20년 단위의 장기계획, 5년 단위의 중기계획 및 1년 단위의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자치구 구청장은 시장·군수와 같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

4.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여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5. 도시교통의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의 차등부과 및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1인이 노상주차장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6.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관리실행 당해 주차장 부속시설의 설치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도록하여 시정 절차를 간소화 함.
7.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8.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군수와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불법주·정차단속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
9. 시장·군수는 주차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로 하고, 동조 제4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 2.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제2항 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중 일부 지역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장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주차장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자기가 관리청이 아닌 도로에 노상주차장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정비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에 의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 및 5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과 1년을 단위로 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한다.

④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도시교통현황
2. 주차시설 및 주차실태의 조사·분석
3. 주차장정비지구 지정신청계획
4. 주차수요예측
5. 주차시설 공급계획
6. 주차관리정책방향
- ⑤ 중기계획에는 장기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과 주차시설 공급을 위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시장·군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당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시장·군수는 장기계획 및 중기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주차장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의 제시를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주차장 정비계획을 확정·시행한다.

⑨ 시장·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조의 2 (주차장 정비계획의 변경) ① 시장·군수는 주차장 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 4 조 제 7 항 내지 제 9 조의 규정은 주차장 정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6 조 제 2 항 본문중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행위(구청장의 경우에는 제 3 호의 행위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중 “시장·군수가”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 3 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당해 지역의 교통요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 8 조 제 1 항 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로부터”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로 한다.

제 8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조의 2 (노상주차장에서 주차행위 제한) 누구든지 노상주차장에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제 7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 2.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 3.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 4.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 9 조 제 1 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 4 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 5 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 8 조의 2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 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2 항중 “노상주차장의 공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을 “노상주차장의 공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유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공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노상주차장의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2 조 제 1 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 2 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 제 3 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 4 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 12 조의 2 를 제 12 조의 3 으로 하여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12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 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 1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의 신고를 한 후 동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 2. 주차장 진입로의 개설을 위한 도로법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

제 12 조 의 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3 조 제 2 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 3 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 15 조 제 1 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 2 항 및 제 4 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 제 5 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 16 조중 “시장·군수이외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외의”로 하고,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 19 조의 3 제 3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시장·군수”로 본다.

제 20 조 제 2 항중 “토지”를 “토지 및 시설물”로 하고, “점용료”를 “점용료 및 사용료”로 한다.

제 21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1 조의 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 1. 제 9 조 제 1 항 및 제 3 항, 제 1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 19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 2. 제 24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4. 정부의 보조금
-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이 정하

는 일정율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 2항 제 1호의 수입금중 당해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

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회계에 이 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 3(주차관리전담기구의 설치) 시장·군수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할 수 있다.

제22조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23조 제 1항 및 제 2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 제 3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4조 제 1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 2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24조의 2 제 2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25조 제 1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0조 제 3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 4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 제 5항중 "시장·군수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2조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1991년도 건축사 자격(면허)시험 합격자 공고

1. 일반전형

4 안계원	16 심재호	18 박지하	33 박용구
71 신동규	92 김용철	99 이동철	101 이홍순
104 정국주	113 민안식	114 신만식	126 윤여경
128 이상국	139 조순필	150 황성훈	158 구만열
196 홍상우	197 최영우	215 상영호	227 신진환
230 김태원	249 강종규	261 최낙진	262 한기백
264 김창수	270 오형중	287 김승욱	289 김원배
297 고세형	306 신안준	325 김강진	344 최계인
399 권연하	414 김석순	417 김원호	419 조진호
422 윤은중	487 권혁기	529 윤홍노	533 안병리
542 임진섭	544 송영규	550 천근우	551 조재만
561 조의곤	564 공순구	565 장진우	583 지현춘
588 김성호	597 이인철	599 임채문	624 권오준
629 이상희	642 오승훈	656 서봉식	691 강동구
718 남상득	727 정준협	732 한필원	820 고명환
830 강병국	837 최정훈	839 이광배	842 최홍영
852 김성호	860 오영모	862 유권호	864 이무철
866 한형우	868 이학명	873 지영근	874 박광열
882 차신규	887 김철민	889 김정원	904 이재호
907 임병찬	932 이준희	935 김홍백	953 안지운
954 김태경	967 한용희	975 이규환	1005 권진우
1069 박상문	1099 오근석	1100 이시훈	1151 심봉섭
1168 이항남	1183 김종만	1200 이상수	1217 김현룡
1219 김종규	1220 봉종현	1222 문홍길	1241 박명규

1249 이동철	1253 박찬일	1255 김한우	1264 김상동
1270 주대관	1325 김기성	1349 황종철	1357 정태석
1379 김희진	1381 이갑수	1408 박도권	1414 박영순
1429 양환성	1430 이인홍	1446 박기열	1452 백원철
1492 최태화	1522 우성덕	1544 허길현	1587 임석환
1606 이항렬	1612 최진영	1613 윤성운	1614 오종일
1616 박영호	1646 이승재	1651 김형세	1696 이계우
1703 강용순	1712 이교전	1720 류봉렬	1722 조점환
1729 최효숙	1737 라체화	1748 이성균	1753 이종욱
1762 김준배	1771 장석남	1783 조태정	1784 이홍재
1794 이 봉	1799 김형민	1806 이기성	1807 김선재
1824 김성기	1829 박기병	1893 이항섭	1933 하택방
1949 천준호	1969 최해동	2066 이수형	2074 이희주
2081 최용준	2197 정병욱	2198 이장근	2201 서영만
2224 이우학	2230 김무홍	2285 황환문	2287 조성문
2292 김 혁	2293 이종민	2338 박계근	2385 손성태
2397 손창수	2418 최삼영	2450 서정대	2477 이한석
2495 현도경	2510 조도희	2524 손용경	2573 김현욱
2584 임부춘	2597 이운국	2613 김명홍	2624 이찬곤
2627 한창섭	2645 임해인	2651 윤 찬	2664 강병태
2686 전병후	2692 고인석	2725 노윤경	2726 박 학
2827 홍광근	2845 강봉원	2890 박영숙	3077 이희대
3093 윤광진	3114 박진호	3183 김운형	3186 오영근
3187 한철수	3190 경호영	3257 유윤옥	3334 허봉수

3369 김계영	3426 박창권	3542 강병대	4600 배성환
4608 정원규	4664 루경호	4794 김정호	4801 조정래
4803 마중병	4805 이현철	4808 김승익	4809 김일중
4810 성계경	4811 이만희	4812 안성호	4819 남기창
4960 안맹춘	4966 조영일	4968 강상섭	4981 송동희
4984 강 훈	4987 김홍수	5021 홍한기	5024 김종일
5025 이영환	5180 홍병태	5190 최양동	5203 이주승
5222 김용섭	5231 김성락	5241 이종한	5254 박형규
5261 안병안	5265 김희성	5365 박찬성	5372 이태진
5398 정영필	5461 김홍운	5464 손윤락	5487 한덕재
5491 김희곤	5505 엄홍복	5506 이기승	5569 송기춘
5581 조상봉	5582 이광섭	5747 이상호	5749 이호성
5789 이경호	5822 어우용	5826 박태장	5834 오희순
5838 유영재	5843 이종원	5886 윤기원	5901 이항기
5956 김경림	5963 김상현	6007 이계식	6025 최영현
6050 이근영	6051 성진용	6080 박정춘	6235 어유발
6398 유연희	6435 황정복	6488 정윤태	6543 신교영
6571 이천복	6670 이광수	6675 하금현	6702 남풍식
6795 윤여경	6941 김명환	7045 인형수	7083 조두상
7107 박승순	7164 김동기	7664 이호성	7702 김주식
7713 김성수	7731 탁기봉	7780 정세영	8085 최 진
8124 오종문	8187 윤주관	8476 이명주	8519 박영기
8744 박갑주			

2. 특별전형

2001 양보국 2001 박병용 20013 김 선 20021 김임수 20025 선우정호 20033 황선사 20027 계은찬 20041 조명식 20049 김정중 20053 김종진

3. 아래 사람은 건축사법 제 9,14조 규정에 의한 응시 자격 재심대상자이므로 재 심사후 합격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1) 일반전형 103 김중호, 248 이동훈, 742 문근환, 1135 홍진표, 1704 박병길, 5185 박철수, 5221 유인국, 5169 손성대

(2) 특별전형 20003 정현수

차례/1991년 1월호 통권 제261호

協會長 新年辭	14
會員作品	18
경로수녀회 - 평화의 모후원 /徐輔光	18
한권빌딩 /金昌壽 +朴 昇 +徐相默	22
코오롱 기술연구소 /崔寬泳	26
국화의원 회관 /李永熙 +李錫文	30
중원빌딩 /金裕中 +趙大熙	33
성림빌딩 /林長烈	36
중앙대 (안성캠퍼스) 조소과 실습동 / (주)간상종합건축사사무소	38
나의 스케치	40
공간의 유희 /金元佐	40
特 輯	
우리 건축이 나아가야 할 길 - 우리 建築의反省과 21世紀를 向한 對策	44
韓國 現代建築의 反省 /金熙容	46
우리 建築環境의 反省 /安秉煥	48
專門化, 國際化와 우리 現實 /趙應在	50
우리 건축의 現況과 問題點 /李範宰	53
21世紀를 向한 우리 對策姿勢 /成仁謙	56
갈 길은 멀고 험하다 /趙仁淑	58
일하며 생각하며	58
세헤에 걸이보는 기대 /崔英集	60
研究	
한국의 전통건축(30) 朝鮮時代의 建築 /張慶浩	68
해남 라면의 코엔하겐 경영대학교 /朴賢燦	74
메소포타미아의 건축순례(5) /裴元泰任和政	80
클린룸 설계에 관한 기본사항 /설비분과위원회	88
ARCASIA	
ARCASIA대회 및 아시아건축협의회 아시아 /李廷根	92
참 기 기	
인도를 다녀와서 /鄭用贊	96
資料	
주최장려 시행규칙 개정령 등	102
1990년 11월분 도서신고현황	101
新入會員	104
協會消息	

차례/1991년 2월호 통권 제262호

會員作品	15
구미종합문화예술회관 /故 金壽根	18
창덕여자고등학교 /黃一仁	22
고려대 (서강캠퍼스) 도서관 /金興一 + 崔泰容	26
SKIP-UP /金仁結	29
남창빌딩 /崔東宗	29
나의 스케치	32
자연을 닮은 것은 ... /金基雄	34
일하며 생각하며	34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협회를 기대하며 /金宇成	36
審 稿	
현행 고층아파트 구조설계 문제가 심각하다 /李昌男	40
研究	
불가리아의 건축물들 /趙仁淑	47
한국의 전통건축(31) 朝鮮時代의 建築 /張慶浩	56
도묘의 齋宮간 /金文德	76
분양 사무내의 빌리브라스크 소계 현대미술관 /朴賢燦	80
歐洲의 建築 /崔昌奎	67
설계경기	
군산시청사 현상설계경기	68
당선작 /삼경건축사	72
우수작 /가진건축사	74
우수작 /진원건축사	84
資料	
주최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94
1991년 12월분 도서신고현황	96
協會消息	98
新入會員	

차례/1991년 3월호 통권 제263호

會員作品	18
'91韓國建築展 受賞作	20
優 秀 賞 성지원(忠孝家) /姜錫元	22
優 秀 賞 신암성당 /金武雄	24
優 秀 賞 윤공권리사 기념관 /金基雄	26
優 秀 賞 제주 파라다이스 서커포호텔 /金 浩	27
優 秀 賞 봉명동성당 /曹錫鉉	28
優 秀 賞 목동 주영기장 및 야구장 /金宇成	29
準優秀賞 한국전역공사 전남지사 /李珪杓	30
準優秀賞 흥은동 H씨대 /崔勝元	32
準優秀賞 강릉 K씨 주택 /安文孝	39
特 輯	
'91韓國建築展 受賞作 發表	34
新入部門 受賞作	39
學生部門 受賞作	50
일하며 생각하며	
나시 맞은 3월애 /梁元錫	57
研究	
채계립근으로서의 건축형태 /嚴政根 + 朴研心	68
일본의 미술관 건축 /金文德	76
한국의 전통건축(32) 朝鮮時代의 建築 /張慶浩	82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6) /裴元泰	90
建築構造物 스펀의 長大化 /金鍾洛 + 李錫洙	91
新入會員	92
會員勸解	92
資料	1991년 1월분 도서신고현황
協會消息	94

차례/1991년 4월호 통권 제264호

會員作品	14
제주 파인프라스 /韓在源	17
윤림과 유스호스텔 /金錫澈	20
INSERT /韓仁結	22
대전 대동침재교회 /崔東奎	25
제주 신라 리조트 /朴 昇	28
서울대 호암생활관 /金昌壽	30
순천 Y씨 주택 /鄭瑞珠	32
나의 스케치	34
修業時紀 /黃仁秀	36
일하며 생각하며	
실상을 고백하며 /洪文裕	40
研究	
日本史 속의 건물과 도시 /趙仁淑	48
한국의 전통건축(33) 朝鮮時代의 建築 /張慶浩	54
양프랑스 그룹박의 프와미에 지방청사 /朴賢燦	72
建築構造物 스펀의 長大化 /金鍾洛 + 李錫洙	76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7) /裴元泰	89
인텔리전트빌딩 설계에 관한 一般事項(1) /設備分科委員會	61
설계경기	
충무시민회관 현상설계경기	62
당선작 /라인 · 한도건축 (송이호 = 안기석) 案	76
우수작 /상지건축 (김동희) 案	69
우수작 /태양 · 진일 · 경건축 (김중섭) 案	85
資料	
세법령	86
1991년 12월분 도서신고현황	85
會員勸解	88
新入會員	91
協會消息	96

차례/1991년 5월호 통권 제265호

會員作品	14
단국대 (천안) 율곡기념도서관 /金正堤 + 崔泰容	18
한남도서관 /張錫雄	22
돌로 지은 자연 속의 집 /姜贊益	25
상복동 K씨택 /吳基守	28
경신빌딩 /金裕中	30
나의 스케치	32
水産科學館 계획안 /林長烈	35
追慕 스케치	36
故 如泉 김중업선생 3주기를 맞이하여 /郭在煥	38
論壇	
21세기를 위한 도야 /李義求	46
일하며 생각하며	
상식 속의 물상식 /金日浩	50
建築批評	
'91한국건축전 수상작에 대하여 /李義宰	60
研究	
日本史 속의 건물과 도시 /趙仁淑	64
한국의 전통건축(34) 朝鮮時代의 建築 /張慶浩	76
建築構造物 스펀의 長大化 /金鍾洛 + 李錫洙	84
오사카 근각 프로젝트 /金文德	88
인텔리전트빌딩 설계에 관한 一般事項 /設備分科委員會	92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8) /裴元泰	94
隨 想	
의 · 식 · 주와 民度 /朱命錄	96
資料	
1991년 3월분 도서신고현황	96
新入會員	96
協會消息	96
'91 各委員會	

차례/1991년 6월호 통권 제266호

副 報	12
'91 全國建築士大會	13
協會長 閉會辭	14
建設部長官 致辭	25
民主黨 代表最高委員 祝辭	16
國會 建設委員長 祝辭	18
사건으로 보는 '91 全國建築士大會	20
'91 全國建築士大會를 마치고 /金業洙	23
會員作品	
설악 리조트 레저타운 /柳在秀	26
삼성첨단기술연구소 /金昌壽 + 朴 昇 + 徐相默	28
영은동성당 /曹錫鉉	30
퇴촌 S씨 주말주택 /洪承烈	32
원곡동 J씨 주택 /鄭道聖 + 姜에중학건축	34
신내장식가의 주택 /嚴政根 + 朴研心	36
북아전동 K씨 주택 /宋光燮	38
유림빌딩 /張基成	40
한국석유통계연구소 /尹錫祐	42
나의 스케치	
서울미술관계획안 /曹建永	44
일하며 생각하며	
우리는 「모병건축사」가 아니다 /咸仁善	54
研究	
한국의 전통건축(35) 朝鮮時代의 建築 /張慶浩	66
일본의 외국인 건축가 /金文德	73
조선시대 말기 교육시설의 공간유형에 관한 연구 /李榮漢	80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9) /裴元泰	90
資料	
改正 建築法 全文	92
1991년 4월분 도서신고현황	94
新入會員	92
協會消息	94

차례/1991년 7월호 통권 제267호

會員作品	소태산 기념관 / 金仁喆 20
	덕산빌딩 / 崔英集 24
	제주 탐라도서관 / 金石崑 27
	수유리 주택 / 尹柱憲 30
	정청공방 / 金基順 34
	간운유계소 / 柳春秀 38
	바 - 디락 / 崔勝元 42
	보문 향룡강여관 / 孫明文 44
	한일증권 사옥 / 尹錫龍 46
나의 스케치	정기박물원 계획안 / 柳錫龍 48
일하며 생각하며	夏閑雜和 / 承孝相 50
研究	일본사 속의 건물과 도시(3) / 趙仁淑 52
	한국의 전통건축(36) 朝鮮時代의 建築 / 張慶浩 57
	일제시대 고등교육기관의 공간유형에 관한 연구 / 李榮漢 66
	인텔리전트빌딩의 電氣設備 / 設備分科委員會 74
誌上中繼	건축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83
新入會員	90
資料	1991년 5월분 도서신고현황 92
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 당선 회원	94
協會消息	96

차례/1991년 8월호 통권 제268호

論壇	建築行政 遺憾 / 李益求 16
誌上座談	건축규제조치의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18
會員作品	백산125 / 故 金壽根 28
	카타르시스 / 金仁喆 31
	큐닉스 정답사옥 / 朴春秀 + 郭成文 34
	충익대학교 조치운 캠퍼스 / 吳基守 37
	한신증권사옥 / 權相龍 40
	범우사옥 / 宋光燮 42
	일우빌딩 / 裴聲益 44
	춘천 회교수당 / 孫基賢 46
나의 스케치	강실교회 / 禹時康 48
일하며 생각하며	건축규제! 그리고 우리는... / 孫林浩 50
研究	1945~1975년 캠퍼스 배치계획의 특성에 관한 연구 / 李榮漢 52
	코베, 코도, 오사카, 도쿄 그리고 안도 다다오 / 金文德 61
	광장설계방법론 / 關相忠 72
	인텔리전트빌딩의 電氣設備 / 設備分科委員會 84
新入會員	91
資料	1991년 6월분 도서신고현황 92
協會消息	94

차례/1991년 9월호 통권 제269호

건축허가제한 조치에 따른 우리의 입장	20
會員作品	한국통신연구소 / 金正晙 + 崔英容 22
	정한오피스텔 / (주)간·삼종합건축사무소 28
	벨크레드 / 金仁喆 + 韓英蒂 32
	수원문화회관 / 林長烈 36
	제주 한신리조트 / 金錫慶 + 李利新 39
	한국투자신탁 감실지점 / 李熙熙 42
	그랜드 레저 오피스텔 / 李達華 44
	서호동 주택 / 吳基守 46
스케치	"有無" / 崔東燮 48
일하며 생각하며	사랑이感應하는 건축을 위하여 / 朴時烈 50
초대 時	건축이 말을 한다 / 崔英英 52
企劃 시리즈	集合住居 53
	집합주거 추진의 생활양태와 단위주요 공간계획 / 禹錫宙 54
	인간 중심의 집합주거단지 개발방향 / 李熙泰 59
	집합주택계획과 주거밀도 / 朴春煥 64
研究	日本史 속의 건물과 도시(4) / 趙仁淑 72
	한국의 전통건축(37) 朝鮮時代의 建築 / 張慶浩 75
해외정보	해양건축을 향하여 84
資料	1991년 7월분 도서신고현황 90
新入會員	92
協會消息	93

차례/1991년 10월호 통권 제270호

會員作品	친주교 대진교구정 / 姜錫元 18
	동·사무소 / 金漢成 22
	김주 일문호텔 + 선재미술관 /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무소 26
	속초 S문도미니엄 / 林 昇 32
	수원주택 / 柳春秀 36
	부산 K호텔 / 黃演秀 38
스케치	삼척시 종합문화회관 계획안 / 崔和龍 40
일하며 생각하며	우리 주변의 관소리들 / 朴在煥 42
	민원 민생시대 / 尹鳳源 44
批 評	한국통신연구소 그 형태론적 의미 / 李益勳 44
企劃 시리즈	集合住居 50
	우리네 생활에 맞는 집합주거 설계 / 李奎成 50
	저층고밀형 도시주택의 개발 / 安瑛培 55
	다층아파트 구조설계와 개선책 / 李昌男 60
研究	한국의 전통건축(38) 朝鮮時代의 建築 / 張慶浩 66
	후쿠오카 가시아 프로젝트-IBA 건축전 / 金文德 78
資料	오수·분노 및 축산제주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8
	1991년 8월분 도서신고현황 94
協會消息	96

차례/1991년 11월호 통권 제271호

會員作品	한국은행 강남건산센터 / 李永熙 20
	한국의학어대 용안캠퍼스 도서관 / 李煥昌 24
	일신방직 기숙사 및 사원주택 / 禹時康 28
	삼성체육관 / 金昌錫 + 朴 昇 + 權相龍 32
	인천시립박물관 / 林長烈 36
	해인빌딩 / 俞元在 40
	두진빌딩 / 權相龍 44
	제주 신산동 주택 / 金守賢 46
스케치	충무시민회관 / 宋二浩 48
기 고	건축허가제한 조치는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 李永熙 50
	규제 민생시대 / 李甲俊 51
일하며 생각하며	음악 속의 단상 / 安基義 52
企劃 시리즈	集合住居 54
	집합주거단지의 근린주거계획 / 金煥昌 54
	집합주거단지의 옥외공간과 녹지시설 / 李潤炯 58
	집단주거의 노후화 영향인자와 건축계획 / 任相敦 62
설계경기	전문건설회관 현상설계경기 당선작 발표 67
研究	한국의 전통건축(完) 전통건축의 맥락과 그 계승 / 張慶浩 76
	해양건축을 향하여 / 이용재 82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 / 裴元泰 88
資料	1991년 9월분 도서신고현황 92
協會消息/市道建築士會 總會消息	94

차례/1991년 12월호 통권 제272호

會員作品	김천공장 종합사회복지관 / 徐輔光 18
	친주교 남천교회 / 姜錫元 22
	충북은행 전산센터 / (주)정림건축 25
	평창동 주택 / 金盛澤 28
	상지대학교 도서관 / 李榮一 32
	계명대학교 / 金武權 35
	한서상호신용금고 / 朴英昊 38
스케치	인스브룩 스키점프경기장 계획(안) / 柳春秀 40
일하며 생각하며	신미년을 보내며 / 崔英集 42
초대 時	마담 속에서 / 金瑛燮 44
企劃/설계경기	설계경기 유감 / 嚴應在 48
	현상설계경기 운영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 張世祥 50
	'91 현상설계경기 당선작 14선 52
研究	건물의 바닥구조 설계 / 金容孚 66
	제주민가의 주거환경과 민용 / 梁澤淵 68
誌上中繼	시장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72
寄 稿	ARCASIA 이사회 및 토론회 참가기 / 김지탁 + 이정근 82
	ARCASIA 건축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 趙秉수 + 趙仁淑 88
	제6회 ARCASIA 토론회에 참가하고 나서 / 韓錫勳 + 金潤景 90
資料	1991년 10월분 도서신고현황 92
協會消息/제26회 定期總會消息	94
'92 한국건축작품공모(40page 참조)	

1991년 11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가. 전년동월비 전년 11월분 8백88만2천5백30m²보다 15.96%(1백41만7천9백57m²) 감소한 7백46만4천5백73m²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 1~11월 누계 1억2천5백79만7천6백4m²보다 2.79%(3백5십만9천7백6m²) 감소한 1억2천2백28만7천8백98m²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 월 비 전월 10월분 1천3만2천9백27m²보다 25.60%(2백56만8천3백54m²) 감소한 7백46만4천5백73m²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概況(地域別增減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 m²)

구	분	99년도	1991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부산	566,330	981,597	415,267	73.33%
	대구	354,822	377,264	22,442	6.32%
	대전	188,295	830,542	642,247	341.09%
	충남	275,470	383,780	108,310	39.32%
	전북	188,407	272,701	84,294	44.74%
감소지역	전남	342,081	375,130	33,049	9.66%
	서울	1,537,177	849,167	(788,010)	-48.13%
	인천	764,951	608,462	(156,489)	-20.46%
	광주	329,226	225,606	(103,620)	-31.47%
	경기	1,244,261	1,101,140	(143,121)	-11.50%
	강원	290,997	287,061	(3,936)	-1.35%
	충북	356,049	302,699	(53,350)	-14.98%
	경북	524,118	347,409	(176,709)	-33.72%
	경남	1,704,603	432,431	(1,272,172)	-74.63%
	제주	115,743	89,584	(26,159)	-22.60%
합계		8,882,530	7,464,573	(1,417,957)	-15.96%

全國圖書申告概況(用途別增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 m²)

종 별	10월분	11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631,839	341,949	(289,890)	-45.88%
다세대주택	292,077	117,880	(174,197)	-59.64%
연립주택	262,001	134,862	(127,139)	-48.53%
아파트	4,424,513	2,991,465	(1,433,048)	-32.39%
근린생활시설	1,273,340	1,015,172	(258,168)	-20.27%
종교시설	77,701	78,714	1,013	1.30%
의료시설	17,845	82,642	64,797	363.11%
교육연구시설	328,405	390,600	62,195	18.94%
업무시설	477,748	556,726	78,978	16.53%
숙박시설	64,066	126,031	61,965	96.72%
공장	1,112,665	920,438	(192,227)	-17.28%
기타	1,070,727	708,094	(362,633)	-33.87%
계	10,032,927	7,464,573	(2,568,354)	-25.60%

市道別全國圖書申告概況(11月分)

시도별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692	719	757,647	92	100	91,520	0	0	0	784	819	849,167
부산		1,055	1,231	906,927	152	201	39,950	56	65	34,720	1,263	1,497	981,597
대구		234	299	310,079	412	447	38,274	44	45	28,911	690	791	377,264
인천		209	342	585,652	23	24	14,270	19	19	8,540	251	385	608,462
광주		190	227	194,800	67	83	28,037	8	8	2,769	265	318	225,606
대전		205	288	794,385	36	38	15,974	89	91	20,183	330	417	830,542
경기		835	1,141	937,431	129	152	82,178	107	107	81,531	1,071	1,400	1,101,140
강원		461	536	213,055	88	108	64,715	32	32	9,291	581	676	287,061
충북		556	687	238,306	69	107	52,590	65	74	11,803	690	868	302,699
충남		333	374	345,615	122	122	30,516	15	15	7,649	470	511	383,780
전북		249	298	234,395	79	94	28,959	14	14	9,347	342	406	272,701
전남		552	716	302,748	146	197	53,918	34	43	18,464	732	956	375,130
경북		498	592	226,053	132	203	82,669	19	21	38,687	649	816	347,409
경남		912	1,048	374,112	159	202	42,280	31	34	16,039	1,102	1,284	432,431
제주		172	203	76,946	123	126	12,638	0	0	0	295	329	89,584
합계		7,153	8,701	6,498,151	1,829	2,204	678,488	533	568	287,934	9,515	11,473	7,464,573

市道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 (1~11月分)

시도별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서울		34,853	36,284	21,649,549	958	1,018	627,748	0	0	0	35,811	37,302	22,277,297
부산		15,454	18,941	8,531,608	2,133	2,714	523,102	452	512	253,496	18,039	22,167	9,308,206
대구		6,962	7,810	4,794,187	4,624	4,872	426,570	382	387	198,671	11,968	13,069	5,419,428
인천		4,149	5,289	6,134,746	280	323	194,147	217	222	102,439	4,646	5,834	6,431,332
광주		4,250	4,685	2,588,633	878	947	291,783	106	106	28,811	5,234	5,738	2,909,227
대전		3,627	4,588	6,091,144	437	468	218,632	998	1,059	170,786	5,062	6,115	6,480,562
경기		21,923	27,105	25,309,877	1,899	2,186	1,086,483	861	861	733,295	24,683	30,152	27,129,655
강원		5,270	6,078	2,445,687	1,241	1,481	408,311	209	211	60,288	6,720	7,770	2,914,286
충북		6,559	7,874	4,059,804	1,075	1,348	543,561	576	585	90,302	8,210	9,807	4,693,667
충남		5,459	5,950	4,025,582	1,331	1,342	474,079	329	333	136,948	7,119	7,625	4,636,609
전북		3,699	4,476	3,299,711	866	985	600,903	201	203	57,776	4,766	5,664	3,958,390
전남		6,073	7,265	3,090,349	1,393	1,874	558,740	303	347	85,835	7,769	9,486	3,734,924
경북		8,353	9,931	5,413,746	1,843	2,306	1,296,608	227	236	184,602	10,423	12,473	6,894,956
경남		13,639	16,618	13,126,337	2,285	2,720	821,457	391	428	191,372	16,315	19,766	14,139,166
제주		2,541	2,938	1,254,197	1,153	1,170	105,996	0	0	0	3,694	4,108	1,360,193
합계		142,811	165,832	111,815,157	22,396	25,754	8,178,120	5,252	5,490	2,294,621	170,459	197,076	122,287,898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 (11月分)

용도별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단독주택		2,412	2,530	294,300	563	612	44,019	54	56	3,630	3,029	3,198	341,949
다세대주택		201	226	112,881	18	21	3,809	11	13	1,190	230	260	117,880
연립주택		50	73	133,715	1	1	1,147	0	0	0	51	74	134,862
아파트		113	596	2,968,819	12	17	14,544	5	13	8,102	130	626	2,991,465
근린생활시설		2,540	2,667	850,661	480	520	64,407	265	273	100,104	3,285	3,460	1,015,172
종교시설		92	110	57,002	45	52	19,937	7	7	1,775	144	169	78,714
의료시설		10	11	76,000	6	8	6,642	0	0	0	16	19	82,642
교육연구시설		78	111	269,208	68	91	113,868	25	25	7,524	171	227	390,600
업무시설		116	124	455,409	59	65	71,446	28	29	29,871	203	218	556,726
숙박시설		23	23	84,710	10	12	2,852	7	7	38,459	40	42	126,031
공장		459	774	652,055	235	398	220,533	54	63	47,850	748	1,235	920,438
기타		1,059	1,456	543,391	332	407	115,284	77	82	49,419	1,468	1,945	708,094
합계		7,153	8,701	6,498,151	1,829	2,204	678,488	533	568	287,934	9,515	11,473	7,464,573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 (1~11月 合計分)

용도별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건 수	동 수	연 면적
단독주택		67,070	69,020	11,126,429	9,417	9,900	621,778	636	642	45,475	77,123	79,562	11,793,682
다세대주택		13,678	15,518	7,156,543	331	355	33,627	186	224	16,845	14,195	16,097	7,207,015
연립주택		1,239	1,711	2,398,172	33	36	13,731	8	8	1,116	1,280	1,755	2,413,019
아파트		2,414	11,730	49,846,366	126	209	313,325	49	76	73,554	2,589	12,015	50,233,245
근린생활시설		40,371	42,416	17,684,503	5,053	5,282	991,847	2,748	2,794	846,434	48,172	50,492	19,522,784
종교시설		986	1,172	622,157	484	554	195,263	68	71	21,910	1,538	1,797	839,330
의료시설		84	106	502,430	88	104	127,108	23	26	15,741	195	236	645,279
교육연구시설		555	793	2,010,292	663	841	893,743	253	264	122,888	1,471	1,898	3,026,923
업무시설		1,428	1,562	5,577,472	528	564	378,876	147	149	163,892	2,103	2,275	6,120,240
숙박시설		229	295	674,400	86	117	64,777	89	92	130,693	404	504	869,870
공장		5,392	9,359	8,338,894	2,538	4,103	3,176,912	511	570	390,778	8,441	14,032	11,906,584
기타		9,365	12,150	5,877,499	3,049	3,689	1,367,133	534	574	465,295	12,948	16,413	7,709,927
합계		142,811	165,832	111,815,157	22,396	25,754	8,178,120	5,252	5,490	2,294,621	170,459	197,076	122,287,898

'92년도 사무식 거행

본 협회 '92년도 사무식이 지난 3일 10시 본부,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으로 거행되어 壬申年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吳雲東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회원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는 건축허가제한 조치의 신속적인 운영을 위해 활발한 대정부 접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실질적인 현안에 적극 대처하여 회원의 품위보전과 권익향상을 위한 일들을 적극

추진하여 보람되게 기억되는 한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며 국내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위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직원 10명은 吳雲東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團拜로써 새해인사를 대신하였다.

한편, 吳雲東회장과 李文雨 서울건축사회회장이 도서신고 필인을 날인하면서 1992년도 도서신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92년도 사무식 광경



도서신고 필인을 날인하는 오윤동회장님과 이문우 서울건축사회회장

신구임원 이·취임식

본 협회는 구랍 12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신규임원 이·취임식을 가졌다.

吳雲東회장을 비롯한 신·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이·취임식에서 吳雲東회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회원의 입장으로 들

아가서라도 그동안의 값진경험을 바탕으로 협회발전을 위해 지도와 격려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한편, 그동안 협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기만료 임원들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였다.

'91 건축인의 밤 행사 개최

본 협회에서는 구랍 20일 본협 회회관 1층 전시실에서 '91 건축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회원 및 관련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吳雲東회장은 「건축허가전면동결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무소 운영의 어려움을 인내

하며 협회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울러 우정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92년 새해에도 협회운영에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건축인 승년의 밤

신임건축법령연구소장 취임

본 협회에서는 구랍 13일자로 그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건축법령연구소장에 김해진(金海鎔)씨를 임명하였다.

신임 김소장은 서울대 건축공학파를 졸업하고, 국립원자력연구소와 건설부 등에서 30여년간 우리나라 건축행정발전에 이바지 해왔다.



金海鎔

- 1931년 12월 1일생
- 서울대학교 건축공학파
-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 국립원자력연구소 근무
- 건설부 근무

'91건축사보 보수교육 실시

서울시건축사회(회장李文雨)에서는 구랍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관내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보 1,146명을 대상으로 '91년 건축사보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실시

된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강태석 회원의 공사감리 및 설계요령과 양갑 서울시 건축지도과장의 서울시 건축행정지침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주)전캐드에서는 CAD활용의 현실과 미래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서울건축사회 건축사보 실무교육

시장과의 간담회 개최

대전건축사회(회장宋昇鎬)에서는 지난 11월 28일 관내 송정회관에서 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분회장을 비롯한 임근수부회장, 간사, 감사, 전임지부장 등과 대전시에서 흥선기시장을 비롯한

정춘희 건설국장, 건축과장, 건축지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행정처리제도에 관한 토론 및 건의를 하는 등 대전시 건축전반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

대통령 표창 수여

경북건축사회(회장金泰雄)는 지난 23일 재해복구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번 표창은 지난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경북지역의 수재민

재해복구지원활동에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해주택에 대해 무료로 건축물 안전진단과 설계를 제공하는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답례로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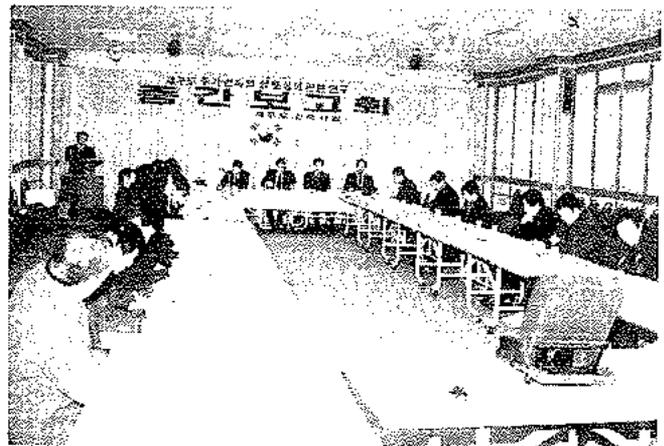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제주도건축사회(회장金昌祐)에서는 지난 24일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조성, 제주신문사에 기탁하였다.

한편, 제주건축사회를 비롯한 수협도사부, 제주 치과의사회, 그

랜드호텔등 4개단체와 공동으로 위문단을 구성하여 한과 속에서 해양경비에 여념이 없는 제주 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사업 중간보고회의 광경

제주도건축사회(회장金昌祐)에서는 지난달 13일 제주 파라다이스회관에서 건축사회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사업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연세대 산업기술연구소와 용역사업으로 공동수행중인 이 연구사업은 지난 5월 20일에 기본추진계획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 이래 지난 11월 30일 현재까지 55.5%의 진도에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중간보고회에는 소속회원외에 건축학회를 비롯한

교육계, 도·시·군 관계공무원, 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연구 총책임자인 송중석교수를 시작으로 환경분야담당 이경희교수, 색채분야담당 김기환교수, 평가분야담당 박영기교수의 순으로 중간보고가 있었으며, 참석자들과 앞으로 보완하여야 할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본 연구사업의 완료기간을 당초 1991년 말에서 199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조치하였다.



'92년도 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	위원장	위원
윤리위원회	송양석	김규태, 류근열, 김일영, 윤익상, 고분 변호사, 건설부 건축행정과장
홍보·편찬 위원회	이외구	<홍보> 정정치(부위원장) 최정일, 홍문유, 김주철, 김광백 <편찬> 서천식(부위원장) 이찬영, 김문규, 최영집, 송수구
법제위원회	강태석	이종엽, 강석준, 이종만, 최광수, 최광영, 이석우
건축사시험 위원회	김희춘	김진일, 이광노, 오용석, 안기태
특별전형 대책 위원회	김춘배	김형배, 김기완, 정진민, 김진식, 이영섭, 백운학, 한상건
건축위원회	김무언	박상호, 이봉하, 조구현, 이응복, 김진성, 강철구
실계감리분과 위원회	박상호	정헌주, 이상표, 민경진, 강현술, 안정환
구조·시공분과 위원회	이용하	이창남, 정재철, 오창희, 권오식, 김기두
에너지·설비 분과 위원회	김진성	이명호, 이남호, 손장열, 박용한, 이영수
전통건축분과 위원회	이응목	주남철, 김두헌, 장순용, 민정민
도시설계분과 위원회	강철구	김춘웅, 동정근, 양운재, 최등규
환경 디자인 분과 위원회	조구현	박돈서, 유경철, 이규목, 장응재

위원회	위원장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김신재	박찬무, 최익현, 주종원, 손동익
전문감리위원회	장기웅	이영희, 오봉석, 안길원, 이세훈, 도성만, 이봉근(대구)
연수위원회	정소	김택성, 변종환, 정명옥, 최희태, 정무용, 변경렬(부산)
국제위원회	김지덕	이정근(부위원장) 정봉수, 이영한, 조인숙, 김종부, 이성관, 심재덕
재건축 심의 위원회	조상호	장동찬, 정성교, 김형걸, 김형인, 김봉훈, 김명근
건축전산위원회	안영준	김창선, 김정식, 김정태, 김규태, 구준진
회원업무 조정 위원회	정호환	윤기병, 박래운, 김형인, 양대원, 강성엽, 허종오, 이정재, 조정상, 신종호, 이신환
업무개방대책 위원회	한규봉	강기세, 김정식, 김인석, 오수영
연합회제도연구 위원회	이경남	오원근, 장양순, 김린, 김기철
복지연구위원회	권태정	이경호, 조태종, 윤봉원, 김영석
공계조합 설립 추진분과위원회	윤봉원	김창환, 성도영, 윤태웅, 양원영
세무분과 위원회	김영석	자문세무사 * 기타 위원은 협의중임.
연금연구위원회	김영수	이춘상, 김대식, 이종관, 김순명, 최선용

특별초청강연

“르 꼬르뷔제의 건축세계”

주제 : '르 꼬르뷔제와 파리 : 안식의 도시, 빛의 도시'

연사 : Dr. Brian Brace Taylor

본 협회 국제위원회(위원장 金知德)에서는 국제문화교류의 일환으로 파리대학교 건축과에서 강의를 하고있는 Dr. Brian Brace Taylor교수를 초청하여 '르 꼬르뷔제의 건축세계'에 관한 특별강연회를 계획하였다. Taylor교수는 미국 아머스트대학교 영문학과(1965) 및 하바드대학교 예술과학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1965~1970)하였으며, 1974년 6월 '르 꼬르뷔제의 집합주거계획 : 1914~1928'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72년부터 미국 일리노이즈대학교에서 '20세기 건축의 역사와 이론'에 관한 강의를 비롯하여 영국 버밍햄 폴리테크닉과 미국 MIT등지에서 여러 분야의 강의를 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인도 건축가 Raj Rewal'(1991)을 비롯하여 '르 꼬르뷔제 : 안식의 도시'와 '폐쇄에서의 르 꼬르뷔제' 등을 영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등으로 출판하였으며,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제 3세계 국가의 전문 디자이너를 위한 건축전문지인 '마이마르'(계간지) 편집장으로서 '저소득층 도시주택 : 현대 건축물에 관한 지역적 모델의 영향'(1985)과 '식민지 건축의 탈신화화(脫神話化)'(1984) 등 수십편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회원 및 건축관련인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바랍니다.

■일시 : 1992년 1월 28(화) 10:00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강당 ■후원 : 아시아건축사 협의회(ARCASIA)